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박사 학위논문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Violence Process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석미진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Violence Process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01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석미진

석미진의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영 주	
심사위원	고 영 삼	
심사위원	이 승 미	
심사위원	전 호 태	
심사위원	정 민 자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4년 01월

목 차

<감사의 글>

<국문 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7
2. 가정폭력의 특성	11
3. 내면아이의 이해	20
4. 가족의 역동성	31
5. 사군자 성격 기질	39
III. 연구방법	42
1.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42
2. 연구 과정	43
3. 연구 절차	47
4. 연구 절차에 대한 평가	49
5. 연구 윤리의 엄격성	50

IV. 연구결과	51
1. 연구참여자 분석	51
2.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	52
3. 가정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분석	86
4. 가정폭력 가해행위의 근본적 주제	89
V. 논의 및 결론	114
1. 요약	114
2. 논의 및 결론	120
3. 시사점 및 제언	123
참고문헌	124
부록	144
Abstract	150

표 목 차

<표 1> 배우자 폭력 유형 및 행동	14
<표 2> 아동폭력 유형 및 행동	17
<표 3> 역할	28
<표 4> 의사소통 유형	34
<표 5> 가족생활주기의 역동적 과정모델 단계와 과업	36
<표 6> 연구대상자	45
<표 7> 심층인터뷰 구성	46
<표 8> 심층인터뷰 질문지	47
<표 9> 연구참여자 분석	51
<표 10> 연구참여자 1	54
<표 11> 연구참여자 2	57
<표 12> 연구참여자 3	61
<표 13> 연구참여자 4	65
<표 14> 연구참여자 5	68
<표 15> 연구참여자 6	71
<표 16> 연구참여자 7	75
<표 17> 연구참여자 8	78
<표 18> 연구참여자 9	81
<표 19> 연구참여자 10	84
<표 20> 가정폭력 가해행위의 근본적 본질	87

그림 목 차

[그림 1] 가계도 표시기호	38
[그림 2] 연구 절차	48
[그림 3] 나의 역할	97
[그림 4] 상처받은 내면아이	102

감사의 글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에 근무하면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같은 패턴의 피해를 호소하는 내담자를 보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시작한 공부였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항상 옆에 있는 가족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 인정,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에 잊고 지냈고, 이를 스스로 깨치게 해주시고, 주제부터 글쓰기, 오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폭력에 대한 편견 없이 가족을 바라보는 가족학자로 다듬어 주신 정민자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 짓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람 자체만을 오롯이 볼 수 있는 평면거울 같은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김영주 교수님, 고영삼 교수님, 이승미 교수님, 전호태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00시 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님, 김균열 계장님, 그 외 00시 보호관찰소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현장에서 서로의 힘듦을 보듬어 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장현희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문방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던 4인방 동기인 김지현 선생님, 임은숙 선생님, 전영화 선생님, 논문을 완성할 수 있다고 끝없이 지지해 주신 강남숙 선배님을 비롯한 동문 선배님과 후배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감사합니다.

특히, 이 논문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자신의 삶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연구참여자 10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논문에 관심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논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준 남편 이동식님, 먼 캐나다에서 엄마의 논문을 읽어준 든든한 큰딸 민정이, 자신의 위치에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잘 지내 준 중2 예쁜 막내딸 세정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4년 01월 석 미 진 올림

국 문 초 록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석미진
지도교수 정민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어떠한 심리적 변화 과정과 가정의 구조적 역동성에 의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지 그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심리 구조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어린 시절 폭력피해의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가?’, ‘가정폭력 가해행위의 해석학적 현상은 무엇인가?’ 이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와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00시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보호관찰 대상자, 검찰 기소 단계 대상자, 경찰조사 단계에 있는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목적에 동의한 남녀 10명이며, 심층 인터뷰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3개월로, 참여자 한 명당 2~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인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심층인터뷰 자료는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과량새 2.0(201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체성에 대한 근본적 본질은 가정폭력 가해행위이며, 본질적 주제는 4가지로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됨, 속마음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함,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나와 나의 주변인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는 14가지로 어른이 되면 나도 때릴 수 있어, 나도 맞고 배웠는데, 너도 맞아야지, 맞는데 이유 없어, 손에 잡히는 데로 부숨, 밖에서는 좋은 사람, 집에서는 폭군, 술을 먹어야 용기가 생김, 성행위 중독증, 배우자의 외도 확인, 나에게 순종하지 않음, 나의 지인 무시, 나를 투명 인간 취급, 먹는 것으로 나를 챙기지 않음, 돈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음, 나를 찾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공간성에 대한 근본적 본질은 가정이며, 본질적 주제는 3가지로 집은 내가 왕이다, 집이 지옥, 가정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나타났다. 하위범주는 11가지로 내 집에서 내가 될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 집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싫으면 나가, 밥도 못 먹여 주는 곳에서 나는 나갈 거야, ‘자식이 죽었는데, 집에서 내가 될 하겠나’,

나는 언제나 외롭고 혼자다, 배우자도, 자식도 없는 집, 자식이 죽어 나간 집,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다, 이슬 피하고 잠만 자고 나오는 곳, 언제나 나에게 돈과 희생 강요,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내가 집 한구석에 죽어도 몰랐을 것이다로 나타났다.

시간성에 대한 근본적 본질은 내면아이이며, 본질적 주제는 4가지로 강하고 싶은 나,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고독한 나,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나타났다. 하위범주는 17가지로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게 살게 해야 한다, 나는 누구처럼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언제나 혼자인 사람, 늘 그리운 엄마, 나만 참으면 돼, 서로 의존적인 관계, 공격적인 행동, 자기애성 성격장애, 신뢰에 문제,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 마술적 믿음, 친밀감 장애, 무질서한 행동,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 사고의 왜곡, 공허감, 무관심, 우울로 나타났다.

관계성에 대한 근본적 본질은 가족의 역동성이며, 본질적 주제는 4가지로 먹을 때마다 전쟁, 전부 가족 탓, 전부 내 탓,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는 7가지로 나를 챙기지 않음, 술만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음, 내가 능력이 없고, 자상하지도 않음, 힘들다고 자식을 친척 집으로 보냄, 엄마가 나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가지, 자식이 나 때문에 자살, 경제적 지원 못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이들의 타고난 고유의 잠재력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혀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가진 채 성장하였고, 친밀한 관계의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갈등 해소 방법으로 폭력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점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과거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현재의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현상은 개인별 특성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을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폭력의 민감성과 다양한 심리 정서를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일방의 진술로 연구가 진행된 점에서 전체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연구하여, 가정폭력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상담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가정폭력, 사군자 성격 기질, 내면아이, 상처받은 내면아이, 가족의 역동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세상이다. 일상의 모든 것을 학습하고 체험하면서 행동과 감정이 수용되는 안전지대이기도 하다. 이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태어난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는 갖는다는 의미이다.¹⁾

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 인간의 존엄한 권리가 짓밟히는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180,111건으로 전체 상담 중 가장 많은 5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가정폭력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바람직한 자아개념을 형성할 시기에 자녀는 자신을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최장원, 김희진, 2011), 특히, 폭력은 학습화되고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은 성장하는 자녀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뇌 변화(Prasad, Kramer, & Ewing-Cobbs, 2005), 심각한 인지적, 신경학적 손상(Barlow, Thompson, Johnson, & Minns, 2005), 분노, 적대감, 우울감, 불안과 같은 정서 조절의 어려움(Browne & Finkelhor, 1986), 또래 괴롭힘 행동 등의 부적응 문제를 보일 수 있다(박진아, 2016). 또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불안과 상처는 심지어 스스로 죽거나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등 가정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장수미, 김주현, 2005).

특히, 가정폭력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면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학습하는 학습장이 되며, 범죄 행위의 원동력이 된다(유덕순, 2001). 폭력 행동이 대물림되는 가정폭력은 성인기 동안에 나타나는 부부폭력과 이에 뒤따르는 자녀폭력 간의 관계를 포함하며,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모방한다(Cappell & Heiner, 1990). 이렇듯 가정폭력으로 학대받은 자녀는

1) 헌법, 제10조, 헌법 제10호

폭력의 피해자에서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Widom, 1989). 같은 맥락으로 조성민(2008)은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그 자녀 또한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고, 김재엽(2007)은 ‘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을 체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같은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가정폭력을 인식하는 관점을 폭력피해(victimization)와 폭력가해(perpertration)로 구분하고, 폭력의 대물림 관점에서 나아가 가족 구성원의 일원인 가정폭력 가해행위자의 가정폭력 가해경험과 전 생애적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변수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강양희, 2015). 더욱이 아동의 부모가 서로에게 또는 그들의 자녀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때 그 아동은 나중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Cappell & Heiner, 1990).

아동기에 가정폭력피해 경험을 가진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해행위에 숨은 이면은 무엇인지, 어린 시절 폭력 피해경험 인식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자기 심리 내면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가정폭력 재발을 막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가정폭력 가해자 경우 폭력 피해 경험이 자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폭력 피해 경험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잘못된 자아 인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심각한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여성단체의 입법 운동을 거쳐 1998년 7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2조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 이후 지금까지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재정적 운영지원과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확장,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 운영 등이다.

물론,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우선되기는 하지만, 가정폭력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가해자 중심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가정폭력 범죄의 연구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²⁾ 사건 및

2)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Ⅰ)(2019): 범죄학 연구

범죄자 특성에 대한 연구 3건, 인식 및 피해조사 연구 3건, 형사절차 및 대응 연구 4건, 총 10건의 연구가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연도별 차이를 보인다. 90년대 초반에는 인식 및 피해조사에 대한 연구가 3종, 2000년 초반과 2010년 초반, 2017년 사건 및 범죄자 특성에 관련된 연구, 형사절차와 대응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다가 최근 2020년부터 다시 인식 및 피해조사 연구가 실시되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아영(2007)은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 박동혁(2006)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법적 처벌과 가해자가 가진 폭력적 특성을 교정하는 상담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하였다. 최연화(2022)는 가정폭력 가해 행위자의 자기분화의 정도가 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 분노, 자아 존중감이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양적연구를 하였고, 이금옥(2009)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찰 신고 후 상담 위탁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심리 사회적 행동 변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문순정(2009)은 보호 처분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 행위자가 변화하는 동기를 연구하였는데, 폭력이 발생한 후 이루어진 연구로서 폭력이 발생하기 전 폭력을 예방하는 관점과 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은 하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정폭력 가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성과에 비해 가정폭력 가해 행위자들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라는 결과(김기현 외, 2018)와 일치되는 부분이며 가해자들의 연구 참여의 비협조적인 태도(장희숙, 조현각, 2013)가 가해자 연구의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가정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정이라는 친밀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은 한계에 부딪히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방면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위 중단을 기대할 수 없다. 뿌리 깊은 가정폭력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족문화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질적인 가족문화는 가부장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근간에 두고 있다. 아직도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순종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남편은 경제활동,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이라는 전형적인 성 역할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방면의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가정폭력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가해자를 범죄 행위자로

차별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조사, 수강명령, 보호처분, 상담 명령을 받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자기 인식을 돕기 위한 상담을 통해 폭력행위에 대한 치료 및 교정을 목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한국 여성 폭력실태조사, 2022). 이런 인식하에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이 점점 개발되어 보급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은 가해자의 치료적 변화나 가정폭력 사건 발생 감소 면에서 두드러질 만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것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로 외국의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실시한 데 따른 결과이다(최용, 황희숙, 2005). 김영희(2016)는 폭력성이 강한 가해자의 깊은 내면을 심리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폭력의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자기방어를 줄이고 자기 인식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와 구조적 특성을 자세히 밝혀낸 연구는 드물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접근하기보다는 소수의 대상자를 면 대 면으로 만나 그들 내부의 깊은 이야기와 경험을 자세히 듣고,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기숙, 2010).

이에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가정폭력 가해 행위자들에 대한 다방면의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이들의 심층적이고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면아이 탐색과 사군자 성격 기질 검사(김종구, 2013)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심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해행위를 가해자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가정의 건강한 가정 회복에 기초가 되고, 가정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정환경에서 어린 시절 폭력피해를 경험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 경험에 내재된 본질적 현상을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 도구로 상처받은 내면아이와 사군자의 성격 기질, 가족의 역동성을 살펴봄으로써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로써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구조를 파악하고, 어린 시절 폭력피해 경험이 현재 가정폭력 가해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가정폭력 가해자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면서 어떠한 성격적 기질과 가족의 역동성 안에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가진 채 성장하여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어떠한 무의식과 정서가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무의식과 정서가 억눌리는지,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상담적인 치료개입에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정폭력 가해자의 어린 시절 폭력피해의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 연구문제 2.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가정폭력 가해행위의 해석학적 현상은 무엇인가?

3. 용어 정의

1)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이며,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배우자 또는 존비속 또는 직계(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 계모와 자녀 관계이거나 적모³⁾(嫡母)와 서자(庶子)⁴⁾ 관계이거나 이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親族)을 뜻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찰기관에 신고 된 자로서 법원보호 처분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정숙, 2017). 가정폭력범죄는 동법 제2조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서자가 아버지의 본처를 이르는 말. 한국어사전

4) 본부인이 아닌 첩이나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들. 한국어사전

2) 내면아이

Jung(1971)은 내면아이는 타고난 잠재력과 창조성, 경이로움의 모든 요건을 가진 아이원형으로 정의한다. Bradshaw(2004)는 아이원형이 가진 생명력 넘치는 모습은 놀라운(wonderful) 아이이며, 진정한 자기(true self)라고 보았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적응된 자아(adapted self)로 보았는데, 이는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진정한 자아로 받아들인 경우 인생의 여러 슬픔과 비참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오제은, 2011).

3) 사군자 성격 기질 검사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특성으로, 자극에 대해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 성향을 의미하며, 성격은 유전적인 영향이 적고 후천적으로 발달되기에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의 개인차를 의미한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21).

사군자 성격 기질은 Keirsey(1998)의 이론과 내향-외향 이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군자의 이미지 특성을 활용하여 개발된 기질분류 검사도구이다(김종구, 2013). 사군자의 매, 난, 국, 죽의 그림 특성(이선옥, 2016)과 식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하였다(김종구, 2013).

4) 가족의 역동성

역동⁵⁾(力動)이라는 말은 ‘움직인다’ 어떤 힘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힘, 내면에서 흐르는 정신적인 힘, 감정의 세력이 움직여 인간의 행위에 연결된다는 뜻이다. 가족에서 개인의 가치, 행동 방식, 대처방식, 부모와의 관계성, 구속의 강약, 친밀감의 형성 정도, 가족 간의 우애와 화목 등 개개인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생활주기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역동성으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에 폭력이라는 행위를 행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임을 이르는 말. 한국어사전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범죄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거 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으로 은밀히 행하는 특징을 지닌다. 현혜순(2005)은 배우자간의 폭력, 아동학대, 부모폭력 등 가족 구성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함하였다. 이는 성 중립적이고, 아내폭력은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한 권력의 결과로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보았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Straus와 Gelles, 1990), 신체뿐 아니라, 성폭력, 정서적 학대, 통제, 유기, 협박 등 모두 포함한다.

가정폭력 대상은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와 존비속 직계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 계부모의 자녀 관계, 적모(嫡母), 서자(庶子)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親族) 등 포함해 아동학대, 노인 학대, 배우자 학대가 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즉,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노순규, 2012).

2)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이고 강한 신체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의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다(Straus와 Gelles, 1990). 이는 가정폭력의 주체를 성별로 한정 짓지 않고 가정폭력의 목적을 의도성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 행위로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있다.

Rounsaville(1978)와 Hotaling and Sugarman(1986)는 가정폭력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에 가정폭력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분명하게 밝힐 수 없고,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일반적 원인을 개인 내적 이론, 사회심리적 이론, 사회문화적 이론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격특성, 태도, 행동 특성, 환경적 상황 등 각각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 내적 이론(intraindividual theories)

폭력의 중요한 결정 원인을 정신 병리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으로 폭력 가해자의 개인 내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성격적 결함, 정신질환, 사회병리학적 관점, 알코올과 약물 오남용, 개인의 비정상적인 내적 심리 특성과 원인들을 가정폭력과 연결한다. 이는 개인의 병리학적(pathological) 성향, 일탈적인 성향으로 가정폭력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의존성, 우울, 공격성, 낮은 자아 존중감, 손상된 자아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강박장애, 편집증, 경계선 성격장애 등의 증상으로 연결된다(최상진 외, 1999; Adams, 1988).

개인의 심리 내적 접근은 일반적인 남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설명하지 못해 비난받고 있다. 모든 가해 남성이 정신병 환자라는 증거는 없다. Dutton(1994)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 프로파일은 있다고 믿지만, 가정폭력 사건 중에서 성격적 특성이나 정신 병리 탓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주장한다(Straus와 Gelles, 1990).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대개 감정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심리적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타인에게 상실감을 느끼면 공격적이고 변덕스럽게 변하는 자신의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지나친 간섭, 질투, 소유욕은 상대 여성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해야만 자기 자신의 감정이 유지되는 특징을 지닌다(김미애, 2006). 그 결과, 배우자의 정절에 대한 정신병적인 질투심을 느끼고, 배우자에 대한 강한 의존과 집착을 표현하고, 배우자를 통제한다. 음주 또한 가정폭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Tolman & Bennett, 1990).

음주는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개변수로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주부 5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알코올 섭취는 가정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숙, 1991).

(2)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ies)

폭력을 거시적인 사회구조나 사회 질서의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의 가치, 사회의 제도, 운영 관점에서 설명한 이론이다. 폭력은 가족관계에 관한 규범, 문화적인 태도,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폭력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일반체계(system theory)이론, 구조(structural theory)이론, 문화이론(cultural theory) 등이 여기에 속하는 이론으로 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규범, 가치 등 사회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체계(system theory)이론에서는 목적을 추구하고 적응하는 사회체제로 가족을 본다. 폭력은 부부 사이의 순환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폐쇄적인 행동유형이고, 가족관계 내에서 누가 누구를 통제하느냐에 대한 상호 투쟁의 표현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는 입장을 가진다. 즉 개별 파트너는 모든 상호작용에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Straus, 1979).

구조이론(structural theory)은 스트레스, 좌절, 차별, 박탈과 같은 폭력 유발 원인에 바탕을 두고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한다. 예를 들어 빈곤층, 다자녀가족, 인구 밀집 지역, 보수적 문화, 남녀 성별에 대한 차별문화에서 폭력이 보다 만연된다고 주장한다(Steinmetz, 1987). 즉,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은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가정 내의 사회화 과정과 구조화된 사회적 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는 남편이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가장의 권위만 내세워 배우자에게만 일방적인 성적 정절을 강요한다.

반면, 자신의 성적 일탈이나 성적 방종은 정당화와 합리화를 하는 태도를 가진다(김경화, 1985; 박경규, 1994; 송영자, 1986). 구조이론은 개인 간의 폭력을 스트레스 이론, 좌절-공격이론, 학습이론 등의 연구를 통합하여 가정폭력과 관계된 다양한 이론들과 통합하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가족의 내적 관계를 간과하는 한계를 지녔다.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은 폭력적인 문화가 뿌리 깊은 가족이 스트레스와 박탈감을 많이 느끼거나 갈등을 해결할 자원이 부족한 가족보다 가정폭력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예측한다. 이런 인식은 가정폭력의 당위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이 가정폭력을 지원하는 문화적인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Steinmetz, 1987).

(3) 사회심리학적 이론(sociopsychological theories)

사회학습 이론가인 Bandura(1973)는 폭력행위 자체를 관찰 학습된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한다. 개인은 다른 이의 폭력행위를 관찰, 모방하여 새로운 폭력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없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동기 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성인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개인이 폭력 관찰 경험이 중요한 가해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정옥, 1987).

스트레스와 가정 내 폭력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개인이 겪는 경제적인 문제, 실직, 자녀 양육 문제,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의 차이들에 해당하는 특정 스트레스 요인들은 바로 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손현주, 1997).

귀인이론(attributiontheory)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행위를 이해함에 있어 왜 그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났는지 추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귀인이론은 행위의 원인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 그러한 원인에 대한 개인의 지각 이론이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 행위자의 정신병리, 미성숙한 질투, 미성숙한 성격, 의존성 또는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성격, 약물, 술 중독 등이 가정폭력의 가해행위에 영향을 주며, 부권 중심의 가정과 문화에서 자란 남편의 권위 의식, 남편의 외도, 사회·경제적 수준, 불안정한 결혼 등이 가정폭력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명희, 2000; 김재엽, 1998; 송미경, 2004; Burkem, 2003; Dalton, 2001; Rounsaville, 1978).

권위적인 남편이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능력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의처증 또는 피해망상이 심할 때, 외부에서 당한 기분 나쁜 일로 화풀이를 하고 싶을 때, 외형적으로 적당한 구실을 찾아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내를 이유도 모르고 맞는 경우가 많다(김광일, 1994; Bauer, 1997; Hadeed, 2003). 또한 배우자가 외도, 음주, 도박 등을 지적할 때 남성의 세계를 여자가 이해를 못 한다고 트집을 잡아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렇듯 가정폭력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력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와 그 의미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듣는 경우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이에 걸맞은 치료개입에 상당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2. 가정폭력의 특성

1) 배우자 폭력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함께 해결하고, 사회로부터 받는 비합리적인 대우로부터 안식과 치유를 얻고, 신체적인 피로와 함께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안전지대이다. 또한 가족의 원만한 상호지지와 수용적인 의사소통 속에서 서로의 성장 발달을 이루려는 중요한 곳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 등은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고, 불행한 삶을 평생 살게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종교, 지역, 시대, 사회적 계급, 학력 수준 등을 막론하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다. 가정폭력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폭력이 부부생활의 일부분(정희진, 1999)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Straus and Gelles(1990)는 미국의 가정폭력 전수조사(1975년, 1985년)에서, 가정 내에 자주 발생하는 부부간의 다양한 상호폭력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부폭력은 가부장적이지 않고, 성 역할에 구애받지 않으며, 갈등이 생기는 과정에서 종종 생기는 약한 폭력의 형태로 정의한다. 김득성, 김수연(2001)의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은 일방의 배우자가 일방의 배우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부가 함께 폭력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부 함께 가해자 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임을 주장한다. 또한 배우자 폭력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며, 공동으로 이룬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주장한다.

(1) 가해자의 유형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는 도덕적, 법률적 범주를 침해하며 다른 성인들의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지만, 근본적인 욕구, 감정, 노력 등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독특한 것만은 아니다.

Johnson(1995)은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2가지 집단으로 나눴는데, 가부장적 테러리즘(patriarchal terrorism)과 일반적 부부(common couple) 폭력으로 나눴다. 친밀한 관계의 중요한 인물에게 신체적 공격 또는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 유사하고

폭력의 기원, 동기, 유형 등은 매우 다르다. 즉, 구타를 당해 쉼터로 대피해 있는 여성과 전국적인 통계조사를 할 때 사용되는 인구 표본 집단과는 다른 집단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테러리즘은 여성 중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더 위험하고 폭력이 훨씬 심한 정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이다. 대부분 남성 가해자가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 가해행위로 이 범주의 가해 배우자는 관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배우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이 관계에서 가해 배우자는 신체적인 폭력, 위협, 협박, 성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폭력 전략을 사용하면서 통제와 힘의 구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 일반적 부부폭력은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는 갈등에 대한 반응이며, 그것의 특정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나타난다. 가족 구성원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때때로 견잡을 수 없는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폭력은 특정한 성별(gender)의 가해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유형의 폭력은 보통 배우자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를 시도하는 유형이 아니다.

2가지 유형의 가정폭력이 생기는 차이의 핵심은 바로 동기에서 시작된다. 가부장적 테러리즘은 폭력의 행위가 배우자의 통제, 힘, 남성의 권리, 남성 지배의 큰 맥락에서 시작되는 반면, 일반적 부부폭력은 덜 특정한 목적으로 시작된다. 이 폭력 유형은 배우자를 특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좌절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로 Prince and Arias(1994)는 가정폭력 가해자 남성을 2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개인적 선호, 확신이 일치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해자이고, 둘째는 좌절의 결과를 분노로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2) 남성의 폭력성향

사회학습이론은 아동기에 폭력행위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기에 폭력적인 관계로 있는 가능성이 높고, 특히 폭력의 가해자로 남성이 되기 쉽다고 한다. 아동기에 실제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도 가정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밝혔다(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김정옥, 1985, 1987; 김정옥, 전형미, 정복희, 1993b; 손정영, 1998). 특히 심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옥, 1987).

Gelles and Straus(1988)는 구타하는 남편의 특성 중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을 부적절하게 느끼며, 자신이 지배적이고 권력을 갖기 위해 폭력을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남성의 가부장적 폭력성은 성 역할 태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경신, 1998). 가부장적 성 역할 태도는 기본적으로 남성이 우위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고 통제 가능한 지위에 있으며 그 지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된다고 보는 태도이다. 이는 한국의 유교적 전통과 맥을 같이 하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편의 지위는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남편은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종결정자가 된다.

가부장적 사회규범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할 경우 폭력을 포함한 일련의 제지 행동은 합리화가 될 수 있다. 이는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밖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인상을 종종 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를 가정에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남편으로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폭력적이지 않을 때는 매력적으로 느끼기도 한다.

가정폭력을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연구한 Sharon Herzberger(1996)는 가정폭력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의 폭력은 비교적 낮게 보고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왜 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폭력을 신고하거나 벗어나지 않고 가정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지를 Herzberger는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의존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남편이 폭력을 사용할 때 아내와 자녀가 경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되어 집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상상하지 못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폭력을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말하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나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가해자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피해자의 두려움은 집 밖에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다. 경찰이 온다 해도 피해자 자신을 도와준다고 믿기보다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연민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를 사랑한다고 믿는다. Herzberger(1996)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배우자의 50% 정도는 배우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이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이는 가해자가 뉘우치면 피해자는 폭력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앞으로 폭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배우자 폭력은 은밀하고 친밀한 가정 안에서 발생 되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재발 되고 있다.

(3) 배우자 폭력 유형 및 행동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표 1>의 배우자 폭력 유형 및 행동을 뜻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배우자 폭력 유형과 행동은 신체적인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의 통제를 포함하여 5개 유형으로 나누었다(이현미, 김정혜, 2019, 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표 1> 배우자 폭력 유형 및 행동

유형	행동
신체적인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를 다치게 하는 물건을 줌. · 배우자를 밀거나 머리, 어깨, 팔 등을 움켜잡음. · 손바닥으로 몸, 머리, 뺨 등 때림. · 목을 조르고 코와 입 등을 막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러 화상을 입힘. · 칼 등의 흉기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함. · 몽둥이, 허리띠 등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림. · 발, 주먹 등을 사용하여 사정없이 때림.
성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을 사용하여, 배우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 ·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 ·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키스, 만지기, 포옹 등)을 하는 행위 · 배우자와의 성행위 또는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 배우자와의 성행위 또는 신체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 사진, 배우자의 이미지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 등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거나 올리겠다고 협박한 행위
경제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고, 생활비를 일부러 주지 않음. · 배우자의 재산, 지분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함. · 가정의 지출과 수입을 독점함. · 배우자의 재산과 돈 등을 뺏거나 빚을 지게 함.
정서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을 하거나 모욕함. ·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위협함. · 배우자의 물건 부숨. · 배우자가 아끼는 반려동물, 지인 등을 해하겠다고 위협함 · 배우자가 보는 데서 자해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함. ·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힘.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함. · 온,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하는지 감시함. · 배우자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담하게 대하거나 무시함. · 다른 남성/여성(배우자/파트너와 같은 성별)과 이야기하면 화를 냄. ·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화를 냄. ·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동의받도록 함. · 직업을 갖거나, 교육을 받는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동의를 구하도록 함. ·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간섭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함. · 성관계 시 피임기구를 동의 없이 제거하거나 거부함.
--	--

출처: 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p.45.

2) 아동폭력

(1) 아동폭력의 개념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이현미, 2021)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기는 6세부터 13세까지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말한다. 일상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이 시기의 발달은 학교생활이 중심이 되고, 아동은 학교생활을 통해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Erikson(1964)의 심리 사회적 이론에 의하면,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 이 단계의 시기에 아동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는 아동의 근면성에 결정하는 시기이며, 근면성은 아동이 속한 사회에서 기능하고 경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체득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아동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열등감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중요하지 않음과 능력이 없음을 지각한다고 한다.

방임과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본인의 욕구를 거부하고, 무관심하게 느끼는 환경에서 성장한다. 이러한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랑받고, 본인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감정을 느끼기는 매우 어렵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영향으로 아동의 행동은 점점 부정적 발달을 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을 당한 아동은 대부분 슬픔, 불행, 절망감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성격적 특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가 어느 발달단계였으며, 아동 자신이 가진 특성 혹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누구인가 등에 의해 다르게 형성된다(이주연, 1996).

아동기 가정폭력의 경험은 크게 아동이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것과 간접적으로 폭력을 목격한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하숙정, 2020). 이때 아동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경우를 가정 내 아동 외상, 트라우마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가정 내 부모 또는 주 양육자로부터 가해진 신체적 손상으로, 발로 차거나 흔드는 행위, 주먹으로 치거나 물건을 던지고, 흉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심리·정서적 손상 또는 불안, 두려움을 유발하는 언어적 또는 상징적 행위로 아동을 무시하거나 위협, 고립, 타락, 거부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아동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신체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아동 유기 등이 포함된다(윤상영, 2013).

(2) 아동폭력 유형 및 행동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아동을 밀고, 때리거나 화상을 입히고, 주변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인 상처를 받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이며, 정서적 폭력은 언어적 위협,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통제, 억제, 학대하는 모든 행위 등을 포함한다(안재진 외, 2011). 또한 직접적인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은 지연되고, 이런 결과는 학교생활과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교생활에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배화옥, 2010).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연구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아동폭력 유형 및 행동을 구분하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아동폭력 유형 및 행동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의 3개 유형으로 나뉘었으며 14개 세부 항목에는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가 무심히 하는 행동 모두가 아동폭력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7년 12,619건이고, 2018년은 12,853건, 2019년은 14,484건, 2020년 16,149건으로 매년 10% 정도씩 증가했는데, 2021년에는 26,048건으로 61.3% 급증했다. 2021년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대부분 가정 내 발생이 86.3%였다.

<표 2> 아동폭력 유형 및 행동

유형	행동
신체적인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뺨, 머리, 몸 등을 손바닥으로 때림. · 몽둥이, 허리띠 등의 물건으로 때림. · 아동의 신체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던짐. · 발과 주먹 등으로 세게 때림. · 아동의 신체를 사정없이 마구 때림. · 아동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함. · 일부로 화상을 입힘. · 칼, 흉기 등으로 다치게 하거나 위협함.
정서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리겠다고 겁을 주거나 위협함. · 욕 등의 나쁜 말을 함.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때마다 제대로 챙겨주지 않음. · 병원 치료가 필요해도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음. · 약물, 알코올 등의 중독이 되어 아동을 돌보지 않음. · 성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혼자 있게 함.

출처: 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p.48.

3) 존속상해

존속상해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⁶⁾ 존속⁷⁾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이다. 존속상해는 가족과 친족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적 범죄이고, 여기에는 직계 존속뿐 아니라 비속⁸⁾에 대한 폭력,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는 사회의 윗세대에 대한 폭력적 범죄도 포함한다.

가족구조의 형태가 급격한 사회변화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웃어른을 공경하는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존속에 대한 패륜적 행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근친 간의 성폭력, 윗세대의 훈계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적 저항, 교사를 폭행하고, 교권을 무시하는 학생 등 우리 사회의 패륜적 범죄와 비행의 양상은 전통적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한 채 인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병리적인

6) 친족 관계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핏줄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등으로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 국어사전

7) 부모 및 그와 동등한 항렬 이상의 혈족. 국어사전

8) 친족 관계의 촌수로 따져 자기보다 아래 세대인 혈족. 국어사전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범죄행위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거나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주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표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최근 이러한 현상은 존속상해가 최근 10년간 4배가 증가한 기사⁹⁾를 보면 알 수 있다. 존속상해의 범죄가 단순히 관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실제로 위협하는 구체적 위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최인섭 외, 1995)는 사법처리 현황, 존속범죄의 발생 추세,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주요 범죄 유형, 행위적 특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존속범죄의 전반에 걸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회적 관심과 발생 건수가 높은 존속상해 범죄와 존속폭행 범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공식적인 통계 자료와 법원 및 수사 재판기록조사를 활용하였다.

존속상해의 특성은 공통된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첫째, Schmallegger(2006)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의도, 존속상해 동기로는 애정, 복수, 테러, 이익 등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존속살해 등의 경우 가족관계이면서 복수, 애정, 이익, 무차별 공격 등 모든 동기가 나타난다. 둘째, 부모의 재산을 노리거나 친족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진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 하여 서양과 달리 자녀의 양육과 성공에 혼신을 쏟아붓는 한국문화에서 오히려 자녀에 의한 패륜 행위가 성행한다는 것도 역설적인 특성이다¹¹⁾. 셋째, 정신장애에 기인한 존·비속 간의 살인, 상해, 폭행 등도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묻지마 범죄’에서도 정신장애에 기인한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 그들이 부모와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었다면 존속살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²⁾.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스트레스와 정신적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급속한 노령화와 더불어 패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서양 국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평균수명도 크게 늘어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문제로 가족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

2021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전체 8,423건의 노인 학대 가해자 중 배우자가 2,455명(29.1%), 아들이 2,287명(27.2%)로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친척, 손자녀, 사위, 손자녀 등 친족이 5,792명(68.8%)로 가족 구성원이 가해 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 5,962

9) 세계일보_존속협박사건 4배 증가.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29509194?OutUrl=daum2023>.

10) 뉴시스. 2023. 10. 28. 가족범죄 심각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27_0002499503&cID=10301&pID=10300

11) 더팩트. 왜 돈 안줘 아버지 잔혹 살해한 40대 항소 기각.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50301.htm>

12) 문화일보. 2023.8.21. 방치된 나홀로 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키운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2101070921305001>

건(88.0%), 생활시설은 536건(7.9%), 이용시설의 87건(1.3%) 순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미흡하고, 전통적인 가족 윤리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인 스스로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이들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앓게 된다면 치료비 등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패륜범죄의 유발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전통적 윤리관과 부모에 대한 애정으로 이를 수용하여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촉발되고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존속상해의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폭력의 대물림

폭력의 세대 간 전이는 주 양육자인 부모의 행동을 아동이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부모 간의 폭력이나 양육 환경 속에서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폭력의 패턴 등을 배울 가능성이 크다(최광신, 2008).

폭력의 재생산(cycle of violence)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시절에 부모의 폭력을 직간접으로 보았거나 직접적인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이 되어 폭력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조민경, 2017; Widom, 1989)에서 재인용), 실제로도 약 70%에 달하는 폭력적인 가해 행동을 했던 성인들이 과거에 폭력 범죄 피해를 실제로 경험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목격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조민경, 2017; Widom, 2000). 결국, 어린 시절 주 양육자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자주 노출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하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은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는 계속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정상래, 2012).

Bandura(1971)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는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하여 학습하고,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과정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교육의 목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폭력의 정당성이 학습되어 관계 속에서의 갈등 해소를 폭력으로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White & Straus, 1981).

Bowen(1976)은 원가족의 영향으로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정서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세대에 걸친 정서의 세대 전수의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성인이 된 자녀가 원가족의 심리 정서적 분화가 되지 않은 원가족의 정신역동을 반복한다는

세대 전수 개념을 설명한다(하상희, 정혜정, 2008). 이는 폭력적인 가족의 구성원과 자신이 다른 인격체라고 하는 자기분화의 수준을 형성하지 못한 채 폭력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런 폭력의 성격을 가진 가정폭력은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서로에게 부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취약한 상황이 되면서 가정폭력이 악순환된다.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폭력을 관찰하고 경험한 청소년이 갈등 해결의 한 방법으로써 폭력을 학습하게 자신이 겪게 되는 다른 종류의 갈등에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보고된다(김인아, 2023).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부모 또는 자녀는 언젠가 피해를 입을 위험도 가진다. 형제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형제 살인이 발생하기도 하고(김지혜, 2005), 오랜 기간 지속된 부모-자녀 간의 학대는 가해자였던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듯 짧은 시간, 세대 안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와 가해는 중첩성이 일어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말처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파괴적이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으며, 서로가 화를 내면서 실망하고 상대방의 영향으로 성장과 일상생활에 방해받는 느낌으로 관계를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은 다시 파괴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반복되고 순환되는 패턴을 가지며, 폭력을 사용하는 가해자와 당하는 피해자 사이에 심리 사회적 역학을 발생시켜 폭력이 있어 관계를 끊을 수 없다가보다는 바로 그 폭력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한다(David, 2002).

3. 내면아이의 이해

1) 내면아이 개념

학자들에 따라서 내면아이는 다양하게 정의된다. 1900년대 초 심리학에 큰 영향을 전해준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주장하는 ‘반복강박’과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내면아이의 개념들은 가족의 관계와 정신과 신체에 병리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과거의 경험이라는 요인을 두고 있으며 그 움직임의 패턴이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비슷한 특징이 있다.

내면아이는 개인의 어린 시절 주관적인 경험을 설명하고, 한 개인의 일생 중 어

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다. 내면아이는 개인의 기억 속에 저장된 가장 어릴 적 기억을 뜻하며 개인의 심리 정서와 관련 있는 기억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Bradshaw는 내면아이의 치료적 개념을 정립하면서 내면아이의 개념을 여타 심리학자 등과 함께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였다(오제은, 2009). Paul(2013)은 개인의 감정을 우선으로 하는 직감적인 본능으로 인간이 태어났을 때 본래의 상태이며, 어린 시절과는 구별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W. Hugh Missildine(1963)은 정신의학자로서 자신이 집필한 책에서 예전의 내면아이(the inner child of the past)에서 처음으로 내면아이 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Jung(1971)도 신성한 아이(the divine child) 개념을 이야기하였고, Withfield(1997)도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Healing the Child Within)를 통해 내면 안의 아이를 설명하였다. 교류분석의 창시자인 Eric Berne은 이를 적응한 아이, 눈치 보는 아이(adapted child)와 자유로운 아이, 본래의 아이(free child, natural child)로 구분했다(Berne, 1964). 심리학자이며 예술치료사인 Capacchione(1988)는 내면아이를 ‘마술적, 창조적, 노는, 영적 아이(magical child, creative child, playful child, spiritual child)’ 등으로 명명한다.

이렇게 다양한 내면아이의 개념과 설명을 심리 치료적으로 정리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프로그램화한 심리치료사가 Bradshaw(2004)이다. Bradshaw에 의하면, 내면아이는 한 개인의 정신 안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정의한다. Jung의 원형론(Archetype)에서 원형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 아이는 창의적이고, 순진하며, 자발적이지만, 부정적 아이는 유치하고 이기적이며 지적인 성장을 거부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상처받은 아이(the wounded child)라고 표현하였다.

내면아이는 어린 시절 무의식적으로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상처받은 자아가 있다는 상담기법이다. 이는 어린 시절 상처받고 해결하지 못한 이슈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와 정서적 괴로움을 겪는다. 성인이 된 성인 자아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 사건을 세심히 파악하여, 상처받고 해결하지 못한 이 이슈를 잘 대처하지 못해 상처받은 자신의 내면아이와 다시 대면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있다. 이는 성인으로 성장한 자아와 내면의 어린 자아를 하나의 자신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심리, 사회적 이론에서 각 발달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충족되어야 했던 지극히 정상적이고 의존적이며 발전적인 욕구를 가진다고 보았다(Erikson, 1964). 그러나 이런 욕구 충족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불행히도 많은 이들은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로 성인이 된다. 어린 시절 아이로서 당연히 받아보고, 경험해야 할

안전한 환경, 신뢰, 관심,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은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마음에 품은 채 걸만 성장한 성인아이(adult child)로 살아간다.

한 성인의 정신세계 속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는 내면아이는 어린 시절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한 성인의 일생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뇌 속에 각인된 가장 어릴 적 기억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개인 정서에 관련된 기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경험자원이 될 수 있다(오제은, 2011).

2) 상처받은 내면아이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결국 ‘나’라는 자아를 잃어버린 곳에서 비롯된다. 이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의 결핍을 가진 아이의 모습을 보인다(Bradshaw, 2004).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 소속감, 존중의 욕구 중 지속적인 결핍을 가진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상위의 욕구 충족이 아닌 결핍된 하위 생존의 욕구 충족이다. 하위 욕구 충족에 자극을 받아 행동하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 지속해서 하위 욕구 충족이 자신이 행동함에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된다.

성인이 된 후 하위 욕구들은 충족되었지만, 자주 사회적 관계상황에서 다시 어린 시절의 욕구결핍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자신의 생리적 욕구 충족에 위협을 받거나, 신체적인 안정, 심리적 안정, 사랑, 소속감, 자신이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위협받은 경우 예전의 잃어버린 자아의 모습 즉,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나타난다.

위협적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성인은 합리적인 상황판단으로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자신의 위협적인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렸을 때 대응했던 방어기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감정이나 행동을 기억하고 보존한다. 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특별한 상황에 갑자기 재현되거나 정서적 습관 등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Whitfield(1987)은 지나친 책임감을 가졌거나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자신의 욕구를 등한시하고, 다른 사람의 부정행동에 과한 관용을 보이면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한다. Woititz(1983)은 과하게 자신을 비판하기,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 거짓을 말하는 것, 항상 매우 심각해하고, 즐거기가 어려운 것, 끝없는 칭찬과 인정을 원하는 것, 다른 이에게 지나친 충성을 하는 것, 계획한 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 항상 남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 충동적이고, 지나친 책임을 갖는다.

Bradshaw(2006)는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원인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설명한다. 이 수치심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될 경우 그 원인이 가정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유년 시절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갈등이 있었고,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차단하는 여러 종류의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이다¹³⁾ 이는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성장하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이다.

내면아이는 어릴 적 미해결된 슬픔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내면아이의 슬픔은 부모에 의해 방임(放任)된 기억과 자신의 욕구가 무시되고 거절당하는 감정의 억압과 신체와 정신적인 각종 학대의 영향으로 형성된다(Bradshaw, 2004/2006). 내면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무의식적 욕구(unmet needs)로 남아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한 하고,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Erikson은 발달단계별로 이루어야 할 과제들을 달성하지 못한 채 성장한다. 성장 과정에서 이뤄야 했지만, 채우지 못한 내면아이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제를 미해결과제(Unfinished business)라고 표현한다(Bradshaw, 2004, 2006). Erikson은 아동이 변화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가 경험하는 위기와 극복 과정을 성격 발달의 주요인으로 생각한다(송명자, 1995). 아동들은 절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Piaget, 1958),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Cermark and Brown(1982)은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핵심 문제로 불신, 조절, 자기의 욕구 무시, 감정 부정, 책임감의 어려움, 확실히 매듭짓는 능력 부재, 자아정체성의 문제, 대인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어려움, 비정상적인 죄책감, 낮은 자존감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중요한 표현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호 의존증(co-dependence)은 정체성을 상실(loss of identity)하는 질병으로 정의하며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의 감정, 욕구, 바람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으로 둘러싸인 곳이라면 아이는 외부환경으로 눈을 돌려 그곳에서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결국 이 아동은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건강한 내면세계를 가지지 못한 채 바깥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시도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상호

13) John. Bradshaw, 『수치심의 치유』, 김홍찬·고영주 역 (서울: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연구원, 2002), 203.

의존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린 시절 마땅히 받아야 할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공격적 행동(offender Behaviors)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주원인인 공격적 행동(offender behaviors)은 어린 시절의 폭력, 학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결과물이다. 한때 무기력하게 학대를 당한 아동이 자라서 가해자가 되어 버린다. 정신과의사인 Bruno Bettelheim(1980)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의 경우 아동을 공격자로 만드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학대라고 설명하고, 이 과정을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셋째,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Disorders)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환영을 받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적 욕구(narcissistic needs)이다. 하지만, 이런 필요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나다움이라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된다. 자기중심적으로 손상된 내면아이는 애정, 관심, 사랑에 대한 만족을 못 한 채 탐욕 때문에 어른이 된 자아를 상하게 한다. 또한 내면아이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성인이 되어서 모든 관계를 파괴해 버리고, 누군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도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넷째, 신뢰의 문제(Trust Issues)는 주 양육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동은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진 채 성장하게 된다. 아이들은 믿을 수 있는 양육자에게 믿음을 배운다. 이는 아빠와 엄마의 행동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고, 양육자가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다면, 이들의 자녀 또한 부모를 믿게 되며, 자기 자신을 믿는 법도 배우는 것이다. 중독 전문가인 Carnes Patrick(1985)는 신뢰감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친밀한 것과 맹목적인 것, 집착과 관심, 통제와 보호를 혼동한다. 이는 주 양육자에게 외부 세계의 타인들이 신뢰하고, 믿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배워야 한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고, 세상을 신뢰할 수 있다면,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직관, 능력, 감정, 생각, 바람 등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섯째,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Acting Out/Acting In Behaviors)은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해결하지 못한 분노, 두려움, 슬픔, 아픔, 상실, 고통 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감정이라는 인간만이 느끼는 근본적인 힘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Bradshaw, 2004, 2006). 이런 감정의 에너지가 적절하게 표현되고, 해결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자아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행동이 표출적 행동(Acting Out)이다. 내면적 행동은 어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받은 학대를 자기 스스로에게 표출하는 것이다. 감정의 에너지가 안으로 분출되는 경우 신체는

심각한 병적인 증상을 일으킨다. 두통, 위장장애, 목의 통증, 요통, 심한 근육 긴장, 관절염, 심장병, 천식, 암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주 사고를 일으키는 경향 또한 내면적 행동의 또 다른 형태이다.

여섯째, 마술적인 믿음(Magical Beliefs)은 어떤 말, 몸짓, 행동이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를 바꾼다는 믿음이다. 역기능적인 부모는 자녀의 이런 마술적인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성실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의사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등으로 표현한다. 내면아이가 상처를 입으면, 이 아이는 이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아이처럼 자신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마술적인 완벽한 결말을 믿으면서 무작정 기다리거나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 친밀감 장애(Intimacy Dysfunctions)는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혼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휩쓸려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운 사이에서 방황한다. 어떤 이는 타인이 그들을 거절할까 두려워해서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영원히 고립시킨다. 또, 어떤 이는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 자신이 속한 역기능적인 집단을 떠나지 못하고, 이 두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진정한 자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여덟째, 무질서한 행동(Nondisciplined Behaviors)은 훈련(discipline)은 라틴어의 가르침(disciplina)에서 유래되었다. 훈련을 통해 아동은 인생을 사랑하고, 풍요롭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아이들은 교육을 하는 부모보다 자기 훈련이 잘된 부모가 필요하다. 부모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아이는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훈련이 안 된 무질서한 내면아이는 제멋대로이다. 반항적이고, 빈둥거리거나 누장 부리고 있기 욕구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 반면 강박적으로 규율적인 아이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융통성이 없으며, 지나치게 억제되거나 순종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규율된 모습과 무질서한 모습들 사이를 방황한다.

아홉째,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Addictive/compulsive Behaviors)은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중독적인 행동 등의 주요 원인이다. 중독은 삶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고, 빨리 기분을 전환을 할 수 있는 감정적 대체물에 대한 병리적인 관계이다. 섭식 중독(ingestive addictions)은 가장 감동을 주는 기분 변환을 가져오는데, 알코올, 마약, 음식 등은 기분 전환을 극적으로 가져온다. 활동적인 방법으로 생활중독, 감정중독, 인지중독, 물건중독 등이 있는데, 생활중독은 쇼핑, 일, 도박, 섹스, 종교 등이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도 기분을 바꾸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여 기분을 변화시킨다. 인지 중독은 감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초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중독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열 번째, 사고의 왜곡(Thought Distortions)은 Piaget는 아이들은 인지적 이방인이라고 지칭했다. 이는 아이들은 절대적인 사고를 가진다. 이는 전부이거나 아니면 전부가 아니거나(all or nothing)라는 양극단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그 중간은 없다. 이는 ‘만약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식이다. 아이들이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인으로 성장 후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는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강박적인 완벽한 행동(compulsive perfectionistic behavior)이 가장 좋은 예로 이때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아주 사소한 일까지 집중하게 된다.

열한 번째, 내면아이가 상처받게 되면 공허감(emptiness)과 같은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나타난다. 이 우울감은 아이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은 남겨둔 채로, 거짓 자아를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진정한 자아를 버린 만큼 마음에는 빈 공간이 생기고, 진정한 자아를 잃었을 때, 자신의 진실한 욕구, 바람, 감정을 잃게 된다. 즉, 공허함, 외로움, 절망감, 무력감, 죄의식, 무가치함, 버림받음, 압박감의 느낌과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고 슬픔과 불행으로 자아가 압도당한다. 어린 시절 충분한 애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3) 역할

가정에서 아동이 부모를 보면서 어떤 역할을 배우고 성장한다. 부부 사이의 미해결과제가 있을 때 아동은 부부의 미해결과제를 떠안게 되는데, 이것이 역할이 된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수록,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을수록 아동은 여러 역할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동은 역할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오제은, 2009).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아동은 대리배우자, 영웅, 문제아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의 역할을 통해 가족 전체의 문제적 증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역할은 페르소나(Persona)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을 뜻한다. 내가 세상과 만나는 얼굴이라는 면에서 역할은 페르소나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오제은, 2009).

아동이 자라면서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아동은 부모로부터 자신에 대해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말을 듣고 자란다. 이 말은 들은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를 자신의 자아에 투사시킨다. 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던졌던 수치심을 심어준 말을 아이가 자신의 내부에 심어놓고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았던 방식으로 아동은 자신을 돌보게 되는데, 건강한 성장에 꼭 필요한 욕구인 사랑받음, 스킨십, 보살핌이 얼마나 억압되고 거부되는가에 따라 가족 체계 안에서 아동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정해진다. 이는 어떤 역할이든 아이 스스로가 원했기보다 아이가 속한 가족 체계가 정해준 것이다.

부모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일수록 가족 안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많은 규칙과 비밀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국 의존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신의 특별함을 포기한 채 가족 체계가 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할수록 아동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나를 찾는 작업은 아동이 어렸을 때 가족 안에서 해오던 역할, 곧 아동 내면에 내재화된 역할을 먼저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정폭력 등으로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밀착된 가족은 가족 구성원 모두 경직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가족 문제에 있어서 한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넓고 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최광현, 2012).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문제는 가족 내의 한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 구성원의 환경에 원인을 둔 것으로 본다.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립되지 않으며, 타인들과 함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가족관계를 비유한 모빌은 손가락으로 톡 하나만 건드렸지만, 건드린 모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빌이 움직인다.

가족의 구성에서 결혼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결혼의 관계에서 친밀함에 문제가 생길 때는 보완과 균형의 원리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가족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결혼생활의 부부관계가 필요하다. 그 균형이 깨지면, 그 체계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아이들로 하여금 균형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박태영, 김현경, 2021). 만약 부모님의 사이가 나쁠 때, 아버지는 딸에게 관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정서적 감정의 필요를 딸에게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 딸은 아버지의 아기 인형 또는 작은 공주가 된다. 반대로 아들이 어머니의 정서적 감정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중요한 사람 또는 작은 남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대체하고, 이들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게 된다(Bradshaw, 2006). 어린 자녀들은 그들의 내면이 요구하는 신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정서적인 롤 모델이 필요하다. 아

동은 또한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약 가정환경이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동은 오로지 바깥세상으로 눈을 돌려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게 된다(오제은, 2009).

만성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 내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은밀하거나 또는 드러난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맡겨진 역할의 종류는 <표 3>과 같다.

<표 3> 역할(Family Roles)

가족의 행복	바보짓 하는 아이	아픈 아이	있으나마나한 아이
가해자	반항아	악당	자학하는 아이
거짓말쟁이	부모	애어른	조정자
걱정거리	보호자	어린왕자	종교적인 아이
대리인	부모의 부모	엄마의 기쁨	주인공
공격자	성자	엄마의 친구	지정된 환자
공주	성취도 낮은 아이	엄마의 희생양	착한 아이
광대	성취도 높은 아이	연인	책임감 강한 아이
귀염둥이	소년·소녀 가장	영악한 아이	천재
나쁜 아이	스타	영웅	총아
눈치 보는 아이	승자	예쁜이	패자
대리 배우자	심각한 아이	완벽한 아이	피해자
막역한 친구	아빠의 기쁨	왕따	햇살
모범생	아빠의 친구	운동선수	사고뭉치
가족을 돌보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	가족의 희생양	정서적 배우자
작은 부모	돈 내주는 사람	챙겨주는 사람	화풀이 대상자
뒤집어쓰는 사람	대신 혼나주는 사람	까불이	잊혀진 아이
없는 아이	천사	우는 아이	말 없는 아이

출처 : 오제은, 2009, p.119

4) 정신분석학의 반복강박

1900년대의 가장 큰 발견은 Freud가 주장한 무의식이다. 인간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정신 속에 있으며, 그 세계를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Freud는 인간의 정신에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신비한 정신의 세계를 발견하였다. 무의식의 영향은 꿈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도 영향을 주어 병리적 현상을 일으킨다. 지나온 과거의 심리적 위대한 사고와 이론들은 인간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Freud 정신분석의 초석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Freud가 주장했던 정신분석의 이론은 20세기 심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Freud의 정신분석은 인간의 무의식을 다루고 있다. 자신이 소유한 마음과 생각이지만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이무석, 2003). 그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의 과정에서 감정이 억압되는 상황을 경험하면, 무의식 가운데 상처를 입게 된다고 보았다(최광현, 2019). 무의식은 빙산을 비유하여 보이지 않는 물 아래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자 인간 정신생활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무의식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체계를 통해야 한다. Freud는 복잡한 왜곡과 은폐로 구성된 인간의 근원적인 충동을 상징으로 보았고, 이 상징에 대해 성적인 것으로 보았고, 억압된 어린 시절의 강력한 욕구를 대체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무의식의 언어로 볼 수 있는 상징은 꿈과 동일시하여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길로 보았다(이영하, 2016).

Freud의 정신분석에서 불안에 대한 방어기제인 수용하기 힘든 생각과 욕구들을 무의식의 세계로 눌러 넣으려는 억압(repression)은 폭발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억압된 내용은 자발적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정신분석에서 규정하는 반복 증상은 의식적 회상(recollection)이 아니고 자동적이고 무의식적 반복이다. 반복은 전의식에 있는 것의 재생이 아닌 무의식적 재생 즉 회상될 수 없는 것이 주체의 삶에서 주체 모르게 반복을 통하여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진수, 2016). 억압된 기억이 증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은 강박적인 표상에 의하여 왜곡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Freud와 Jung은 자유연상과 꿈의 해석을 통해 표상이 왜곡된 의미를 찾는 방법을 치료에 이용한다.

Freud는 어린이들의 행위와 정신분석학적 치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반복강박(Wiederholungszwang, repetition compulsive)을 소개한다(Freud, 1997a; Nasio, 2015). 반복강박은 본능에서 기초한 것으로, 쾌락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막강하고, 반복강박이 억압된 무의식에서 생겨난다고 보았다. 익숙한 것을 반복하려는 무의식은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불행을 주는 감정, 사고, 행동이라 할지라도, 반복하려는

강력한 경향성을 갖는다.

과거는 흔적을 무의식에 남고, 남은 흔적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이 흔적 중에 특히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등 영유아기의 경험을 중요하게 봤다(임진수, 2016). 영유아기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무의식에 새겨진 여러 경험과 사건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경험이기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사건과 기억은 정돈되지 않은 채 강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반복강박을 Nasio(2015)는 주이상스(Jouissance)로 표현한다. 이는 외부 상처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폭력적이고 모순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아이는 주이상스는 의식화할 수 없으며, 의식화되지 않은 주이상스는 자아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 때문에 아이의 혼란은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인식하거나 수용하지 못한다.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상징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감정은 상징화되지 못하여 인식되지 못한다. 인식되지 못한 혼란스런 감정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아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 과정이 강박적으로 반복된다. 이처럼 유년기에 트라우마로 만들어진 주이상스는 의식화, 상징화를 통해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된다. 이처럼 유년기때 주이상스를 강박적으로 반복하여 자아의 내면을 표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상처받은 내면아이이다.

이처럼 성인의 부적응적 모습에는 발달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그의 내면아이 자아가 성장하지 못한 채 성격으로 자리 잡은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있고, 정신분석의 핵심 전제인 반복강박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향하여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강박이다(최광현, 2012).

5) 트라우마

트라우마(trauma)는 그리스어로 ‘상처’라는 본래의 뜻을 가지는데 외상, 쇼크, 큰 상처를 남기는 사건 후의 정신적 상처 등을 말한다(최광현, 2013). 우리가 살면서 경험되는 트라우마는 큰 트라우마와 작은 트라우마로 나눈다(김준기, 2009). 큰 트라우마는 한 개인에게 거대한 사건이 영향을 주는 경험으로써 천재지변, 전쟁, 재난, 아동기 성폭행, 불의, 사고 등의 자연재해 등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 이에 작은 트라우마는 각 개인의 삶에서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일, 자신감 상실의 경험이나 사건을 말한다.

트라우마를 겪은 극심한 공포, 무엇보다 무력감, 두려움 등의 반응 경험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트라우마의 특징이다. 또한 트라우마 당시 이미지와 소

리, 냄새, 트라우마와 관련된 신체 감각적 운동 반응들이 되살아나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진다(Orden, 2019). 그러나 외상을 경험한다고 해서 누구나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트라우마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마다 취약성의 요인이 발병되어 불안 및 정서 반응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라서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이우경, 2016).

Kolk(2016)는 아이들이 트라우마의 환경 속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변화와 태도에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등 다양한 생존 방법을 만들어 간다. 심지어 외부에서 폭력을 당했어도 부모가 알게 되면, 가족의 불안과 갈등이 깊어지고, 가족의 편안함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트라우마 사건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함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숨기고 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억압한다. 그 결과 트라우마 사건은 은폐되고, 아이들은 왜곡된 관계 역동 속에서 건강한 자아 형성에 실패한다.

일반적으로 인간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건으로 정의되는 트라우마는 1980년대 미국 정신의학에 의해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식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안아람, 2016). 그리고 트라우마는 히스테리의 중요한 원인이며 우리가 겪는 트라우마는 대부분 가족 안에서 경험한다(권석만, 2015). 특히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겪는 상처는 역기능적 가족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다. 가족이 기능적인 모습으로 살려면 안전과 생존이 보장되고 공정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자유로움으로 차별의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외상의 경험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가족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에게도 생활 속에서 트라우마가 대물림된다(유명화, 2020).

4. 가족의 역동성

가족 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은 가족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고려하는 관점으로, 가족의 내적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을 둘러싼 가족 체계와 연결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Smith & Hamon, 2017).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로, 자신의 원 가족의 영향과 경험에서 주고받는 영향이 높다는 것이다. 가족 상호 간의 유형 또한 가족 안에서 성장하면서 배우고 익혀 형성된 것으로 원 가족의 성장 배경과 경험이

주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정은희, 2014).

가족관계 유형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오랜 시간 형성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족 고유의 상호작용 방식이다. 이 패턴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서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사건들에 반응하는 일관된 방식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계 유형이 역기능적인 결과를 낳게 되면 가족과 특정 가족 구성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발생한 이면에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적응적 상호작용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족관계의 유형이 가족의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때 가족 구성원 사이의 문제나 갈등으로 나타난다. 결국 가족 갈등은 가족관계 유형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알아야 한다.

가족 역동에 자리 잡은 공유된 신념, 믿음, 개인적 기대 또한 가족 구성원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Carr, 2013).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신념은 발생하는 가족 문제의 원인을 특정 가족 구성원의 부정적인 개인적 기질적 특성이나 의도에서 찾으려 만든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abatelli & Anderson(1991)은 가족 체계 역동이 교우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족 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교우와의 관계에서 지지적이고, 우울과 불안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Gavazzi(1993)도 가족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덜하다고 하였다. 즉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족 분화 수준이 낮은 자녀는 가족 내 문제(부모-자녀관계의 고립, 갈등, 충동적인 행동 등), 학교 문제(결석, 학업성적 저하, 충동적인 행동 등), 교우관계 문제, 비행, 우울, 자살 시도,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 분화는 자녀가 가족 내 관계뿐 아니라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도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Claiborn & Lichtengerg(1989)는 인식의 오류가 있음에도 유지되는 가족 내의 믿음, 신념, 가치 등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이 타인과의 관계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왜곡한다고 한다. 이는 원 가족의 정서적 연속성은 핵가족 내 부부 혹은 자녀의 이성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Bowen은 핵가족에서 원 가족의 영향을 강조하였다(Kerr & Bowen, 1988). 즉 원 가족 내에서 학습한 상호작용 방식은 결혼한 기혼 자녀의 가족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다시 말해서, 원 가족의 영향, 즉 정서적인 힘(emotional force)은 개인이 배우자를 만나 관계를 맺을 때, 부모와 맺었던 관계의 경험으로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은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역동을 통해 개인들의 합을 넘어서는 유기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잘 기능하는 가족체계는 변화의 단계에 잘 적응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성장을 이루어 내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가족 체계는 가족 구성원들의 성장을 억누르게 되고, 특정 가족 구성원이 심리, 정서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이는 부부의 성격차이, 서로 반대되는 자녀양육 방식, 부부의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양식 등 많은 가족문제는 가족 역동성을 이해함으로써 세대를 넘어 통찰할 수 있다. 세대 간의 역동성을 알게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김혜숙, 2020).

가족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가족 역동의 결과이다. Minuchin(1974)은 가족관계의 패턴이 가족 내 개인들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하위체계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 하위체계는 부모-자녀체계, 부부체계, 자녀체계를 말한다. 가족관계 패턴이 반복·지속적으로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족과 개별 가족 구성원의 기능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 가족 구성원 간의 작은 의견 차이라 할지라도 이 이면에 있는 뿌리 깊은 부적응적인 상호패턴으로 인해 큰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기쁘다 외, 2022).

1)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사람 사이의 느낌과 생각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사람들 간의 경험영역을 공유하고, 정보, 감정, 태도, 생각 등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며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요건이다(J. Warner, 2007). 의사소통은 발표, 말하기, 스피치, 자기주장, 자기표현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Satir(1975)는 의사소통이란 일반적인 사회적 맥락 내에서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상호작용 또는 거래(transaction)의 의미를 포함하며, 사람들이 의미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때 사용하는 단서와 상징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주고받는 과정이며, 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무슨 일을 겪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자아 존중감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기, 타인, 상황 등이며, 이 3가지 요소 중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이 달라진다.

의사 소통방식은 어떤 시간, 장소, 상황, 대상에 맞는 개인의 대처방식의 하나로 환경에 의해 습득된 과정으로 보았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포함하는데, 그중 Satir는 가족들 가운데 비언어적 메시지와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말의 톤이나 억양, 표정, 목소리, 태도, 눈빛 등이 상대방의 감정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고 보았다.

Satir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역기능적으로 대응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유형을 구분하였다. 기능적 의사소통은 언어와 행동이 일치되고,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신의 대화 형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다(김형태, 2003).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사람들이 자아 존중이나 가치에 위협을 느낄 때 반응하는 방식이다. 즉,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끼고, 자기 가치가 떨어졌다고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거나, 타인의 감정, 관계 단절,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나타났다.

<표 4>는 의사소통 유형을 회유유형, 비난유형, 초이성유형, 산만유형, 일치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표 4> 의사소통 유형

유형	특징
회유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순종적이고, 자아개념이 약하며, 의존적이고, 상처받기 쉬우며, 자신을 억압함. · 상대방을 위한 쪽으로 모든 것을 맞추려 함. ·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하고, 자기학대, 우울증, 자살적인 성향을 가짐. ·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중요시 함. · 신체적 영향-소화기관의 고통, 당뇨, 편두통, 변비 등
비난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고하고 독선적이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사고가 제일이라고 생각함. · 융통성이 없고 다혈질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함. · 자신은 세상의 피해자,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열등의식 있음. · 신체적 영향-고혈압, 혈액순환의 어려움, 근육긴장 등
초이성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섬세,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철두철미함. · 감정적인 부분에 매우 냉정하고 차가우나 내면적으로는 자상한 감정을 그리워함. · 자기통제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 완벽성을 추구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며, 강박적이고 집착적이며 공감 능력 부족함. · 진짜 자아 접촉이 어렵고 감정을 억압함. · 신체적 영향-근육경직, 근육통, 심장마비, 성 기능 저하 등
산만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말, 행동과 상관없이 행동함. · 대화의 내용에 초점이 없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함. · 주의 산만, 부산한 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인정을 원하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다른 사람 상황 모두 무시 ·신체적 영향-신경계통의 장애, 위 장애, 당뇨, 편두통, 비만 등
일치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의 내용, 감정, 의도 일치 ·자신의 사고, 감정, 기대,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 솔직함.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며 존중 배려 ·생동적이고 유능하며 창조적인 행동 양식 ·자기 가치감이 높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긴장한 상태 ·주요 감정-안정적, 차분, 평화로운, 사랑하는, 수용적 ·일차적 반응, 다른 사람을 조정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짐.

출처: Satir(1975); Bosch(1977)

2)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는 가족의 발전과 진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가족이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이를 이해하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가족은 역동적으로 달라지는 체계로 간주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 내의 발달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Carter & McGoldrick, M. 2005).

개인의 성장은 가족 체계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성장은 가족생활주기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가족생활에는 인간의 생애주기처럼 출생과 죽음이 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생활주기가 시작되고, 자녀의 출산, 양육으로 확대되다가 자녀의 독립으로 축소, 부부가 늙어 사망에 이르면 이 주기가 끝난다. 박태영(2002)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은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맞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가 변화되어야만 가족이 잘 기능하게 된다.

Becvar and Becvar(2016)는 역동적 과정모형을 가족생활주기 모델이 가족 이슈의 복잡함을 충분히 포함하지만, 여전히 일차원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가족발달 모델을 개인 발달 모델과 통합한 역동적 과정모형(dynamic process model)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 개인의 발달, 부부의 발달, 가족 발달의 상호작용 조합에 따라 특징적인 발달적 전이와 발달과업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 <표 5>는 가족생활주기의 역동적 과정모형의 단계와 과업을 정리하였다.

<표 5> 가족생활주기의 역동적 과정모델 단계와 과업

단계	정서적 이슈	주요 과업
결혼 전 성인기	성인 자녀의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독립	·원 가족에서의 분화 ·직장 동료 등 사회관계의 시작 및 발달
신혼기	결혼생활에의 몰입	·부부의 체계 형성 ·원 가족, 지인과 더불어 배우자의 자리 만들기 ·직장에 대한 적응
자녀 출산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수용	·부모-자녀체계 형성 ·부모의 역할수행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체계 형성
학령 전 아동기	자녀의 새로운 인성의 수용	·특정 자녀의 요구에 적응하기 ·에너지 소모와 사생활 부족에 대처하기 ·부부의 시간 갖기
학령기 아동기	자녀가 가족 외부의 관계를 수립하도록 돕기	·가족/사회 상호작용 확장하기 ·자녀의 교육적 발달을 격려하기 ·활동과 시간 요구의 증가를 다루기
10대 자녀기	가족 경제의 융통성을 증가시켜 자녀의 독립성 허용하기	·부모-자녀관계의 균형을 변화시키기 ·중년기의 직업 및 부부관계 이슈에 재초점 맞추기 ·노년기 세대에 대한 관심 높이기
진수기	가족 구성원의 진수와 들어움을 수용하기	·성인자녀를 직업, 대학, 결혼생활로 진수시키기 ·지지적 가정 기반을 유지하기 ·성인자녀가 때로 들어움을 수용하기
중년기	자녀를 떠나보내고 서로 직면하기	·결혼생활의 재정립 ·자녀의 배우자 및 손자녀 환영하기 ·노부모의 노화에 대처하기
은퇴	은퇴와 노화의 수용	·개인과 부부의 기능유지 ·중년세대 지지하기 ·부모, 배우자의 죽음에 대처하기 ·가족의 주거변화

출처: Becvar and Becvar (2016), p. 131

3) 가계도

가계도는 전 세대를 걸쳐 반복해서 나타나는 가족의 패턴이나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그림이다. 최근에는 가족 치료사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의 이론에 따라 발달 되었다(Wachtel, 1982).

가계도(Genogram)는 3세대 이상 가족관계 및 특성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나 자신이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지 또는 다세대 전수 과정 안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계도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 자체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과정이고 기록이다. 즉 가계도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세대 간의 맥락에서 가족의 정서적 변화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이다(송성자, 2002).

가계도는 별거, 결혼, 이혼, 재혼, 질병, 사망 등 중요한 일상의 사건이나 민족, 인종, 직업, 종교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표시되어 각 세대별 가족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족 안에서 되풀이되는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패턴과 여러 세대에 걸쳐 발전된 가족 역할, 유형, 관계 등을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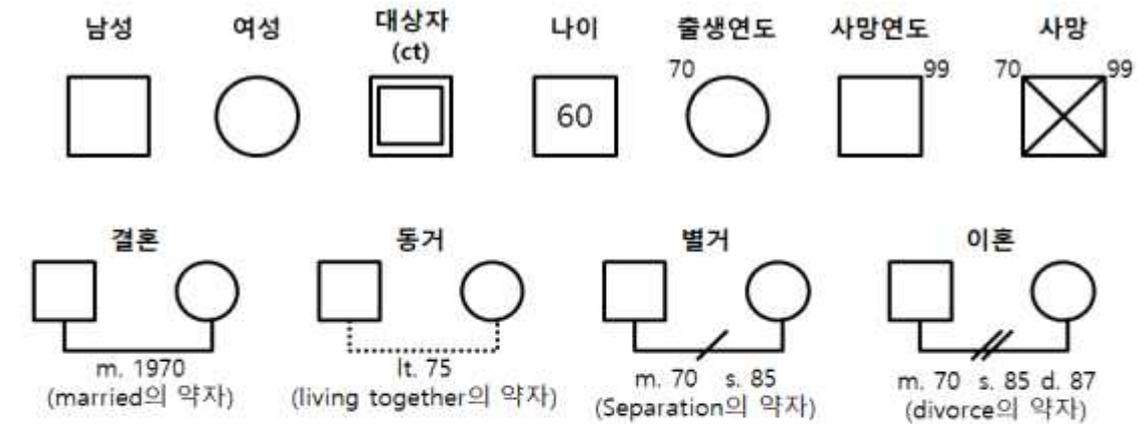
가계도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동맹, 단절, 갈등과 같은 가족관계의 특성에 대해 알아차리게 되며(Friedman et al., 1988), 특히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가족구성원의 행동유형이 세대 간에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알게 하고 상담치료에서의 정서적 역기능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 수 있다(Kuehl, 1995).

가계도를 작성하는 목적은 세대를 걸쳐 가족의 패턴이 어떻게 전해지고, 죽음, 병, 성공, 이민 같은 지나간 사건이 현재의 가족 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가족 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기 위함이다. 가계도는 가족 구성원이 그들의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고, 가족치료에 가족을 합류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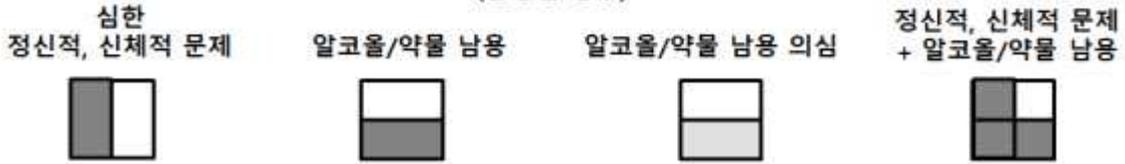
가계도를 통한 가족의 내력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까지 가족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관련성을 알 수 있고, 가족구조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폭력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큰 변화가 생김으로써 나타난 가족관계의 변화나 과거의 질병 양상 등을 가계도에 정리하면서 무엇이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론하기 쉽도록 한다(홍지윤, 2003).

아래[그림 1]는 가계도를 그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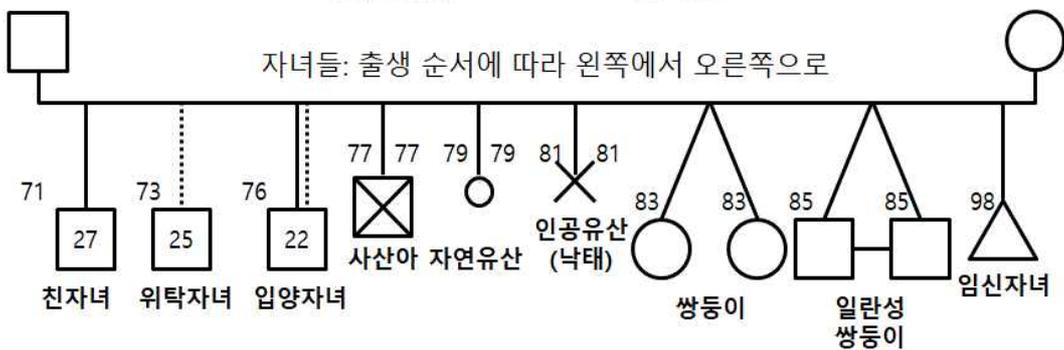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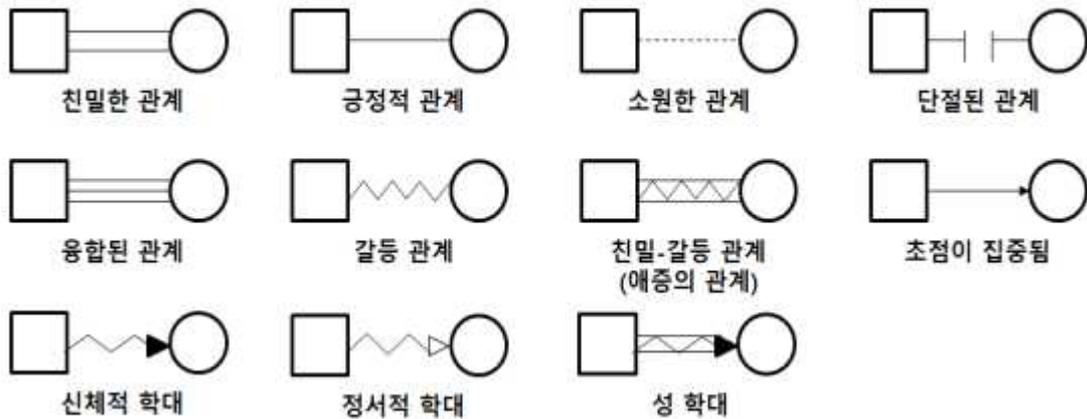
[그림 1] 가계도 표시기호



정신적, 신체적 문제 상징
(남성일 경우)



상호작용 유형을 나타내는 상징



5. 사군자 성격 기질

1) 사군자 성격 기질 개념

사군자 성격 기질이란, David Keirsey(1999)의 기질이론을 이용하여 한국인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성격 기질 검사 도구이다(김종구, 2013). Keirsey의 네 가지 기질이론과 칼 융의 내향-외향 이론을 적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사군자의 특성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해석함으로써 한국인이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든 성격 기질 검사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독특한 동기요인에 의해 일정한 패턴의 행동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일정한 행동 패턴으로 개인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유지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리더십, 의사소통, 소비자의 행동 특성에 따른 마케팅 전략, 대인관계 등에 성격유형 검사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성격유형 검사도구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s), DISC(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에니어그램(Enneagram) 등이 있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성격유형 검사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다수이고, 이들 검사의 이론들은 한국화되지 않고 그대로 번안해서 사용되고 있어 한국 정서에 맞게 개선된 검사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구에서 개발된 Keirsey(D. W. Keirsey, 1999)의 기질 이론을 김종구(2013)는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사군자 기질 4가지 유형인 매(梅), 난(蘭), 국(菊), 죽(竹)의 일정한 행동 패턴으로 설명하였기에 누구나 쉽게 기질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이 가능하다.

김종구(2013)는 Keirsey(D. W. Keirsey, 1999)의 기질이론과 외향-내향을 활용하여 사군자 기질검사를 개발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검증에서 기질 척도 문항 50개와 외향-내향 척도 예비문항 25개를 개발하여, 1차 예비검사, 2차 예비검사를 통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기질척도 문항 20개와 외향-내향 척도 문항 20개로 구성된 검사지를 제작하여 성인 남, 여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사군자 기질검사는 성인 남, 여 575명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질 모형 4가지가 타당한 모형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MBTI 성격유형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TCI 기질 및 성격특성 검사를 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격 기질에 따른 내면아이와 가족의

역동성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가정폭력 행위의 심리내적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정폭력 가해의 재발 위험성을 감소하는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사군자 성격 기질 특성

군자(君子)란 명칭은 선조들이 유교에서 지향하는 인품과 덕망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켰으며(이선옥, 2016), 매난국죽(梅蘭菊竹)을 소재로 하여 수묵으로 그린 묵매, 묵란, 묵국, 묵죽을 합해서 사군자라 불렀다(이준웅, 2007). 이 4가지 식물의 타고난 특성 역시 군자를 닮았다고 비유하였는데, 매난국죽은 각각 사계절을 대표하는 식물로서 사람들이 닦고 싶은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김종구, 2013).

사군자가 중국에서 유입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심성과 기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 선조들에 의해 미술을 포함한 예술 분야에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였다(구미래, 2000). 사군자는 인물화나 산수화 같은 그림에 비해 간결하면서도 의미를 강조하며 그리는 것으로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어 작가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이선옥, 2005).

Keirsey(D. W. Keirsey, 1999)는 MBTI 성격유형별 기질에서 SP형(감각적 인식형-예술가적 기질), SJ형(감각적 판단형-보호자적 기질), NF형(직관적 감정형-이상가적 기질), NT형(직관적 사고형-합리적 기질)으로 분류하였다.

매화 기질은 MBTI와의 상관관계 결과 J형(판단)처럼 사실적이고, 체계적이며, 철저하며, 꼼꼼함과 성실함, 한결같은 점 등이 보호자 기질과 상당 부분 흡사하다(김종구, 2013). 매화는 추위를 이기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특성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군자이며, 지조 있고 고상한 여인에 비유된다(이선옥, 2016). 매화 기질은 준비성이 가장 철저한 기질이며, 미래에 일어날 역경과 실패를 미리 대비하는 하는 기질이다. 또한 매화는 사군자 중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인고와 끈기의 열매는 정해진 시간에 임무를 완수하거나,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보호자 기질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난초 기질은 MBTI 기질과의 상관관계 결과, P(인식)는 디오니소스의 자유 동기를 가진 예술가 기질로 분류되며 상관을 보였다(김종구, 2013). 난초는 인위적인 환경인 화분에 갇혀 있을 때 잘 말라 죽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이상을 추구하며, 구속받거나, 속박, 제약, 의무를 가지는 것들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

다(이선옥, 2005). 또한 자유 동기가 중요한 난초의 특성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즐거운 곳을 찾아다니고, 나를 위한 휴식이나 휴가를 즐길 여유를 확보하기 좋아하는 예술가 기질과 유사하다.

국화 기질은 가을이 수확의 계절로 풍요롭지만, 때로는 고독을 느끼고 쓸쓸하며, 모든 꽃이 지고 사라지는 늦가을에 서리를 맞으며 홀로 꽃을 피운다. 이 또한 다른 꽃들과 경쟁하거나 다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며(이선옥, 2011), 인생의 마지막 장례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다. 이런 국화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김종구, 2013).

또한 국화는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데,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는 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타인이 조정하는 방향에 자신을 맞추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화는 타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표현하며, 관계를 중요시하여 상대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 주려는 이상가 기질과 닮았다고 하겠다.

대나무 기질은 대나무 특성상 가장 빠른 기간 안에 하늘을 향해 급속히 성장한다.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하는 대나무의 특성상 반드시 유능해지고 싶어 하는 욕구의 간절함이 있다. 흔히 대나무를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나무를 쪼갬 듯이 곧게 뻗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곧 불의나 부정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지조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구미래, 2000).

대나무는 곧고, 빠르고, 단단하며, 속이 빈 특징으로 곁을 따라 여러 갈래의 굵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주변에 다른 나무들의 성장을 방해할 정도로 강력한 뿌리를 멀리 뻗어 양분을 섭취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본질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논리적이며 냉철하게 판단하는 특성의 지적 욕구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어 합리적 기질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나무 기질은 이공계 계열 등 논리적 사고와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하다.

Keirsey(1998)은 기질은 인간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특정문화와 환경, 시대와는 상관없이 표현된다는 것을 사군자를 통해 전하고 있다. 사군자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전하고 했던 의미와 상징성을 잘 살린다면 Keirsey가 4가지 기질로 분류했던 이론을 한국 사람이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양적연구가 양, 강도, 빈도에 관한 연구라면 질적 연구는 질, 과정, 의미에 관한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실물이나 사실에 근거한 사고에서 벗어나 양적연구 방법으로 알기 어려운 대상의 인식, 의미, 가치에 대한 이해와 통찰에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살피고, 이 경험을 순수한 경험으로 실제로 있게 하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기술하여 이를 통해 경험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상학 연구의 질문은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는 명확하게 기술해야한다(Van Manen, 1994). 모든 현상학적 연구의 중요한 시작점은 연구참여자의 체험이 진정으로 어떠한가에 대한 태초의 물음을 가지고 그 경험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현상학 연구는 인간경험의 본질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 자체에 대한 물음이 연구 중인 경험의 본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대한 경험의 해석을 구성하는 것이다.

Van Manen의 방법론은 일상세계에서의 살아있는 체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경험의 본질 탐구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애령, 2009). 이 연구방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 현상학은 체험의 내적 의미구조, 외적 의미구조를 드러내고 기술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Van Manen, 1994).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을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고, 폭력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가해자의 상처받은 내면아이, 성격 기질, 가족의 역동성 안에서 설명하고자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였다.

Van Manen의 연구방법을 특히 본 연구에서 차용한 것은 질적 주제 분석에 있어서 신체성(Lived body), 공간성(Lived space), 시간성(Lived time), 관계성(lived others), 즉 4개의 실존체를 제시하기 때문이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Van Manen, 2000).

Van Manen의 분석방법은 크게 4단계이다. 1단계는 연구대상자 또는 참여자가 경험하는 체험의 본질에 관심을 집중한다. 2단계는 체험의 본질에 근거를 두어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해 낸다. 3단계는 주제 분석과 본질적 주제 분석을 시도한다. 이

를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내면아이와 사군자 성격 기질 검사를 들 수 있다. 4단계는 의미 분석으로 연구자의 관심은 어린시절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대한 의미 분석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기술에 의한 본질적 주제의 의미단위를 구분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연구자의 경험과 연구자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것, 보게 된 것, 이해된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연구자는 본질적 주제 분석과 의미 분석의 단위를 구분하는 4단계 의미분석 단계에서 주제를 생성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대한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 연구 과정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연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와 연구 윤리성의 동의를 받고 연구를 시작했으며, 연구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3개월이다. 전체 13명의 연구참여자 중 개인 사정 불참 1명, 인터뷰 중 거절 의사 표현 1명, 추후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참여자 1명을 제외하였고, 그 결과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족한 최종 10명이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00시 보호관찰소의 가정폭력 보호관찰(가해자) 대상자, 검찰 기소단계 대상자, 경찰 조사단계에 있는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심층인터뷰 장소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00시 보호관찰소의 상담실, 면회실, 대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장소는 조용하고, 방음 되며, 환한 불빛으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모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이다. 심층인터뷰 방식은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연구자가 직접 심층인터뷰하였고, 내용은 모두 녹취했다.

상담과 연구를 위한 심층인터뷰는 다르기에, 질적 연구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라포형성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가 하는 말에 적극 공감하고 구체화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질문 내용의 순서를 바꿔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가해자로서 폭력의 과정을 재차 설명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상담과는 다른 순수한 인터뷰라는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심층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심층인터뷰 진행은 1명당 1회에서 3회로 개인차가 있었으며, 2회 이상 진행된 경우는 연구참여자의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의사를 표현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해 추가 진행했다. 심층인터뷰의 시간 또한 개인차가 있었다.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했으며, 중간에 음료를 마시거나,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도 했다.

휴식은 연구참여자가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한 경우 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내면아이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한숨을 쉬거나, 잠시 침을 삼키거나, 먼 산을 응시하거나, 울먹이는 등의 감정적인 동요를 보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시간적 한계를 두지 않았으며, 인터뷰 중간에 말의 끊임없이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경험을 충분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하면서 경청했으나, 연구자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은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고, 인터뷰가 끝나고 참여자가 돌아간 후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과 연구자의 느낌 등을 메모하였다.

3) 연구대상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5436호)에 의해 ‘가정폭력 가해자’로 법적 보호처분이나 보호관찰 이상의 가정폭력범죄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폭력으로 형법에 규정한 상해죄, 폭행죄(존속상해, 존속폭행, 상습범 등), 유기죄, 학대죄(존속 유기, 영아, 존속학대, 아동학대), 체포 감금죄, 협박죄, 명예훼손, 주거침입죄, 공갈죄, 손괴죄 등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사전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모든 연구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참여자의 특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심리를 분석하거나 살펴보는 질문 과정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공격적이고 돌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총 10명이다.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9명, 여자 1명으로 남성이 대부분이다. 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신청과 선정 역시 남성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했으며, 연구 기간이 지체되었으나, 여성 1명을 선정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 내 가족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 피해자는 친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 폭력 유형은 연구참여자 모두 신체 폭력 이상이다. 특히, 가정폭력의 처음 시작은 정서와 언어폭력이라는 점에서, 신체 이상의 가해유형은 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10명의 나이, 성별, 피해경험, 피해유형, 가해경험, 가해유형 그리고 법적 처분의 연구대상자 특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대상자

연구 참여자	연령	성별	피해 경험	피해 유형	가해 경험	가해 유형	법적 처분
참여자 1	23	남	부모	신체, 언어, 정서, 목격	부	신체, 정서	법원 판결대기
참여자 2	68	남	부모	신체, 언어, 정서, 방임	배우자	신체, 특수	법원 판결대기
참여자 3	59	남	부모	신체, 언어, 정서, 방임	배우자 자녀	신체, 통제, 특수	법원 판결대기
참여자 4	25	남	부 형제	신체, 언어, 방임	배우자	신체, 정서, 통제	경찰조사
참여자 5	37	여	부	신체, 정서, 방임	배우자	신체, 정서, 통제	경찰조사
참여자 6	44	남	부모	신체, 언어, 방임	다문화 배우자	신체, 정서, 통제	경찰조사
참여자 7	74	남	부모	신체, 언어, 정서, 방임	배우자	신체, 정서, 통제, 특수	기소단계
참여자 8	59	남	부모 형제	신체, 정서, 방임	자녀	신체, 정서, 통제	수감명령 보호관찰
참여자 9	62	남	부모	신체, 정서,	배우자	신체, 정서,	집행유예

				방입	모	통제, 특수	보호관찰
참여자 10	48	남	부모 형제	신체, 정서, 방입, 유기	배우자	신체, 통제	수감명령 보호관찰

4) 심층인터뷰 설문지 작성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가해자 집단프로그램 또는 개인 상담 후 그 효과를 양적 도구로 측정하는 양적연구도 가능하겠지만, 양적연구로 측정될 수 없는 개인의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행위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인별 심층인터뷰에 의한 질적 연구가 적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에 의한 가정폭력 가해행위 경험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구성하였고, 심층인터뷰 질문은 이금옥(2008)의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행동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와 박창용(2022)의 상처받은 내면아이와 실존주의 상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의 질문지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심층인터뷰시 연구대상자의 진술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점에서 내용의 순서를 바꿔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층인터뷰 구성은 <표 7>, 심층인터뷰 질문지는 <표 8>과 같다.

<표 7> 심층인터뷰 구성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1	연구참여자의 배경인터뷰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2	경험, 행동 인터뷰	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경험
3	의견, 가치 인터뷰	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에 대한 기억과 감정 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로 인한 일상생활의 영향 가정폭력 가해 동기, 시기, 과정
4	감정 인터뷰	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의 전과 후의 감정변화
5	지식 인터뷰	가정폭력 가해행위 뒤 처벌 여부
6	감각적 인터뷰	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행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표 8> 심층인터뷰 질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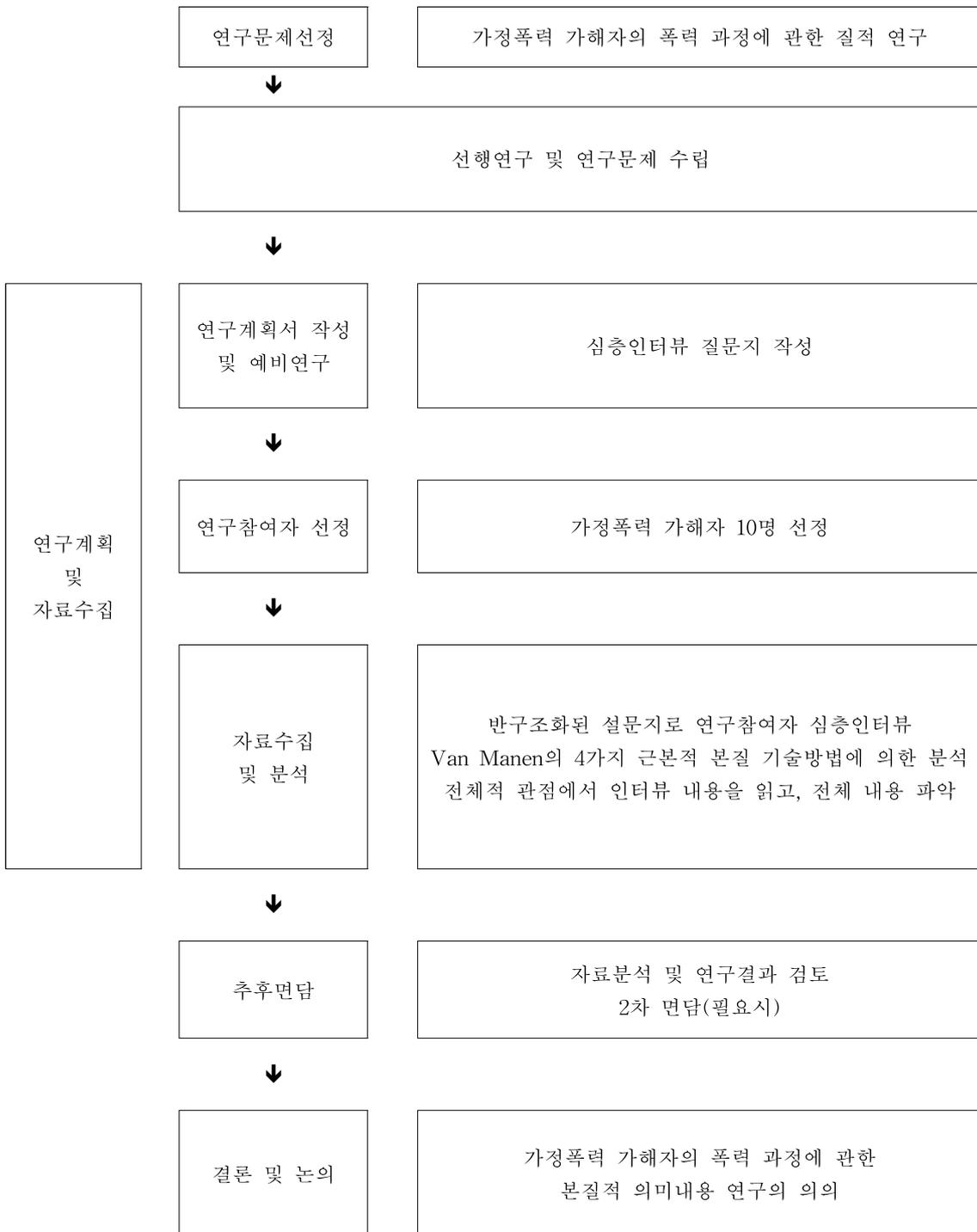
구분	심층인터뷰 질문
1	내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가요.
2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요.
3	배우자와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생활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4	내가 처음 폭력을 사용한 시기, 장소, 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5	폭력을 행사한 후 감정이나 느낌은 어떠했나요.
6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인터뷰 장소에서 수집된 내용(녹음파일, 노트)을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하여 전사 자료의 코딩, 분류, 해석 등을 유기적인 분석인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 파랑새 2.0(2016)을 사용하였다. 또한, 녹음파일의 내용과 참여자 진술의 전사자료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로 선정하여 선행연구 고찰 후 연구문제를 작성하고, 예비연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고, 심층인터뷰, 인터뷰 자료 분석, 추후 인터뷰, 결론 및 논의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연구의 절차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로 연구문제를 선정하였고,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연구계획 및 자료수집으로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예비연구 작성 과정을 거쳤다. 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선정하였고, 반구조화된 설문지로 연구참여자를 심층인터뷰를 하고, Van Manen의 4가지 근본적 본질을 질적 연구분석 프로그램인 파랑새 2.0(2016)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터뷰 내용을 읽고, 전체내용을 파악하였다. 자료분석과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2차 면담이 필요한 참여자는 추후면담을 통해 인터뷰를 보충하였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관한 본질적 의미내용과 연구의 의의를 결론 및 논의로 정리하였다.

[그림 2] 연구 절차



4. 연구 절차에 대한 평가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Mason(1996/2004)는 연구자는 연구가 엄중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스스로 합당한 방식으로 제시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해 Lincoln과 Guba(1981)이 제시한 적용성(applicability),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사실적 가치(truth value)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결과를 연구 이외의 상황에서도 맥락이 적합한지, 연구결과를 읽은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 적용력과 의미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정폭력 경험을 가진 가해자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가 포화 될 때까지 수집하여 적용성을 만족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자가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연구함에 있어 자신의 편견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관점을 증명하고자 하거나, 사전에 발견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수집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심층인터뷰에 앞서 어떠한 결과도 미리 예측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려는 의도 없이 연구문제를 준비하였고, 심층인터뷰에서 참여자를 대면함에 있어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드러난 심층인터뷰 자료의 실제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연구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연구결과에 일관성의 유무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 분석과정, 자료수집과정을 꼼꼼히 기술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관한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았으며,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수한 선배박사 2인과 현재 학위논문을 진행하는 동기 3인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심층인터뷰 내용을 피드백 받으면서 연구 주제 분석하고 범주화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높이도록 연구하였다.

넷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내적 타당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자료의 사실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높이기 위해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최소화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그들이 전하는 그대로 수집하는 것이다. 인터뷰과정에서 참여자와 rapport를 형성하여 사실적 자료를 얻고자하였고, 추후 인터뷰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5. 연구 윤리의 엄격성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 자신이 체험한 개별 경험이 참여자의 직접적인 구술에 의해 진술되고 이를 통해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또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전 연구참여자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고려와 개인정보 동의 부분,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난 경험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윤리의 엄격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연구 윤리의 엄격성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연구참여자와의 라포관계를 형성하여 자발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모두 포함한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동의서의 내용은 본 연구를 하는 목적, 방법,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 심층 내용의 녹음, 녹취내용은 연구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연구참여자의 가명 사용, 인터뷰 내용의 철저한 비밀엄수, 인터뷰의 내용에 따른 위험이 따르지 않을 것, 논문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인터뷰 시작 전, 시작 중, 마침의 어느 부분에서도 거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는 충분히 숙지한 후 자발적인 의사로 연구동의서에 서명, 날인 후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연구자는 스스로가 도구이다. 이는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고, 심층인터뷰를 통한 현상학 연구는 인터뷰 자료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2018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성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대학원과 상담협회에서 열리는 워크숍, 학술대회, 내면아이전문가과정, 국제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사과정을 이수하여 연구자로서의 준비하였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00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근무하면서, 복합유형 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있으며, 00시 보호관찰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 및 지원을 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 탈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를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집 탈출을 살펴보는 연구의 결과 가정폭력은 영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가정폭력의 또 다른 측면인 가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가정폭력의 본질이 무엇이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 분석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한 10명의 행위자이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 9>와 같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23세부터 74세까지이며, 20대 2명, 30대 1명, 40대 2명, 50대 2명, 60대 2명, 70대 1명이다. 성별은 남자 9명, 여자 1명이고, 학력은 초졸 1명, 중졸 1명, 고졸 3명, 대졸 4명이다. 결혼여부는 미혼 1명, 결혼 9명이고 이중 1명은 다문화 배우자이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동거는 6명, 이혼 후 동거 1명, 이혼 2명, 미혼이면서 혼자 살고 있는 1명이다. 혼인기간은 미혼인 1명을 제외하고, 3년에서 46년까지 다양하다. 음주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음주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중 알코올 중독자가 포함된다. 연구참여자로부터 피해당한 가족은 직계존속으로 부모 2명, 배우자 7명, 자녀 2명으로 참여자 3의 경우 배우자, 자녀의 중복피해자로 조사되었다. 가해유형은 방치, 무시, 욕설, 폭언, 부당한 대우, 통제 등 정신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두 가지 유형 모두이다. 또한, 칼 등 흉기를 사용한 특수 폭행도 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 6명, 경찰조사 단계 4명이다.

<표 9> 연구 참여자 분석

연구 참여자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자녀	혼인기간	혼인상태	음주	상담경험	연계기관	가해유형	피해자
참여자 1	23	남	고졸	알바	-	-	미혼	유	무	보호관찰소	신체정서	아버지
참여자 2	68	남	중졸	무직	2	42년	동거	유	무	보호관찰소	신체특수	배우자
참여자 3	59	남	초졸	자영업	2	36년	동거	유	유	보호관찰소	신체특수	배우자 자녀
참여자 4	25	남	고졸	단순노무	0	3년	동거	유	유	경찰	신체	배우자
참여자 5	37	여	대졸	알바	1	8년	동거	유	유	경찰	신체	배우자
참여자 6	44	남	대졸	회사원	1	3년	이혼후	무	무	경찰	신체	다문화

							동거					배우자
참여자 7	74	남	초졸	자영업	3	46년	동거	유	유	경찰	신체 특수	배우자
참여자 8	59	남	대졸	회사원	1	28년	별거	유	유	보호 관찰소	신체	자녀
참여자 9	62	남	대졸	무직	2	10년	이혼	유	유	보호 관찰소	신체 특수	배우자 모
참여자 10	48	남	고졸	회사원	1	8년	이혼	유	무	보호 관찰소	신체	배우자

2.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

연구의 참여자들은 원 가족에서 부모, 형제 등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가정폭력 피해 유형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등이 포함되었으며, 원 가족 내 부모의 폭력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는 경험도 하였다. 특히, 한 가지 종류의 폭력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두, 세 가지의 폭력이 중첩되는 중복폭력 경험을 연구참여자 모두 경험하였다. 인생의 첫 공동체인 가족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폭력경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 폭력경험에 대한 진술은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며, 너무나 생생하게 자세하게 진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치 지금 옆에서 보는 듯이 당시의 경험을 표현하였다. 물론 진술하다 멈추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참여자(참여자10)도 있었지만, 폭력피해를 당하는 날의 가해자의 목소리, 옷차림, 감정, 말투(참여자1, 4, 6, 7, 8, 9) 등과 그날의 날씨, 대화 내용(참여자 2, 3, 5)까지 토시 하나 빠지 않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 행위자가 어떠한 신체적, 정서적 경험, 사고의 인지과정, 가족 구성원과의 역동을 거쳐 과거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참여자가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어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통제적 폭력을 가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심층인터뷰한 자료를 전사한 후 이후 범주화하여 해석학적 현상학의 범주로 분석하고, 정교화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을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별 가족 단위로 작성하였고, 가계도는 원 가족과 현재 가족을 도식화하였으며, 그 내용은 참여자의 정보제공을 통해 수집된 사실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1) 사례분석

(1) 연구참여자 1

참여자 1의 성격 기질은 ‘내향 매화 유형’으로 사소한 것을 아주 잘 기억하고, 보호본능이 강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아기 때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고, 어머니와 누나 역시 20여 년간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다. 아버지에게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피해를 입었고, 어머니에게는 언어 및 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었다.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은 ‘비난유형’으로 자신은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이고, 희생자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참여자 1은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공격자, 반항아, 가족의 희생자, 화풀이 대상, 말 없는 아이로 성장하였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내가 맞지 않으려면 먼저 때리려고 하는 공격적 행동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손등을 계속 뜯는 행동을 보이며, 고등학교 시기부터는 친구가 없이 지냈으며, 술을 고등학교 시기부터 먹었으며, 술을 먹으면 항상 떠오르는 생각은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든, 버리고 가든 아빠한테 맞지 말고 멀리 도망을 갔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진술하고 있다. 누나가 어두운 산에 발가벗겨 버려지는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나도 언젠가 부모로부터 발가벗겨 버려질 것 같고, 친구들처럼 평범한 집안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한없이 기분이 우울해져서 아르바이트도 가지 못한 채 집에 누워 있다고 진술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은 참여자 1은 성인이 되고 난 뒤부터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극도의 경계심(참여자 1의 진술언어)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했으며, 아버지가 술을 먹고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아버지에게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폭력이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3~5회 정도 신체적 폭력과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정서적 폭력상황이 벌어졌으며, 최근 아버지가 상해진단 3주의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가정폭력범으로 법원판결을 대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의 상세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구 분	참여자 1	연 령	23	직 업	알바
	가해유형	신체·정서		가해기간	3년	
	가해정도	상해진단서 3주		동거여부	분리	
피해자	관 계	부	연 령	63	직 업	무직
가족 사항	관 계	연 령	성 별	관계	연 령	직업
	아버지	63	남	누나	25	직장인
	어머니	58	여			
가계도						
사례 개요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굉장히 보수적이고 평소에는 말이 없이 TV만 보고 있음. - 저녁을 먹을 때마다 술을 먹는 모습을 보임. - 술에 취하면 항상 나와 누나의 평소 생활 습관 등을 꼬투리 잡았고 그때마다 안 맞은 적이 없음. - 어머니를 자주 때렸기 때문에 아빠는 늘 때리는 사람,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으로 기억됨.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 아빠한테 맞고 지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었고,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음. - 아빠가 술에 취해 상을 얹으면 깨진 그릇을 치우고, 뒤돌아서 울고 있었던 거 같음. - 엄마는 누나가 늦게 들어오면 집에 안 있고, 집 밖에서 누나를 기다렸음. - 이모와 삼촌이 와서 이혼을 시키고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혼하지 않고 지금껏 살고 있음. 				
	자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나와 친하지 않았고, 공부는 잘했던 것으로 기억함. - 중학교 이후로 누나와 집에서 함께 밥을 먹은 기억이 없음. - 대학을 타 지역으로 가면서 집을 나갔음. 				
	첫 폭행 당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맞은 기억이 있음. 				
	폭행당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에 취한 아버지의 눈에 띄면, 그냥 이유 없이 온 몸을 맞음. - 왜 때리냐고 말하면 어디 아버지한테 대드냐며 허리띠를 풀어 				

		서 때림.	
	기억에 남는 폭력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을 먹으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자주 때렸음. - 누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 날인데, 성적표를 가방에 두고 놀러 갔음. 아빠가 가방을 뒤졌는데, 담배가 나왔고, 그걸 아빠가 발견하고 누나가 들어오니, 누나를 막 때리고, 그 새벽에 누나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작대기로 때리고, 발가벗기고, 그 새벽에 누나를 산에 놓고 엄마랑 아빠만 집으로 왔음. 나는 초6 정도 되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는 척 했지만,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무서웠음.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뒤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누나를 데리러 갔고, 집에 와서도 나무막대기로 때렸음. 	
	처음 반항한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를 가면서 내가 왜 맞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 때리는 아빠의 손을 잡았고, 아빠를 밀쳤음. 아빠가 나를 붙잡길래 엄마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소리 질렀는데, 엄마는 겁에 질려 보고만 있어서 그냥 밖으로 뛰쳐나왔음.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0000에서 밤을 새고, 집에 살짝 들어가서 가방을 가지고 학교에 갔음. 	
가해자의 폭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또 아빠는 술을 먹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화가 난 상태였는데, 아빠가 '이 새끼 눈 안 깔아' 하면서 손으로 뺨을 때렸다. 맞고 벌떡 일어나서 아빠를 두 손으로 밀었는데, 식탁에 부딪혀 머리에 피가 났음. 아빠가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싱크대로 칼을 가지러 갔고, 나는 바로 집을 나왔고, 그리고 나서 나는 모르는 사이에 신고가 되었고,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 		
의사소통 유형	비난유형	사군자 기질 (대표기질/열등기질)	내향 매화 / 대나무
상처받은 내면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공격적 행동 - 어린이집 다닐 때도 맞았고, 그 보다 더 어릴 때도 맞았을 것이다. 맞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때리거나 하면 맞지 않는다. ⑤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 -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계속 손등을 뜯는다. ⑦ 친밀감 장애 - 중학교 때는 그나마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부터는 친구가 없었던 거 같다. ⑩ 중독적·강박적 행동- 술을 먹으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까지 먹음. ⑪ 공허감 (무관심 / 우울) - 누나가 산에 발가벗겨서 버려진 것을 알고, 나도 발가벗겨서 버려질 거 같았다. 평범한 집(아빠는 회사 가고,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도 가는 등)에서 일정한 용돈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다. 		
어린시절 나의역할	공격자, 반항아. 가족의 희생자, 화풀이 대상, 말 없는 아이		

(2) 연구참여자 2

참여자 2의 성격 기질은 '내향 매화 유형'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는 성격이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허튼 말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자신이 한 말은 칼 같이 지킨다고 하였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너무도 가난했고, 아버지는 참전용사로 한쪽 다리가 무릎 이하로 절단이 되어 농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이 배가 몹시 불렀던 기억을 미루어 봤을 때 간암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고 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힘들었고, 5형제들 중 맏이로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힘에 부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정에 있을 때는 늘 술에 취해있는 아버지의 술주정과 함께 '왜 내 눈에 띄냐'고 하면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어머니의 지병으로 하루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14세 무렵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00시에 있는 삼촌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고참에게 맞고, 어리다고 맞고, 모른다고 맞고, 그냥 매일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은 '회유유형'으로 상사나 타인 위주로 모든 것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은 초라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진술했다.

어린 시절 참여자 2는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가족을 돌보는 사람, 돈 내주는 사람, 가족의 희생자, 책임감이 강한 아이, 말 없는 아이로 성장하였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아버지가 비록 때리기는 했지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타향에서 고생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을 거고, 때린 아버지이지만,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가 마당을 치우라는 말을 큰소리로 할 경우에는 치우려다가도 듣기 싫어 자전거를 타러 나가게 되고, 나는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가정폭력범)이 되고 보니,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마술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일 음주를 하였고, 술을 먹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 직원들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중독적이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나의 자식들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집도 하나씩 사줘야 한다는 사고의 왜곡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은 참여자 2는 42년의 결혼생활 동안 크고 작은 부부싸움으로 경찰신고는 8~10여 회 정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흥기를 들고 배우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된 특수 폭행은 처음이고, 법원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많이 긴장되고, 두렵고, 불안한 모습을 인터뷰

내내 보였다. 그동안의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신체적 폭력이 있어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타 지역에 있는 딸이 배우자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는 받았다. 그 당시는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범죄라는 생각이 점점 무뎌져 가던 차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2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구 분	참여자 2	연 령	68	직 업	무직
	가해유형	신체, 특수		가해기간	은퇴 후 8년 정도	
	가해정도	전기 과리채로 머리때림_특수폭행		동거여부	동거	
피해자	관 계	배우자	연 령	62	직 업	무직
가족 사항	관 계	연 령	성 별	관계	연 령	직 업
	본인	68	남	딸	39	직장인
	아내	62	여	아들	36	직장인
가계도						
사례 개요	참여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는 참전용사였는데 술병이 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병(간암)으로 돌아가심. - 00시에서 00시로 삼촌과 살기 위해 내려옴. - 국가유공자 혜택을 보지 못함. -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었음. - 병원에서 행정 쪽 일을 했고, 이사로 은퇴를 했음_자수성가함. - 100평 정도의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마당을 가꾸는 재미로 살고 있음_오리, 토끼, 닭, 병아리, 개 등 키움_동네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 오리를 팔았음. - 돈을 잘 빌려주지는 않는데, 작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금껏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이 문제로 작년부터 크고 작은 말다툼이 있었음.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음. - 산악회에서 등산을 가면 쓰레기를 한 봉투씩 주워옴. - 주1~2회 정도 00강에서 **까지 자전거를 탈 정도로 건강함. - 배우자와 각방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가짐. - 자녀들에게 돈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함. -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해줘야 부모도리 다 하는 거라고 믿음. - 딸이 참여자를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면서 창피해한다고 생각함. - 현재 100평 정도의 주택에 거주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함. -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잔소리가 심함. - 욱 하는 성질이 있어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대답함. - 기분 좋을 때는 말을 하지 않음. -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함. - 감정 기복이 심함.
	자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 부러지며, 이번 폭행 고소 사건으로 나를 사람 취급 안 함. - 아버지가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해서 참여자와 평소 대화를 하지 않음.
	자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가족 구성원임. - 주2~3회 정도 참여자에게 안부 전화함.
	첫 폭행 당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 어릴 때부터 맞아서 정확하지 않고, 00시에 내려와서 공장에서 일 배우면서 많이 맞았음. - 군대에서도 이유 없이 맞았고, 고참이 되었을 때 참여자도 때렸다고 함.
	폭행당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 일을 빠릿빠릿하게 못한다고 맞은 기억이 있음.
	기억에 남는 폭력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에서 맞으면서 일을 배웠기 때문에 많이 맞았다는 기억만 있고, 맞는 장면이 기억나지는 않음.
가해자의 폭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척이 외국을 다녀온 뒤 선물을 들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피곤하다고 하면서 방에 썩하고 들어갔음. - 이 모습을 본 친척이 ‘아이고. 형수요. 선물 사 왔는데, 한번 보소’ 하면서 안방 문을 열려고 하니, 아내가 안에서 소리를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함. - 이 순간 친척이 기껏 생각해서 외국에서 산 선물을 들고 왔는데, 아무리 밤

	<p>이지만 내다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선물 준다고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소리만 지르니 순간 화가 너무 났음.</p> <p>- 옆을 보니 전기 파리채가 있어 그걸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 머리를 때렸음.</p> <p>- 아내가 나가고 조금 있으니, 아내와 경찰이 함께 와서 나를 가정폭력범이라고 하면서 파출소로 가자고 했음.</p>		
의사소통 유형	회유유형	사군자 기질 (대표기질 / 열등기질)	내향 매화 / 난초
상처받은 내면아이	<p>① 상호 의존증 -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계속 살고 싶었다.</p> <p>⑤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 - 마당 치우라고 하면 큰 소리로 얘기하면 듣기 싫어서 자전거 타러 나갔다.</p> <p>⑥ 마술적 믿음 - 한 직장에서 은퇴를 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p> <p>⑨ 중독적·강박적 행동 - 회사생활 하면서 주 5회 이상 술을 먹었고, 술을 먹으면 직원들이 항상 집으로 데려다줬다.</p> <p>⑩ 사고의 왜곡 - 공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는 절대 죽지 않고, 내 아이들의 아이를 다 키워주고, 집도 하나씩 다 사주고 죽을 거라고 결심했다.</p>		
어린시절 나의역할	<p>가족을 돌보는 사람, 돈 내주는 사람, 가족의 희생자, 책임감이 강한 아이, 말 없는 아이</p>		

(3) 연구참여자 3

참여자 3의 성격 기질은 ‘외향 국화 유형’으로 참여자의 성격은 아주 밝은 반면, 상처를 잘 받는다. 소외된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잘 도와주는 성격이다.

늘 술을 드셨던 아버지와 한쪽 다리와 팔의 마비가 있었던 어머니에게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과 방임으로 인해 집에 있으면 밥도 못 먹고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누나 돈 2천 원가량을 훔쳐 00시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면 밥은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그때부터 중국집에서 배달하면서 일을 배웠다고 진술하였다. 일을 배우면서 맞기는 했지만, 밥은 먹을 수 있어 음식 만드는 기술을 열심히 배웠다.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은 ‘비난유형’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자신의 생각만이 맞다고 생각하며, 다혈질이고,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 시절 참여자 3은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돈 내주는 사람, 애어른, 있으나마나한 아이, 책임감이 강한 역할을 하였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아들이 참여자가 하는 일을 열심히 배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 이유도 없이 맞고, 배고파가면서 배웠던 기술을 아들은 너무나 귀찮은 듯 하는 모습에 한없이 화가 나면서 그 못마땅함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들에게 큰 소리로 나무라게 되고, 이에 아들이 거칠게 반발하고 참여자 3이 하는 말에 말대꾸를 하자, 주방에서 사용하는 흉기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참여자 3은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지만, 아들은 대학도 나왔고, 주변 지인의 아들이 구의원이 되는 모습을 보고, 내 아들도 구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마술적인 믿음을 가졌다. 어린 시절 배가 고파도 부모의 방임과 폭행 등으로 부모에게 배고픔을 말하지 못했고, 이런 반복된 경험과 학습으로 인해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참여자 3은 어린 시절 배고픔과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기술을 배우고, 자수성가했지만, 자신보다 많이 배우고, 잘 먹고, 할 거 다 하는 아들과 딸을 보면, 내가 이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족들에게 무관심해진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은 참여자 3은 결혼생활 36년 동안 배우자와 거의 매일 싸웠고, 신고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3도 도박을 하고 빚도 지기도 했지만, 배우자 역시 다단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배우자가 진 빚도 여러 번 갚아줬다고 진술하였다. 이번 폭력은 참여자 3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출근

시간이 늦어졌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끝까지 잘했다고 큰소리를 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욕을 하게 되었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들고 있던 칼을 아들 쪽으로 던지게 되었고, 이를 본 배우자가 신고하게 되면서 현재 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했다. 연구참여자 3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연구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구 분	참여자 3	연 령	59	직 업	자영업
	가해유형	신체, 특수		가해기간	큰애 10살 정도부터 25년	
	가해정도	구타, 흥기 협박		동거여부	동거	
피해자	관 계	배우자 자녀	연 령	29	직 업	자영업
가족 사항	관 계	연 령	성 별	관계	연 령	직 업
	본인	59	남	딸	35	직장인
	아내	53	여	아들	29	자영업
가계도						
사례 개요	참여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가 병을 앓아 입이 돌아가는 후유증. 늘 술 드심. - 엄마는 수족을 못 쓰는 장애인, 엄마에게 늘 맞음 - 촌에 살아서 산에 가서 나무해서 오고, 동네 사람 집에 가서 머슴살이함. - 13세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00시 중국집에 가서 배달함. - 일하는 곳에서 점심때 짜장면만 먹음. 짜장면 먹기 싫어 도망감. - 기술을 배울 때 스승에게 맞으면서 배웠고, 스승 그림자도 밟지 않았음. - 아들은 내가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대들고, 본인 할 거 다 하고. 버릇없고, 헬스 가서 운동 다 하고. 음식 준비 다 해놓으면 그제서야 어슬렁어슬렁 가게로 나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배울 때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먹는다고 때림. - 술과 담배는 한계가 없이 먹었음. - 학벌은 없지만, 애들 대학 다 시키고 열심히 살았음. - 10원을 빌리면 꼭 10원을 바로 갚아야 되는데, 배우자는 그렇지 않음(배우자의 빚을 다 갚아줌). - 맛있는 거 먹으라는 말 한번 들어보지 못했음. - 배달하는 동생이 사정이 하도 딱해서 돈을 자주 빌려줌(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함). -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고, 배우자와 일하면서 계속 말다툼함. - 요즘은 욕을 하면 큰 싸움이 되니 아예 입을 단았음. - 나는 먹는 거를 배우자를 생각해서 챙겨주는데, 한 번도 나를 챙겨준 적이 없음. 특히 밥을 먹을 때 늘 서운함. -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 나를 무시한다. 나는 돈만 버는 기계 취급함. - 부모 복 없으니, 마누라 복도 없음. 삼계탕 먹으러 갔는데, 역시나 배려, 존중이 없음. -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단계와 상조에 수도 없이 가입했고, 지금도 하고 있음. - 돈을 빌리면 갚을 생각을 하지 않음.
	자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에 있는 대학을 졸업함. - 아빠는 엄마 좋은 차 안 사주고, 백화점에 못 다니게 한다고 엄마 왜 고생시키냐고 아빠 원망함. - 아빠가 칼 들고 엄마를 위협하는 장면을 가끔 봤음.
	자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 것에 예민함. 자신이 챙겨 먹는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음. - 어릴 때는 아버지 말을 잘 들었으나, 군대 제대하고부터 말을 아예 듣지 않음. - 아들은 '에이, 더러워서 안 먹는다'라는 말을 자주 함.
	첫 폭행 당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들면서부터 엄마에게 맞음. - 맞는 게 일상이라 기억하지 못함.
	폭행당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이유도 없이 맞았음.
	기억에 남는 폭력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기 싫어서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어려서 갈 때도 없고, 돈도 벌기 힘들고 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엄청 맞음.
가해자의 폭력과정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전화 받는 태도가 불친절해서 '친절하게 받아라'하면 싸움이 일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을 하다 보면 더 화가 나서 고함을 짹 지르면 배우자도 지지 않고, 대들고. 그러다 보면 참여자 3이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이혼하자고 몇 번 했고, 서로 별거도 했음. - 욕을 자주 하는데, ‘야.’ ‘이 **년아, 뭐라하노’, ‘에이 **년, *같은 **야’하면 배우자는 ‘더해라, 더해라’ 하면서 부채질을 함. - 가게를 운영하면서 할 말이 있어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 무안하게 쳐다보지 않아서, ‘좀 봐라’ 하면 ‘알다’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면, 손으로 뺨을 때리기도 했음. -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면 서로 몸싸움이 되고,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위협을 했음. <p>(아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아주 게으름.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늘 출근시간을 챙기게 하고 있고, 이럴 때 자주 큰 소리로 나무라면, 아들은 화를 내면서 대들게 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 소리를 지르고, 이러다 112신고를 하는 것이 반복됨. - 가게를 이어받는다 고 해서 음식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으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전혀 없어 자주 갈등이 생김. - 근육질의 몸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먹는 음식에만 신경을 씀. - 이번 사건 또한 위의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칼로 위협당한다고 신고하여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p>의사소통 유형</p>	<p>비난유형</p>	<p>사군자 기질 (대표기질/열등기질)</p>	<p>외향 국화 / 대나무</p>
<p>상처받은 내면아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 - 참여자는 일 배우면서 맞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같이 일하는 배우자와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로 협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함_따귀, 목 조름, 밀치기 등 ⑥ 마술적인 믿음 -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들은 제대로 공부 시켜 구의원을 시키겠다. ⑦ 친밀감 장애 - 나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한다. ⑨ 중독적·강박적 행동-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부터 술을 배웠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먹었음. 노름에 미쳐 20대 초반에 그동안 번 돈을 모두 다 잃고, 빚을 져서 도망 다녔다. ⑩ 공허감 (무관심 / 우울) - 내가 주방을 보면서 가게는 예전만큼 장사는 잘 되는데, 내보다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본 아들이 하는 꼴라지를 보면 해 본들 뭐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p>어린시절 나의역할</p>	<p>가족을 돌보는 사람, 돈 내주는 사람, 애어른, 있으나마나한 아이, 책임감이 강한 아이</p>		

(4) 연구참여자 4

참여자 4의 성격 기질은 ‘내향 대나무 유형’으로 세상을 향한 경쟁적인 태도를 보이며, 좋고 싫음이 명확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성격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예전의 좋고 싫음이 분명했던 자신은 없어진 듯하다고 진술하였다. 부모님으로부터 맞은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형과 떨어져 지냈지만, 만나기만 하면 형이 시비를 걸면서 때렸고, ‘때리지 마라’고 소리치면 욕을 하면서 계속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아버지는 집에 다녀가면서 용돈이나 주고 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졸업은 하는지, 입학은 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도 한 달에 한 번 올까말까 했다고 진술하였다.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은 ‘초이성유형’으로 부모님의 위장이혼을 알고 난 뒤,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마음은 한없이 아버지를 그리워했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의 이런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 더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다고 했다.

어린 시절 참여자 4는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가족을 돌보는 사람, 없는 아이, 엄마의 기쁨, 엄마의 친구, 말 없는 아이로 성장하였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마음속으로 따뜻한 부모님을 한없이 그리워하였고, 어머니가 지금껏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인이 된 지금도 엄마가 살아 돌아와서 자신과 함께 살았으면 한다는 마술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처들로 인해 마음은 한없이 외롭고, 우울하며,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어느 누구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여자 4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할머니가 아버지의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에서 할머니를 발로 차고 싶은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들었고, 이런 마음을 다독이면서 할머니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어머니가 이 세상의 우주였다고 진술하는 참여자 4였기에 어머니의 죽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참여자 4가 마음을 둔 사람이 현재의 배우자였다. 연상이었던 배우자는 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봐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옆에 함께 있어 주고, 군대에 갔을 때도 기다려 주고 하는 모습에서 많이 의지하고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은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퇴근을 하고 배가 고파 밥을 바로 먹고 싶은 상태였는데, 아내가 ‘손을 씻어라. 씻었는데, 왜 더럽냐’ 등의 잔

소리를 계속 하는 것에 화가 났고, 그만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고, 그러면서 싸움이 커져 몸싸움으로 번졌고, 나도 모르게 손이 아내의 목을 심하게 조르게 되어 아내가 신고를 하면서 긴급 분리조치가 되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상담도 받고 있다. 참여자 4는 긴급 분리조치가 되면서 충격을 받았는지,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되면서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4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구 분	참여자 4	연 령	23	직 업	단순노무
	가해유형	신체, 정서, 통제		가해기간	결혼 후 1년부터 약 2년	
	가해정도	목조름		동거여부	동거	
피해자	관 계	아내	연 령	24	직 업	단순노무
가족 사항	관 계	연 령	성 별	관계	연 령	직업
	본인	23	남	공란		
	아내	24	여			
가계도						
사례 개요	참여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시절 기억에 아빠는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저녁 먹고 나면 아빠 집으로 갔고, 그래서 다른 애들 아빠들도 저녁을 먹고 나면 아빠 집으로 가는 줄 알았음. -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빚을 저서 위장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는 진짜로 이혼을 했었고,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음. - 형은 아빠와 살았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형과 살았음. - 아빠는 사업체의 공장에서 생활했고, 집에는 아주 가꿈 들렸음. - 형이 아빠였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가 아빠의 재혼을 얘기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집을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를 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를 제대할 쯤 현 배우자인 여자 친구와 함께 살았고, 혼인 신고만 하고 지금껏 살고 있음. - 지금도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남. - 아내가 엄마처럼 해주면 좋을 거 같음.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바를 하거나 남편 이외의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힘들어함. - 한 달 이상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음. 	
	첫 폭행 당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은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나를 때렸고, 무슨 말만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렸음. 	
	폭행당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는 생각이 안 남. 	
	기억에 남는 폭력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때 엄마와 아빠에게 맞은 기억은 없음. - 형과 살면서 생활하면서 툭하면 맞음. - 형이라 대들지는 못하고, 때리면 맞다가 그냥 집을 나와 pc방에서 밤새 게임하고 집에 들어가곤 했음. 	
가해자의 폭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 상태였고, 그래도 집에 왔으니, 씻고 나왔는데, 아내가 '손 다시 씻어라'고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했음. 알았다 하고 그만하라고 계속 짜증 난 목소리로 닦달을 하니,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가 밀치면서 어깨를 잡는다고 했는데, 목을 잡게 되었고, 놀란 아내가 집을 뛰쳐나갔고, 아내가 신고하면서 경찰이 왔고, 아내는 1366으로 긴급 분리되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음. 		
의사소통 유형	초이성유형	사군자 기질 (대표기질/열등기질)	내향 대나무 / 난초
상처받은 내면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호 의존증 -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냥 엄마랑 계속 살았을 것이다. ④ 신뢰의 문제 -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⑥ 마술적 믿음 - 엄마가 살아 돌아오면 좋겠다,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거야. ⑦ 친밀감 장애 -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⑩ 공허감 (무관심 / 우울) -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어린시절 나의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을 돌보는 사람, 없는 아이, 엄마의 기쁨, 엄마의 친구, 말 없는 아이 		

(5) 연구참여자 5

참여자 5의 성격 기질은 ‘외향 국화 유형’으로 사람을 대할 때 잘 웃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는 편이다. 참여자 자신은 매우 밝은 성격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잘 받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참여자가 힘든데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진술하였다.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은 ‘산만유형’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관없이 행동하며,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보다는 타인의 관점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소외될까 두렵다고 진술하였다.

어린 시절 참여자 5는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가족의 행복, 공주, 보호받는 사람, 예쁜이, 우는 아이로 성장하였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아버지가 엄하면서 무뚝뚝한 편이라 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려고 안 아픈데도 아픈 척하고, 때도 쓰곤 했지만, 언제나 아버지는 한 발짝 멀리에 계신 분이라고 진술하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남편에게 많이 의존하고, 사랑받으려고 애쓴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고,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쥐도 쥐도 끝이 없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참여자 5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는 마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작 참여자 자신의 힘들이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상대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먹으면 새벽2~3시까지 먹었고, 이런 습관 때문에 통금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혼이 났다. 결혼을 하면서 술을 먹는 횟수가 줄었지만, 아이가 돌이 되면서부터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맥주 피쳐 한 병은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은 결혼 초기에는 참여자 5도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행복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신혼을 즐길 기간에 아이가 생기면서 부부관계가 뜸하게 되었고, 아이가 3~4세 정도가 되면서부터 아예 부부관계가 없었다. 처음 경찰 신고가 된 것은 참여자 5가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오게 되면서 남편이 늦게 다닌다고 화를 냈고, 이에 참여자가 ‘그래 술 먹었다 왜’ 하면서 싸움이 벌어져 옆집에서 신고를 하였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났고, 몸싸움을 할 때 참여자가 남편의 뺨과 머리를 때렸고, 주변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게 되어 남편이 신고를 하게 되었다.

부부싸움을 하면 참여자 5가 남편을 자주 때리게 되면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부부관계는 더 멀어졌고, 사과를 하는 뜻에서 먼저 부부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남편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면서 점점 더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웬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다가 외도가 의심되는 문자를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남편과 다툼이 일어났다. 남편이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큰 소리와 몸싸움이 발생 되었고, 참여자 5가 자신의 분에 못 이겨 남편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세게 할퀴었고, 남편이 112에 신고하고, 남편은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 5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구 분	참여자 5	연 령	37	직 업	알바
	가해유형	신체·정서		가해기간	자녀 4살 때부터 약 4년	
	가해정도	손톱으로 얼굴 등을 심하게 할퀴		동거여부	동거	
피해자	관 계	남편	연 령	39	직 업	회사원
가족 사항	관 계	연 령	성 별	관계	연 령	직업
	본인	37	여	딸	8	초등학생
	남편	39	남			
가계도						
사례 개요	참여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잘 자랐다고 생각됨.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회사 직장 동료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됨. - 결혼 전부터 술과 친구, 술자리를 좋아해서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아빠에게 통금이 걸려 혼도 많이 남. -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 친구들과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먹곤 했음(한 달에 2~3번 정도).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샌님 같은 사람으로 직장을 마치면 바로 집으로 오고, 늘 저녁 				

		<p>은 집에서 먹는 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종일 아이와 있는 배우자를 위해 아이 목욕도 시키고, 집안일도 잘 도와줌. - 개인 역량개발을 위해 집에서도 매일 인터넷 강의 등 계속 무언가를 공부함. 	
	자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1로 또래와 잘 지내고, 지극히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임. - 아이는 엄마 아빠가 크게 싸운 것으로 알고 있음. 	
	첫 폭행 당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께 심하게 맞은 기억은 없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담임 선생님이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뺨을 맞았음. 	
	폭행당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음. 	
	기억에 남는 폭력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화장실에서 뺨을 맞은 기억함. - 아버지가 초6 정도인거 같은데, 엄마에게 말대꾸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뺨을 맞았음. 	
가해자의 폭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어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남편이 일어났고,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손톱으로 남편의 뺨을 할퀴게 되었다. 이때가 3번째 정도였고, 앞의 2번 정도에서 소리 지르고 남편의 뺨도 때렸는데, 이때는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밀쳐내서 신체적인 폭력은 더 없었는데, 3번째에 얼굴에 손톱으로 할퀴고 나니, 남편이 나의 목을 순간적으로 조였고, 내가 썩썩하니 남편이 놀라서 112에 신고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음. 		
의사소통 유형	산만유형	사군자 기질 (대표기질 / 열등기질)	외향 국화 / 대나무
상처받은 내면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호 의존증 -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챙겨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③ 자기애성 성격장애 - 남편이 쥐도 쥐도 끝도 없이 해달라고 한다고 한다. ⑥ 마술적 믿음 - 남편이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⑦ 친밀감 장애 -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힘들다고 말 못 한다. ⑨ 중독적·강박적 행동 - 저녁에 맥주 피치는 매일 먹어요. 		
어린시절 나의역할	<p>가족의 행복, 공주, 보호받는 사람, 예쁜이, 우는 아이</p>		

(6) 연구참여자 6

참여자 6의 성격 기질은 ‘외향 매화 유형’으로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며 자신이 맡은 일은 신속, 정확하게 일을 한다. 그러나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일정의 변경이 있으면 그 상황이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친구도 몇 명 없지만, 불성실한 사람과는 친구도 하지 않으며, 직장 상사나 동료, 아랫사람 또한 성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은 ‘초이성유형’으로 특히 아버지와 대화도 잘 하지는 않지만, 하게 된다면 아주 논리적으로 아버지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대화를 하고, 자신이 생각을 해도 아주 강박적이고 한 가지 물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집착하면서 아버지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사소통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가정 등에서 자신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어린 시절 참여자 6은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눈치보는 아이, 모범생, 애어른, 엄마의 기쁨, 말 없는 아이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을 유치원 시절부터 목격하면서 성장하였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어머니가 맞는 자리에서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어머니한테 더 매달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럴 때 아버지는 참여자 6을 어머니와 떼어놓기 위해서 더 강하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참여자 6도 같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가정에서 참여자 6은 할머니만 챙기는 아버지는 죽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할머니가 어머니를 혼낼 때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국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본인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도 성실히 다니면서 돈을 벌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마술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원 가족에서 의지할 곳 없었던 참여자는 자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조차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무관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6은 현 배우자와 2년 전 이혼을 하고 현재 사실혼으로 살고 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난 후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고, 아이가 돌 정도 되었을 때 자고 있는 아이 옆으로 칼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친권, 양육권을 모두 참여자 6이 가지면서 이혼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코로나 시국에 한국에 오게 되면서 격

리할 곳이 없다고 연락이 왔고, 그 당시 참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 비어 있어, 1주일만 머물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껏 사실혼으로 함께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6은 아이의 친모인 사람을 매몰차게 밀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았다고 하였고, 조금은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예전의 게임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야되는 시간을 항상 놓치고, 늦게 보내고 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고, 게임을 하면서 어린 남자애들과 채팅을 하면서 외출을 하는 횟수도 늘어갔다고 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은 참여자 6은 배우자가 컴퓨터에서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 배우자 대신 채팅을 하면서 ‘유부녀와 채팅하는 것이 재미있느냐’, ‘너는 몇 살이냐’ 등의 질문을 하는 가운데, 배우자가 참여자 6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주변 물건을 부수고, 모니터를 부수는 등의 폭력이 있던 가운데, 주먹으로 배우자의 눈 부분을 때리게 되었고, 눈썹 주위가 찢어져 피가 나면서 배우자가 놀라 뛰쳐나가서 집 옆의 경찰서에 바로 가서 신고하면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다. 연구참여자 6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구 분	참여자 6	연 령	44	직 업	회사원
	가해유형	신체, 정서, 통제		가해기간	결혼 후 2년 차 정도부터	
	가해정도	주먹으로 얼굴 때림		동거여부	이혼 후 사실혼으로 동거	
피해자	관 계	배우자	연 령	34	직 업	가사
가족 사항	관 계	연 령	성 별	관계	연 령	직 업
	본인	44	남	아들	4	어린이집
	아내	34	여			
가계도						
사례	참여자 6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2인자의 전문적인 실력을 가졌으며,				

개요		<p>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서 하는 일이 적성에도 맞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함. - 동료, 친구, 원 가족들이 하는 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들이 보는 데서는 신경을 안 쓰는 척 함. - 평소에는 화도 잘 안 내고 순한 편이지만, 화가 나면 부모님도 말리지 못함. - 부모님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 - 이혼을 한 이유는 아이가 돌쯤이었는데, 그날도 큰소리를 내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화를 못 참고, 칼을 거실로 던졌는데, 자고 있는 아이 옆으로 칼이 떨어졌고, 이 일이 있은 후 바로 이혼했고,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내 자식을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어서 같이 살게 되었음.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에서는 직장 다니면서 대학도 다니고 했는데, 한국에 온 뒤로는 어떠한 일도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함. - 핸드폰으로 하던 게임이 이제는 컴퓨터로 게임 중독인 것처럼 게임에 매달려 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늦게 자는 바람에 못 일어나서 아이를 제 시간에 데려다주지 못하고 있음.
	자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살이지만,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자기표현이 정확하지 않음. -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항상 태블릿을 보면서 혼자 놀고 있음.
	첫 폭행 당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다닐 때 아버지에게 맞음.
	폭행당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기억이 나지 않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무서워서 엄마를 찾으려 울었는데, 엄마에게 간다고 아버지가 옷을 세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고, 내팽개쳐짐. - 부부싸움을 하면 엄마가 자주 맞았고, 맞는 엄마를 보면서 같이 운다고 더 맞았음.
	기억에 남는 폭력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고 말했다가 아버지에게 친척들이 있는 곳에서 맞음. - 부모님은 한 번 싸우면 끝장을 봐야 끝이 남.
가해자의 폭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와 같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것이 늦은 것에 대해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화를 불쑥 내면서 늦게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성질을 팍 냈음. - 늦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주의도 들었는데, 이날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손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아내 	

	<p>눈을 때렸는데, 눈썹 위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면서 아내가 순간 놀라 핸드폰을 들고 112에 신고를 했고, 뛰어나갔음.</p> <p>- 한 번씩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싸움이 있어,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몇 번 했었고, 경찰이 출동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내를 때린 적은 처음이었음.</p>		
의사소통 유형	초이성유형	사군자 기질 (대표기질 / 열등기질)	외향 매화/ 국화
상처받은 내면아이	<p>② 공격적 행동 - 할머니만 챙기는 아버지가 죽거나 없었으면 좋겠다.</p> <p>④ 신뢰의 문제 - 한국여자는 사치와 낭비가 심하고 고집이 세다.</p> <p>⑥ 마술적 믿음 - 나만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p> <p>⑦ 친밀감 장애 - 내가 말해봐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p> <p>⑩ 공허감(무관심/우울) - 이 세상에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p>		
어린시절 나의역할	<p>눈치보는 아이, 모범생, 애어른, 엄마의 기쁨, 말 없는 아이</p>		

(7) 연구참여자 7

참여자 7의 성격 기질은 '내향 매화 유형'으로 가족이나 주변 지인, 직장 동료 등 자신이 아는 지인들에 대한 보호본능이 강하며 사소한 것도 아주 소상히 기억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동료나 아랫사람을 보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진술하였다.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은 '비난유형'으로 가정에서 참여자 7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며, 자신의 결정과 생각만이 중요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의견 등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어린 시절 참여자 7은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가족의 걱정거리, 눈치 보는 아이, 대신 혼나주는 아이, 화풀이 대상자, 없는 아이의 역할을 하였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3살 무렵에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주변인들로부터 다리병신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다리가 불편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왜소한 체격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화부터 내는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 외의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오고, 이런 날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있는 모습,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었고, 손재주가 좋아 일도 금방 배우고, 상사에게 잘해서 칭찬을 받아도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준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한다. 배우자 또한 여동생의 친구로 집에 놀러왔을 때 성폭행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외모에 비해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 자신과 비교되면서 자신감이 없어졌으나, 힘으로 제압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으며,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참여자 7 자신도 자신이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였다. 자신의 외모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어서 무시하고 얕본다는 사고의 왜곡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은 결혼생활 46년 동안 거의 매일 크고 작은 부부 싸움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배우자가 가게에서 다른 가게 사장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날 저녁에 술을 먹고 이 일을 얘기하면서 크게 싸움이 일어났고, 시끄러운 소리에 이웃이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늘 그랬듯이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개입하면서 배우자를 컴퓨터로 데리고 갔고, 다시 경찰조사를 받

게 되었으며, 가중처벌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기다리는 중이다. 연구참여자 7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연구 참여자 7

연구 참여자	구 분	참여자 7	연 령	74	직 업	자영업
	가해유형	신체, 특수, 통제		가해기간	결혼 초부터 46년	
	가해정도	구타/칼 협박		동거여부	동거	
피해자	관 계	아내	연 령	70	직 업	자영업
가족 사항	관 계	연 령	성 별	관계	연 령	직업
	본인	74	남	아들	45	회사원
	아내	70	여	딸	43	가정주부
				아들	39	회사원
가계도						
사례 개요	참여자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엔진정비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고장 난 기계와 시커먼 기름이 묻은 장비를 만지기 때문에 손과 손톱 밑이 기름 찌든 때가 끼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 함. - 전문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기계를 고치는 일에만 집중할 뿐 가계를 운영하는 모든 것은 배우자에게 의존함. - 의처증이 심하고, 배우자와 소통을 할 때는 언제나 욕으로 시작하고,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를 절고, 왜소한 체격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음. - 배우자는 본인보다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 주변에 남자도 많고, 그런 남자들과 바람이 났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음.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이 의심하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외도는 하지 않았고, 남편의 소아마비가 부부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 남편의 성관계 요구가 힘들어 도망을 친 적이 여러 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으로 00시의 0000센터에서 관리 받고 있다고 함. - 4번 이상 집을 나간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함. 	
	자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살 되자마자 입대를 했고, 제대 후 바로 타 지방으로 독립했고, 결혼도 집에 알리지도 않고, 아이 먼저 낳고 살았음. 	
	자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때 부터 가출을 하는 등 심한 사춘기를 겪음. - 현재는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음. 	
	자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에게 맞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함. - 최근 결혼하기 위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때도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서 아버지에게 발길을 끊었다고 함. 	
	첫 폭행당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이 있을 때부터 맞았음. 	
	폭행당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 없이 맞았음. 밥 먹다가 맞고, 더럽다고 맞고, 키 작다고 맞고, 다리병신이라고 맞고, 하여튼 뭐만 하면 맞았음. 	
	기억에 남는 폭력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에게 항상 맞았고, 맞다가 피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폭력 장면은 없음. 	
가해자의 폭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게에서 나는 일을 하고 집사람은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다른 가게 사장하고 반갑게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니, 불쑥 화가 났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상을 던져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자주 싸움이 있어 주변에서 신고를 많이 했고, 경찰도 이번에 또 싸우면 잡아가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또 시끄럽게 싸워서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집사람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늘 풀려났으나, 이번에는 0000전문기관 선생님이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집사람을 데리고 나갔음. 		
의사소통 유형	비난유형	사군자 기질 (대표/열등)	내향 매화 / 대나무
상처받은 내면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호 의존증 - 내가 업체사장들에게 부탁 못하지. 그거는 집사람이 잘해. ② 공격적 행동 - 집사람만 보면 화가 불쑥 올라와. ⑤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 -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울화가 치밀지. ⑨ 중독적·강박적 행동 - 소주 없으면 잠을 못 자. ⑩ 사고의 왜곡 - 내가 다리병신이라고 다들 무시했지. 		
어린시절 나의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걱정거리, 눈치 보는 아이, 대신 혼나주는 사람, 화풀이 대상자, 없는 아이 		

(8) 연구참여자 8

참여자 8의 성격 기질은 ‘내향 매화 유형’으로 가족에 대한 보호본능이 강하고,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켜야 되는 질서, 도리, 도덕에 관한 규칙, 지침들을 아주 잘 지킨다고 진술하였다.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은 ‘비난유형’으로 배우자와 딸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니깐, 이렇게 되지’라는 말을 자주하고, 가족 구성원의 의견보다는 참여자 8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경우에는 참여자 8의 의견으로 거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어린 시절 참여자 8은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가족의 행복, 모범생, 성취도 높은 아이, 착한 아이, 말 없는 아이의 역할로 성장하였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해서 대학을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녁마다 술을 드셨고, 형제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때렸고, 아버지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옆집에 숨거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주무실 때 째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 우리 집은 늘 바빴고, 엄마는 방앗간 일에 매여 있다 보니, 우리 형제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이런 엄마를 늘 그리워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엄마의 따뜻한 눈길이라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서 상장을 받으면 엄마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8은 어머니를 위해 용돈 한번 빠진 적 없지만, 어머니는 항상 형들과 누나들만 챙겼고, 참여자 8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고 회상하였다. 그래서 공부라도 잘해서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었고,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늘 엄마의 관심을 갈구하였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과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의 관계 또한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작은딸의 자살로 말미암아 더욱더 마음의 문을 닫았고, 작은딸이 왜 죽었는지,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참여자 8의 탓으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묻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동안 살면서 종교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듯 참여자 8이 기도를 열심히 가면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올 것 같고, 왜 죽었는지 기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진술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은 큰딸을 중학교 때부터 혼을 많이 냈고, 참여자 8이 제시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큰딸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잔소리, 큰소리, 뺨을 때리는 신체적 폭력,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한 통제 등을 하게 되면서 한 대씩 때리던 것이 나중에는 때를 만들어서 때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연예인을 하겠다고 학원비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하니, 칼을 들고 와

서 죽겠다고 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딸의 뺨과 몸을 때리는 폭력이 발생하여 아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칼은 딸이 들었는데, 참여자 8은 가정폭력 특수 폭행범으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구참여자 8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연구 참여자 8

연구 참여자	구 분	참여자 8	연 령	59	직 업	회사원
	가해유형	신체, 정서, 통제		가해기간	자녀가 16세부터 약 10년	
	가해정도	구타 협박		동거여부	분리	
피해자	관 계	큰딸	연 령	26	직 업	무직
가족 사항	관 계	연 령	성 별	관계	연 령	직 업
	본인	59	남	딸	26	무직
	아내	53	여			
가계도						
사례 개요	참여자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남 4녀의 다섯째로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 아버지가 방앗간을 해서 배는 안 고팠고, 마을에서 우리 집은 대학공부를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었다고 함. - 형님들이 방앗간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방앗간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함. - 지금 배우자와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했지만, 3개월 정도 사실혼으로 살았던 배우자가 있었음. - 00여자였는데, 00에 내려와서 함께 살다보니, 모든 것이 맞지 않아 헤어지고,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함. - 자식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 말리지는 않았지만, 연예인을 할 정도로 큰 딸이 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자체는 온순하나, 남편과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함. - 큰 딸을 연예인 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큰 딸에게 맞춤. 				

	<p>자녀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도 끝났고, 00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하였음. -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적응하지 못해 한 학기도 못 채우고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게 됨. - 통학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이 들고, 자신의 불만을 부모님과 동생에게 화풀이함. 			
	<p>자녀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라면서 큰 말썽 없이 잘 자랐고, 공부는 평균 정도 했음. - 중학교 가면서 언니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엄마 아빠는 언니만 챙긴다는 말을 자주 했음. - 사건이 발생한 날은 방학 때였고, 집에 언니랑 둘이 있으면서 다툼이 있었다고 언니가 경찰에 진술함. 			
	<p>첫 폭행 당한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가 방앗간 일이 끝나고 술 한 잔 드시면 자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술주정을 한 것으로 기억함. 			
	<p>폭행당한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때렸기 때문에 왜 맞았는지 기억 안 남. 			
	<p>기억에 남는 폭력장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저녁 식사하면서 술을 드시고, 그리고 나면 때리는 게 일과였기 때문에 저녁밥 먹는 시간이 맞는 시간이었음. 			
가해자의 폭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딸이 자기 방 베란다에서 자살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침울했음. - 큰딸은 연예인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는 하나, 내가 보기에는 그냥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간에 바람만 들어서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더니, 칼을 들고 와서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과정에서 말리다가 뺨을 때렸는데, 큰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상황이 되었음. 			
의사소통 유형	<table border="1"> <tr> <td>비난유형</td> <td>사군자 기질 (대표/열등)</td> <td>내향 매화/ 대나무</td> </tr> </table>	비난유형	사군자 기질 (대표/열등)	내향 매화/ 대나무
비난유형	사군자 기질 (대표/열등)	내향 매화/ 대나무		
상처받은 내면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자기애성 성격장애 - 형제가 많아서 공부라도 잘 해야 엄마가 칭찬을 해줬지. ④ 신뢰의 문제 - 엄마 생활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도 엄마는 나를 안 믿지. ⑥ 마술적 믿음 -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지 알았다고 함. ⑦ 친밀감 장애 - 작은 애가 왜 죽었는지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겁이 나서 물어보지 못 하겠다고 함. ⑩ 사고의 왜곡 - 종교가 없었는데, 교회를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작은 애가 살아 돌아올 것 같음. 			
어린시절 나의역할	<p>가족의 행복, 모범생, 성취도 높은 아이, 착한 아이, 말 없는 아이</p>			

(9) 연구참여자 9

참여자 9의 성격 기질은 ‘내향 국화 유형’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은 잘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가까운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하거나, 자신의 요구 등을 부탁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은 ‘비난유형’으로 이혼 전 배우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아버지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교육했다고 진술하였다.

어린 시절 참여자 9는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모범생, 책임감 강한 아이, 피해자, 화풀이 대상자, 말 없는 아이의 역할로 성장하였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부모님이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할머니 집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을 어머니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호 의존증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9가 공부를 잘하니, 학교 선생님께도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서 공부만 잘하면 다른 모든 일도 다 잘될 것이라는 마술적인 믿음이 생겼다. 일을 할 때는 직장 동료에게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중독적이면서 강박적으로 일을 하였다.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어머니와 살게 되었고, 학원 강사에서 시작한 일은 원장이 될 만큼 성공은 하였다. 하지만, 어린 시절 참여자 9는 할머니 집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했고, 참여자는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자리를 메꾸기 위해 항상 일을 했고, 자식이 4명인데, 장남만 제사를 챙길 자식이라고 장남만을 대우해주는 것에 원망과 미움의 양가감정을 가진 채 성인이 되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은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와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일상적으로 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2~3병을 반주로 하였다. 그러던 중 어머니와 한 마디씩 오고 가면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참여자는 자신이 생각해 왔던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의 말을 어머니에게 쏟아냈고, 이를 듣던 어머니가 참여자를 나무라면서 고성인 오고 가고, 저녁 밥상을 뒤집고, 주변의 물건을 던지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어머니를 밀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하니, 주변 이웃이 신고하게 되면서 현재 가정폭력 20범이 되었고, 잦은 신고로 인하여 가중처벌이 되면서 이번 신고로 인해 구치소에 두 달여 지내다가 현재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중이다. 연구참여자 9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	구 분	참여자 9	연 령	61	직 업	무직
	가해유형	신체, 특수, 통계		가해기간	이혼 후 25년 정도	
	가해정도	존속상해		동거여부	분리	
피해자	관 계	모	연 령	80	직 업	무직
가족 사항	관 계	연 령	성 별	관계	연 령	직 업
	본인	61	남	딸	35	직장인
	아내	57	여	아들	33	자영업
가계도						
사례 개요	참여자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애가 10살 정도에 성격 차이로 이혼했음. -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것에 아내도 동의했지만,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가 키워주지 않게 되자 갈등이 있었고, 아내를 때리게 되어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로 하고 이혼함. -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참고 술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았음. - 학원에서 고등수학을 가르쳤고, 학원장까지 했으나, 코로나로 학원이 망하고, 경비 등을 하며 살고 있고, 현재는 무직임. - 어머니와 갈등이 심한 날은 상을 얻고, 어머니를 밀치고 해서 주변 이웃들이 신고를 하여 가정폭력 20범이 됨. - 형의 아이들은 장남이라고 키워주고 다 했는데, 내가 결혼해서 맞벌이할 때 우리 아이들은 봐주지도 않았음. - 형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형수와 별거하는 상태로 나, 형, 어머니 3명이 함께 살고 있음. - 검찰에서 기소유예, 벌금 등의 횡수가 많다 보니, 이번에는 법원에서 가중처벌이 되어 구치소에 두 달 보름 정도 있다가 나옴. - 부모님은 단지 나의 몸만 이 세상에 나오게 했지, 사랑을 받았거나 부모의 정을 느끼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음.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애결혼은 했으나, 결혼 직후부터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음. - 차남인데 시모 부양 문제로 불만을 계속 토로하였음. 				

		- 맛별이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키워주지 않는 시모의 태도와 남편의 시댁 의존에 많은 불만을 표시함.	
	아버지	-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까워서 형과 나를 할머니 집에서 대학교까지 살게 함. - 군 복무 중 돌아가셨고, 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억은 거의 없음.	
	어머니	-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글을 읽지 못함. - 형이 장남이라고 형만 챙기고, 장남 사업하라고 자신이 살던 집도 대출을 내서 장남에게 줌.	
	첫 폭행 당한시기	- 부모님이 때린 것에 대한 기억은 없음. - 어머니가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박질러 도망친 기억은 있음.	
	폭행당한 이유	-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맞고 컸는데, 왜 맞았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음. - 형은 언제나 경쟁 상대였고,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싸우고, 때리고 맞았음.	
	기억에 남는 폭력장면	- 형과 늘 싸웠고, 이유는 생각이 나지 않음. - 결혼하고 아내와 갈등이 생기면서 말다툼 끝에 아내의 따귀를 때렸고,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혼소송으로 이혼함.	
가해자의 폭력과정	- 입시학원이 망하고 집에 있으면서 술을 원래 주량보다 더 먹게 되었고, 이혼한 것, 아이를 어머니가 키워주지 않겠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됐다는 생각들이 술만 먹으면 어머니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고, 물건을 부수고, 던지고, 소리 지르고, 어머니를 밀치면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등 주변 이웃에서 신고를 2일에 한 번꼴로 하게 되었음.		
의사소통 유형	비난유형	사군자 기질 (대표/열등)	내향 매화/ 난초
상처받은 내면아이	① 상호 의존증 - 부모님이 나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할머니 집으로 보냈는데, 나를 보내지 말고,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음 ② 공격적 행동 - 부모님이 어린 나를 직접 키우지 않고, 할머니 집으로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울컥울컥 올라옴. ⑥ 마술적 믿음 -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⑨ 중독적·강박적인 행동 -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2~3병 정도는 매일 마심. ⑩ 공허감 - 나는 가족이 하나도 없다. 죽을 때 어디 가서 죽을 거라고 함.		
어린시절 나의역할	모범생, 책임감 강한 아이, 피해자, 화풀이 대상자, 말 없는 아이		

(10) 연구참여자 10

참여자 10의 성격 기질은 ‘외향 매화 유형’으로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미리 세운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해나갔다. 과거 자신이 경험한 것과 정보를 잘 활용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견 등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잘 전달하였다. 반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지적을 받거나 뒷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김정구, 2013).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유형은 ‘비난유형’으로 배우자와 의사소통할 때 이혼 전에도 배우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따라 집안의 규율과 규칙이 정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어린 시절 참여자 10은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가족의 행복, 엄마의 기쁨, 예쁜이, 착한 아이, 귀염둥이의 역할로 성장하였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아버지는 멀리 도망을 간 상태에서 학교 육성회비도 못 내는 형편이 되었고, 자녀 4명을 키우기 위해 엄마는 새벽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자는 어머니에게 받아야 할 보살핌, 돌봄 등을 누나들에게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이런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 10은 누나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혼도 누나 같은 사람과 하면 행복할 거라는 상호 의존증이 생겼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질 것이라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서 참여자 10은 자신의 의지로 모든 일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발현되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배우자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나만 잘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리라는 마술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참여자 10은 원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한 건물에 함께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은 결혼하고 초기에는 폭력이 없었고, 우연찮게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외도가 의심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후 배우자 외도 현장을 참여자가 보게 되었다. 참여자 10은 그동안 배우자의 일상을 사사건건이 간섭한 것을 사과하였고, 배우자 역시 외도를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다시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후 배우자가 외도남을 계속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점을 추궁하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참여자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이 발생하였다. 배우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된 후 현재 집행유예를 받아 수감명령 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 10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연구 참여자 10

연구 참여자	구 분	레몬차	연 령	48	직 업	회사원
	가해유형	신체, 정서, 통제		가해기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1년 정도	
	가해정도	구타		동거여부	이혼	
피해자	관 계	아내	연 령		직 업	
가족 사항	관 계	연 령	성 별	관계	연 령	직 업
	본인	48	남	딸	13	초등학생
	아내	46	여			
가계도						
사례 개요	참여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잘 살아보려고 올면서 맹세했는데, 아내가 그 사람과 계속 소통하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고, 다툼이 일어났음. - 2남 2녀의 막내로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음. -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비닐하우스 같은 천막집에서 한동안 생활했지만, 어린 시절이라 가족이 함께 있었고, 누나들과 재미있게 보낸 기억만 남아있음. - 지금 생각에 육성회비를 내지 못했던 거 같음. - 나를 위해 돈을 잘 쓰지 않았고, 돈을 알뜰하게 잘 모았음. - 동전 등을 모아서 엄마, 형, 누나에게 나눠 주기도 했음. - 이혼하고 난 뒤, 절대 혼술은 하지 않기로 결심함. - 성인이 되어서 엄마가 아버지랑 재혼한 사실을 알았고, 제일 큰 형이 배다른 형인 걸 알게 되었다. 알기 전에 형이 어렵고 무서웠고, 웬지 나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자라면서 받았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자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사춘기를 겪는 거 같고, 엄마랑 같이 살고 있음. - 2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이제는 4주에 한 번만 만나자고 해서 서운함. - 왜 이혼했는지 묻지 않음. 				

	<p>첫 폭행 당한시기</p> <p>폭행당한 이유</p> <p>기억에 남는 폭력장면</p>	<p>-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임.</p> <p>- 성인이 된 후에는 군대에서 맞음.</p> <p>- 맞은 이유는 기억나지 않음.</p> <p>- 부모님께 맞은 기억은 없고, 형에게 맞기는 했는데, 왜 맞았는지 기억은 하지 못함.</p> <p>- 군대 고참에게 맞았고, 군대에서는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기억하지 못함.</p>		
가해자의 폭력과정	<p>- 아내의 외도장면을 목격하고, 그래도 잘 살아보자고 맹세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과 계속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되어 다툼이 일어났고, 아내를 심하게 때렸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정 구속이 된 후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음.</p>			
의사소통 유형	비난유형	사군자 기질 (대표/열등)	내향 대화/ 국화	
상처받은 내면아이	<p>① 상호 의존증 - 형제들이 외면함.</p> <p>③ 자기애성 성격장애 - 누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이런 실패는 없었다고 생각함.</p> <p>④ 신뢰의 문제 - 아내가 내가 사사건건 간섭해서 바람피웠다고 함.</p> <p>⑥ 마술적 믿음 - 나만 잘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이 된 줄 알았다고 함.</p> <p>⑦ 친밀감 장애 - 원 가족과 나의 가족이 한 건물에 살면서 1층은 부모님, 2층은 누나, 3층은 나의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꿈꿨음.</p>			
어린시절 나의역할	가족의 행복, 엄마의 기쁨, 예쁜이, 착한 아이, 귀염둥이			

3. 가정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분석

본 연구는 어린 시절 폭력을 경험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관한 경험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연구방법인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험에 내재된 가해행위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그대로의 현상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Van Manen, 1994).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표 20>과 같이 가정폭력 가해행위, 가정, 내면아이, 가족의 역동성이라는 네 가지의 근본적 본질과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됨, 속마음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함,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나와 나의 주변인 무시, 집은 내가 왕이다, 집이 지옥, 가정이 무엇인지 모른다, 강하고 싶은 나,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고독한 나, 상처받은 내면아이, 먹을 때마다 전쟁, 전부 가족 탓, 전부 내 탓, 부모역할을 하지 못함의 15개의 본질적 주제를 밝혔다.

어른이 되면 나도 때릴 수 있어, 나도 맞고 배웠는데, 너도 맞아야지, 맞는데 이유 없어, 손에 잡히는 데로 부숨, 밖에서는 좋은 사람, 집에서는 폭군, 술을 먹어야 용기가 생김, 상행위 중독증, 배우자의 외도 확인, 나에게 순종하지 않은, 나의 지인 무시, 나를 투명인간 취급, 먹는 것으로 나를 챙기지 않음, 돈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음, 나를 찾지 않음,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 집에서 내가 하는 말 듣기 싫으면 나가, 밥도 못 먹여 주는 곳에선 나는 나갈 거야, 자식이 죽었는데, 집에서 내가 뭘 하겠나, 나는 언제나 혼자고 외롭다, 배우자도, 자식도 없는 집, 자식이 죽어 나간 집,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다, 이슬 피하고 잠만 자고 나오는 곳, 언제나 나에게 돈과 희생 강요,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내가 집 한구석에 죽어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게 살게 해야 한다, 나는 누구처럼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언제나 혼자인 사람, 늘 그리운 엄마, 나만 참으면 돼, 서로 의존적인 관계, 공격적인 행동, 자기애성 성격장애, 신뢰에 문제,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 마술적 믿음, 친밀감 장애, 무질서한 행동,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 사고의 왜곡, 공허감, 무관심, 우울, 나를 챙기지 않음, 술만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음, 내가 능력이 없고, 자상하지도 않음, 힘들다고 자식을 친척 집으로 보냄, 엄마가 나를 데리기도 망이라도 가지, 자식이 나 때문에 자살, 경제적 지원 못함의 49개의 하위주제로 범주화하였다.

<표 20> 가정폭력 가해행위의 근본적 본질

근본적 본질	본질적 주제	하위범주
가정폭력 가해행위 신체성 (Lived body)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됨	어른이 되면 나도 때릴 수 있어
		나도 맞고 배웠는데, 너도 맞아야지
		맞는데 이유 없어
	속마음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함	손에 잡히는 데로 부숨
		밖에서는 좋은 사람, 집에서는 폭군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술을 먹어야 용기가 생김
		성행위 중독증
		배우자의 외도 확인
	나와 나의 주변인 무시	나에게 순종하지 않음
		나의 지인 무시
		나를 투명 인간 취급
		먹는 것으로 나를 챙기지 않음
		돈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음
		나를 찾지 않음
	가정 공간성 (Lived space)	집은 내가 왕이다
내 집에서 내가 하는 말 듣기 싫으면 나가		
집이 지옥		밥도 못 먹여주는 곳에서 나는 나갈 거야
		자식이 죽었는데, 집에서 내가 뭘 하겠나
		나는 언제나 외롭고 혼자다
		배우자도, 자식도 없는 집, 자식이 죽어 나간 집
가정이 무엇인지 모른다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다
		이슬 피하고 잠만 자고 나오는 곳
		언제나 나에게 돈과 희생 강요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내가 집 한구석에 죽어도 몰랐을 것이다
내면아이 시간성 (Lived time)	강하고 싶은 나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되고 싶다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나는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게 살게 해야 한다
		나는 누구처럼 절대 안 그럴 거야
	고독한 나	나는 언제나 혼자인 사람
		늘 그리운 엄마
		나만 참으면 돼
	상처받은 내면아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
		공격적인 행동
		자기애성 성격장애
		신뢰에 문제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
		마술적 믿음
		친밀감 장애
		무질서한 행동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
사고의 왜곡		
공허감, 무관심, 우울		
가족의 역동성 관계성 (lived others)	먹을 때마다 전쟁	나를 챙기지 않음
	전부 가족 탓	술만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음
	전부 내 탓	내가 능력이 없고, 자상하지도 않음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함	힘들다고 자식을 친척 집으로 보냄
엄마가 나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가지		
자식이 나 때문에 자살		
경제적 지원 못함		

4. 가정폭력 가해행위의 근본적 주제

1) 신체성(Lived body)_가정폭력 가해행위

신체성(Lived body)은 연구참여자들이 가정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삶의 경험을 신체의 차원으로 모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신체를 통해 세계를 만난다. 신체는 스스로 지각하고 스스로 느끼는 자아로서의 신체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주체로서의 몸이다(Merleau-Ponty, 1962). 현상학적 연구에서 설명하는 신체는 단순히 근육과 살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신체가 아니라, 연구참여자 본인의 경험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이며,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의 중심에 있다.

(1)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됨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에는 이유도 없이 맞았고,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음식 배달을 하면서 이유 없이 맞았고,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할머니 집에 가서 나무 짐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장애인이었었는데, 소리만 질렀고, 나무작대기로 때렸던 기억만 있다고 회상했다.

왜 맞았는지 이유는 생각이 안 나요.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그냥 맞았는데, 그냥 손으로 뺨을 맞았어요. 아빠가 술에 취했다 싶으면 그냥 피했던 거 같아요. 누나가 중학교 때 성적표를 내놓지 않고 놀러 갔는데, 아빠가 가방을 뒤져서 찾았고, 그때 담배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날 저녁에 누나가 아빠한테 뒷산으로 끌려갔고, 옷을 다 벗기고 나무작대기로 맞았다고 했어요. 나는 자는 척을 했는데, 엄마가 울면서 나가서 누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고3쯤 되었을 때 아빠가 술에 취해 또 때리려고 할 때 '에이 시발 또 때리나'하면서 팔을 움켜잡았더니, 그때부터 서로 때리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그때 엄마한테 소리치면서 신고 하라고 해서 처음 신고가 됐던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싸움이 날 때마다 신고를 했고, 내가 힘이 더 세지니 아빠가 더 다치게 됐고, 이렇게 까지 됐어요. (참여자 1)

00에 삼촌 따라 내려와서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저씨들한테 많이 맞았지. 열 몇 살 된 애가 뭘 알겠노. 공장에서 연장 가지고 오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거나 들고 가서 맞고. 이래저래 맨날

맞아서 기억도 안 나지 (참여자 2)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몸에 마비가 왔는지, 잘 못 움직였는데, 밥 달라고 하면 작대기로 때리고 해서 집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 000배달하는 데 갔지, 거기 가니깐 점심은 000을 주니 배는 안 고했는데, 그것도 몇 년을 먹으니 나중에는 못 먹겠더라고. 그 중간에 음식 하는 거 배우게 됐는데, 그냥 가르쳐주나. '시발'은 기본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이 전부였고, 배우는 것도 알아서 눈치껏 보고 연습하고 했지. 어디 누가 '자 봐라'하면서 가르쳐주노. 태도 없지. 나는 그래도 배워서 먹고 살라고 악착같이 배웠는데, 이 새끼는 저거 애비한테 욕도 안 쳐 들고 배우면서 고마운 것도 모르고, 힘들다고 느려터지고, 지 헬스 한다고 일찍 준비도 안하고. 이러니 내가 그냥 있겠다. 말로 하다가 성질나서 옆에 있는 0들고 소리 질렀더니, 그 질로 신고하대. 그게 여러 번 되니 이래 된 거지. (참여자 3)

아버지한테 하도 맞아서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눈뜨면 맞았고, 눈에 보이면 때리러 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유를 모른다. (참여자 7)

장남 아니라고 할머니 집으로 보낼 때는 언제고 내가 결혼을 하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대요. 그래도 엄마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용돈은 나한테 받고, 우리 애는 안 봐주고, 큰형 애들만 봐주러 가더라고. 그래도 그냥 있었는데, 내가 이혼까지 하고, 혼자 살게 됐는데도 내만 보면 소리 지르고 하길래, 맨 정신으로는 말 못하고 술 먹으면 그동안 쌓였던 거 말했더니, 큰소리 나고 상 얹어지고, 이웃집에서 신고하고 이러다가 가정폭력 20범이 됐어요. (참여자 9)

(2) 속마음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 함

연구참여자들은 외로워서 결혼을 했고, 나는 잘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이나 힘듦을 가족 구성원 어느 한 사람에게도 진솔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처음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 몰라서 못했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일상에 묻혀 그냥저냥 지나갔는데, 술을 먹거나, 일상 대화를 하다가 불쑥 예전의 감정이 올라와서 의도와 관계없이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했다.

일찍 나와서 가게 열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나오고 해서 나오겠지 하고 참았는데, 한번을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도 좋게 말은 안 나왔지.

바로 ‘이 새끼야. 늦게까지 게임하지 말고 일찍 처자지’ 이랬더니, 이 새끼가 욱해서 ‘시발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하길래 그 질로 때렸지. (참여자 3)

엄마하고 둘이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여자 친구에게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아내는 내가 외롭다고 하면 자기가 더 외롭다고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안 하고 지냈는데, 일마치고 집에 왔는데, 밥도 안 해놓고, 짐이 엉망진창인거 보니 화가 나서 싸우다가 내가 때렸어요. (참여자 4)

남편이 샌님인거는 알지만, 저는 주말에 부부 동반해서 바람도 쏘고, 커피도 마시러 나가고 싶은데, 피곤하다고 하니, 말도 못 하고 그냥 있었죠. 그냥 혼자 나가기도 했는데,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내어 울었더니, 남편이 왜 우냐고 소리치고. 나도 소리 지르고. 애는 놀래서 울고. 이렇게 시작된 거 같아요. 그러다가 심하면 뺨을 때리고 했는데, 그게 몇 번 신고 되고 그랬어요. (참여자 5)

애는 혼자 아이패드 보고, 아내는 컴퓨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도 몇 번 얘기 했는데, 서로 말이 잘 안 통하기는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를 지르게 됐고, 주먹이 나갔는데, 눈썹 위에서 피가 났어요. (참여자 6)

(3)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문순희(2008)은 부부 상담 중 이혼의 사유로 성격차이가 가장 많고, 의사소통과 성, 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이 이혼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박세경(2004)은 가족이나 부부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심리·사회적,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과 긴장이 높아져 가족해체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부부갈등은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되고,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며(Gelles & Strauss, 1979) 자녀학대나 구타와 같은 폭력으로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il, 1971).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간의 대화가 없고, 각방에 거주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냉담한 정서적 반응에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경험했다.

아내가 내가 코를 하도 골아서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고 각방을 쓰자고 해서 그랬는데, 나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안주가 좋길래 술 한잔하고 같이 자자고 했더니, 나를 벌레 보듯이 하면서 ‘치아라’하는데, 열 확 반더라고. (참여자 2)

내가 원할 때 만 부부관계를 했는데, 못 보던 콘돔을 보게 됐고, 그것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알게 됐어요. (참여자 5)

첫애 낳고 한 기억이 없는데, 그냥 그렇지 하다가도 열 반대요. (참여자 6)

나는 맨날 해야 되는데, 이리 내빼고, 저리 내빼잖아. 그래도 확 했는데, 도망가길래, 급하게 잡은 게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졌지. (참여자 7)

한동안 부부관계를 거부 하길래 피곤한가 넘겼는데, 와이프 핸드폰을 보다가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됐죠. (참여자 10)

(4) 나와 나의 주변인을 무시한다는

연구참여자들은 일관되게 나를 화나게 해서 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럼 화나게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들여보면, 다른 가족을 때리거나, 맛있는 거 혼자 먹고 나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 일하고 왔는데, 밥을 차려 주지 않는 거, 친구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한다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나보다라는 따듯한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됐을까, 잘했다고 하는 칭찬의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본 적 없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고, 운 좋으면 아버지 눈에 띄지 않아 안 맞을 수도 있기도 했지만, 급하게 일하고 와서 식구들 모였다고 엄마 생일인데도 자신이 차리고 있는데, 그런 엄마를 발로 차고, 오랜만에 집에 와서 쉬고 있는 누나 방에 들어가서 누나를 때리거나 하면 주먹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내 방에 오는 발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엄청 뛰어요. 그래서 나도 싸우고 아버지를 때린 거 같아요. (참여자 1)

지인이 해외여행 다녀와서 선물을 챙겨준다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방에 앉아 있는 거는 좋다 이거지, 근데, 지인이 그래도 ‘형수요’ 하면서

‘이거 받으소’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니 내가 열을 받겠나 안 받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전기 파리채 들고 뛰어 들어갔지. (참여자 2)

참 치사하지만, 삼계탕 집에 갔는데, 숟가락도 지 거만 놓고, 지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싹 가져가더니 다 먹고 그릇을 치우대요. (참여자 3)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고, 와이프는 00이랑 집에 있으면서 쉬었잖아요. 그럼, 저녁은 차려 놓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퇴근해서 왔으면, 그때라도 밥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여자 4)

밥 차려 놓는 거는 기대도 안 해요. 낮에 본인이 먹은 거 치우거나, 본인이 자고 일어난 이불이라도 정리하던지, 도대체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아는 지, 퇴근할 때쯤이면 전화해서 뭐 사와라 해서 같이 먹고 나면 또 치우는 거는 내가 해야 되고. (참여자 6)

옆집 사장들하고는 웃으면서 대답하면서 내한테는 웃으면서 말하는 꼴을 못 봤다. (참여자 7)

다른 집 애들처럼 ‘아빠아빠’ 하면서 말도 하고, 옆에 와서 곰살맞게 지가 필요한 거 얘기하면 내가 안 들어주겠어요. 당연한 듯이 성질내면서 해달라고 하면 내가 지 중도 아니고, 해주겠냐고요. (참여자 8)

어머니가 ‘니 산다고 고생하재’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거 같아요.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어머니도 저를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생각해줬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참여자 9)

다시는 안 만난다 잘 살아보자고 해놓고 몰래 연락하고 만나고 했대요. 그게 나를 무시하고, 등신으로 만든 거지. 안 그래요. (참여자 10)

2) 공간성(Lived space)_가정

양은숙·이동훈(2020)은 공간성은 개인이 경험하고 생활했던 공간적 의미를 통해 경험의 가치와 의의를 구성한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일상 세계였던 가정,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가족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경험한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직접적

으로 행한 공간적 의미가 있다.

(1) 집은 내가 왕이다

누구에게나 집이라는 공간은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다. 하지만, 박소현(2013)은 남성의 힘에 의해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원리가 작동되는 곳으로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는 가정폭력을 촉발시키는 원인 중 음주, 생활 방식,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문제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남성의 가부장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한다.

전옥희(2012)은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에서 힘이 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남성다움으로 너그럽게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폭력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도 그렇지만, 마누라도 없는 집에서 커서 도움 받을 때도 없고, 내가 죽도록 일했으니깐 이만큼이라도 해서 애 둘 다 대학 보내고, 80평 가게 내거 해서 먹고 사는 거지, 내 혼자 다 했지. 저거들이 뭐 했는데. (참여자 3)

여친도 친정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나도 변변한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형한테 겨우 돈을 얻어서 월세로 집도 내가 집도 구하고 필요한 가전제품도 내가 사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4)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옷도 못 입고 사나. 내가 돈 주는데, 내 말 들어야지. 집에서 '술 먹지 마라 소리' 하지마라 했다. (참여자 7)

큰 애가 어느 순간 말도 안 듣고, 연예인 된다고 오디션 받으러 다니고 하대요. 오디션 받는 데가 00이고 이러니, 차비도 많이 들고 내 돈 받아쓰기 싫으면 나가라. (참여자 8)

(2) 집이 지옥

연구참여자들은 집이 어떤 공간이냐는 질문에 바로 지옥이라는 말을 꺼냈다. TV나 드라마에서는 집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부모님이 웃으면 반겨주는 곳이지만, 내

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나 현재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 이혼과 별거로 혼자 살고 있는 집조차 언제나 춥고, 어둡고,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는 곳, 언제 맞을지 몰라 신경을 곤두세운 채 눈치를 살펴야 되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고,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진술하였다.

아버지 눈에 띄면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때리려고 하고, 늘 술만 먹는 아버지가 보기 싫기도 하고 해서 집에 있으면 늘 맞을까 봐 신경 쓰는 것도 싫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는 0000가 24시간 영업하니깐 거기에서 었드려 자기도 했어요. (참여자 1)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더라고. 하루 한 끼라도 먹자 싶어서 집을 나왔지.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려고. (참여자 3)

자식은 집도 싫고, 부모도 싫다고 지 방에서 뛰어내렸는데, 내가 이 집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집에 있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참여자 8)

다른 집들은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서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대. 근데 우리집은 다 지 방에서 만나오대. 그래서 그런가 나도 내방에서 밥 먹고 하니깐, 늘 혼자 있는 거나 똑같지. 나는 내 방에서 내 혼자 있지. (참여자 7)

학원 망하고 빚잔치하고, 그 전에 이혼하면서 위자료 다 주고. 그렇다 보니,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는데, 돈이 있나요. 돈만 있으면, 월셋방이라도 얻어서 나갔을 건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어요. (참여자 9)

집에 있으면 와이프 바람 난 거 생각나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참여자 10)

(3) 가정이 무엇인지 모른다

연구참여자 10명 중 8명은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분명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철이 들면서 나의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았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어보지 못했고, 그나마 술이라도 안 먹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어린 시절 안전한 공간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자신이 원하

는 삶을 계획해야 하는 시기를 통째로 상실한 참여자들이다.

다른 친구들처럼 맞더라도 왜 맞는지 알고라도 맞았으면 이렇게 분하지도 않을 거 같아요. (참여자 1)

조실부모하고 돈 벌러 삼촌 따라 OO으로 내려와서 공장에서 컸는데, 내가 뭘 알겠나. (참여자 2)

아버지는 배가 불룩해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간암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엄마는 몸 반쪽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 돈도 없고, 집은 가난하고, 형제는 많고, 나는 막내고. 내가 어디서 죽어도 몰랐을 걸. (참여자 3)

엄마랑 둘이서만 살았는데, 아빠가 한 번씩 집에 왔다가 용돈만 주고 갔어요. 그때는 아빠는 늘 다른 집에 가는 사람인 줄 알았고, 부모님이 위장 이혼한 걸 엄마가 돌아가신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이랑 살다가 형이 형수랑 사는데, 내가 눈치 보여서 pc방 저녁 알바하면서 살다가 군대 갔어요. (참여자 4)

아버지, 엄마랑 제대로 이야기 한 번 한 기억이 없네요. (참여자 6)

아버지는 맨날 다른 여자 데리고 집에 왔고, 엄마는 늘 부엌에서 울고만 있어서 밥 달라는 말 한번 못 했네. (참여자 7)

할머니가 엄마였는데,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집에서 할아버지 밥 차리면서 살았어요. (참여자 9)

지금 기억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아빠는 어디 갔는데, 돌아가셨다고 했고, 엄마는 맨날 공장에 가서 새벽에 들어와서 얼굴을 못 봤어요. 형은 늘 나갔고, 누나 2명이랑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컸어요. 밥은 한 끼 제대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참여자 10)

3) 시간성(Lived time)_내면아이

현상학적 연구에서 시간성(Lived time)은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고유한 내면아이와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요인 등으로 인한 상처받은 내면아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고유한 성격 기질이 형성되면서 연구참여자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시간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에 당연히 경험해야 할 안전한 가정환경, 신뢰, 사랑,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연구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원자료를 전사한 후 이들이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어린 시절 감당해야 했던 역할에 대한 의미단위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성장한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한 채 가족 구성원 각자는 진정한 자아는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하고 상호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수행한 역할은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 안에서 이들이 견딜 수 있게 한 생존방식이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나의 역할에 관련된 연관 단어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 ‘말 없는 아이’, ‘책임감이 강한 아이’, ‘엄마의 기쁨’, ‘착한 아이’, ‘돈 내주는 사람’, ‘가족의 희생자’, ‘눈치 보는 아이’ 등이 있다. 이 역할 자체가 자신의 방어기제로 기능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 신화를 공유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진정한 자아는 무의식이라는 가족 최면에 아주 오랫동안 매몰되어 자신이 하는 역할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속한 가족 체계 안에서 나의 역할을 [그림 3]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림 3] 나의 역할



(1) 강하고 싶은 나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맞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다고 한다. 슈퍼맨이 되거나, 투명 인간이 되면 맞지 않을까 했다고 진술하였다. 자신들이 맞고 있을 때 나를 도와주거나 신고를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울면서 망설이는 가족을 볼 때, 이들과 살면서 나는 혼자 스스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하도 허리띠로 하도 맞아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 112에 신고해 달고 엄마한테 소리 질렀지만, 경찰 오면 다 죽인다는 아버지의 말에 울기만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참여자 1)

천하장사처럼 힘이 세져서 엄마가 때리는 나무작대기를 한방에 부러뜨리겠다고 했지. (참여자 3)

형이 뭐만 하면 때리니깐 만화에 나오는 투명 인간 비닐 옷을 입고 사라지고 싶었어요. (참여자 4)

눈뜨면 맞고, 밥도 안 주고, 옆집에 보니 밥도 잘 먹고, 머슴도 있는데, 그 집 종으로 태어나지 왜 이 집에 태어났나 싫대. 그때 소원은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나서 종도 부리고 살다 생각했지. (참여자 7)

공부 잘하는 어른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라면 박스로 한 박스 주고 큰소리치고 싶었어요. (참여자 9)

(2)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돈을 벌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있고, 돈을 벌어 오는 사람은 없고, 육성회비 조차 내지 못해 학교에 갔다가 산으로 도망을 친 경험도 있다고 했다. 이런 형편에 엄마는 아버지에게 맞거나, 맞지 않기 위해 옆집으로 피하거나, 일을 하러 갔거나, 장애인이거나 해서 제대로 된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참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다

고 진술하고 있다.

조실부모하고 삼촌 따라 000으로 왔지.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지. 나는 축을 고생을 해서 이제는 살만하잖아. 내가 고생했다고 우린 애들까지 고생시킬 수 있나. 애들한테 집 하나씩은 해 줘야지 (참여자 2)

아버지라는 작자는 술만 먹고 살림 부수는 사람이고. 우짜는교. 살라면 나뭇짐 해서 식은 밥 얻어 가지고 가서 동생들이랑 나눠 먹고 그랬지. (참여자 3)

엄마가 간호사로 교대근무하고 새벽에 오면 나는 밥 해놓고 학교 가고 했어요. (참여자 4)

아버지는 돈도 안 벌고, 맨날 여자 끼고 집에 오니, 내가 거지동냥 하듯이 옆 집에서 돈 받아오고 그랬다. (참여자 7)

내가 공부를 잘 했거든요. 엄마는 나를 안 키웠지만, 고등학교 가면서 과외 알바 해서 엄마한테 생활비 주고 했지요. (참여자 9)

제가 돈을 막 번거는 아닌데, 그래도 누나들이나 엄마가 필요하거는 다 해주려고 노력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참여자 10)

(3) 고독한 나

연구참여자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표현을 많이 했다. 물론 가해자로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쫓겨나고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처벌을 받으려고 대기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도 전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그때 행복했지 하는 시간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누구 하나 따뜻하게 밥 먹었냐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옷을 잘 빨아서 입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도 천둥벌거숭이처럼 혼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외로운 것은 똑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자식들도 내가 오라고 하지 않으면, 곁에 오지도 않았고, 일하고 와도 힘들었지 하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밥 먹을 때조차 먼저 먹어보라는 챙겨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가정에서 참여자들은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 있는 섬과 같은 존재로 자신들을 표현하였다.

이 집에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저런 아버지에. 내가 맞고 있어도 말려주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엄마에 누나는 지도 맞으니, 내가 맞아도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 보면, 내가 그냥 연기처럼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참여자 1)

나는 죽을 고생 하면서 고향 떠나 공장부터 안 해본 거 없이 여기까지 왔고, 고생고생해서 그래도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만해지고, 자식들은 그래도 00에 있는 대학 다 보냈고. 학비에 생활비에 다 보내주고. 하나는 대학교수에. 하나는 00광고회사 다니면 뭐 하노. 다 저거가 잘나서 이래 된 줄 알지. (참여자 2)

내가 선생님이 봐서 남자인데도 키가 작지요. 내가 클 때 밥도 제때 못 먹고, 마을에 동네 소 안 맥이면 밥을 못 얻어먹으니, 클 수가 있었겠는고. 집에 어느 구석에서 자고 있는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참여자 3)

엄마랑 둘만 살았고, 엄마가 교대 근무하는 직업이다 보니, 내가 학교 갈 때 엄마가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나마 학교 마치고 얼른 뛰어서 집에 오면 한, 두 시간 엄마 보는 게 다였고. 엄마도 피곤하고 하니깐,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나마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는 날에는 엄마 얼굴이라도 한참 봤던 거 같아요. (참여자 4)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빠가 나를 먼저 찾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엄마도 나를 바쁘고, 저도 안전한 편이기도 했고, 퇴근해서 인사하고 나면 어. 그래하면서 안아 줬던 거 같아요. 나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았는데, 아빠는 내가 싫었는지, 내가 아빠한테 일부러 안 가면 아빠는 날 찾지 않았어요. (참여자 5)

원래 성격도 조용했고, 동생하고 크게 싸울 일도 없고. 아버지는 말도 없는 사람이고 해서 그런지, 나도 집에 있으면 말도 없고, 그냥 컴퓨터 하고 친구하고 pc방 가고 한 게 다예요. 운동도 좋아하지도 않고 하니, 크게 움직일 일도 없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랐을걸요. (참여자 6)

나도 내가 승질이 지랄 같다는 거는 알지.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안 그렇나. 내가 지랄을 안 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말하면 듣는지 안 듣는지, 대꾸가 없어. 그러면 소리 질러서 부르면, 다 어디 갔다네. 방에 TV소리 나는 거 들었는데, 없다고 하대. 내 옆에는 아무도 없지. (참여자 7)

형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남보다 못 한 거 같대요. 직장 동료는 힘들지 하는

말이라도 하는데, 이혼한다. 애들 못 키운다. 애들 애 엄마가 뺏어간다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형제들 있으면 뭐 합니까. 다 지밖에 모르는데. (참여자 9)

그래도 클 때는 누나들이 밥도 챙겨주고, 다 해줬던 거 같은데, 다들 결혼하고 자기 가정이 있다 보니, 다들 사는 게 바쁘고 힘든 건지. 내가 와이프 바람나서 힘들다고 하니,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바람피우는 줄 알았대요. 이런 저런 일을 다 겪다 보니, 다들 이래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참여자 10)

(4) 상처받은 내면아이

Erikson(1964)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각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족되어야 했던 지극히 정상적이며 의존적이고 발전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을 때, 많은 이들은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품은 채로 어른이 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보살핌과 교육, 정서적 안정,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낸 참여자들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살펴 보면, 상호의존중은 참여자 2, 4, 5, 7, 9, 10 총 6명, 공격적 행동은 참여자 1, 6, 7, 9 총 4명,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참여자 6, 8, 10 총 3명, 신뢰의 문제는 참여자 4, 6, 8, 10 총 4명,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은 참여자 1, 2, 3, 7 총 4명, 마술적 믿음은 참여자 2, 3, 4, 5, 6, 8, 10 총 7명, 친밀감 장애는 참여자 1, 3, 4, 5, 6, 10 총 6명, 무질서한 행동은 참여자 2, 5, 9 총 3명,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은 참여자 2, 3, 5, 7, 9 총 5명, 사고의 왜곡은 참여자 1, 3, 7, 8 총 4명, 공허감(무관심, 우울)은 참여자 1, 3, 4, 5, 9 총 5명이다. 즉, 가장 많은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마술적 믿음(7명), 친밀감 장애(6명), 상호 의존중(6명),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5명), 공허감(5명), 공격적 행동(4명), 신뢰의 문제(4명),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4명), 사고의 왜곡(4명), 자기애성 성격장애(3명), 무질서한 행동(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7명이 진술한 마술적 믿음을 선택한 참여자 2, 3, 4, 5, 6, 8, 10은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모두 행복해진다거나 성인이 되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는 등 주 양육자의 역기능적인 양육을 받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속한 가족 체계 안에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그림 4]와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다른 사장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 해. 안 해보기도 했지만,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럼 기분 더럽거든. 그래서 나는 남들한테 부탁을 못해. 근데, 그런 거를 집사람이 잘해. (참여자 7)

내가 클 때는 할머니 집에서 혼자 컸지만, 이혼하고 애들도 애 엄마가 데리고 가버리고 나면 어머니가 내가 불쌍해서 챙겨줄지 알았는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욕만 하고. (참여자 9)

나는 형님이 힘들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줬는데, 내가 경찰조사 받고 법원 다니면서 힘들 때 힘들다고 하니깐 전화도 안 받대요. (참여자 10)

② 공격적 행동(offender Behaviors)

공격적인 행동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주요 요인이며, 어린 시절에 경험한 폭력과 학대는 해결되지 않는 슬픔의 결과이다. 어린 시절 무기력하게 학대를 당한 연구참여자는 성장하면서 가정폭력 가해를 하는 행위자가 되어 버렸다.

Bruno Bettelheim(1980)정신과 의사는 어린 시절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이는 공격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을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린이집 다닐 때도 맞았으니, 아마 더 어릴 때도 맞았을 거예요. (참여자 1)

평상시는 말도 안 하고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말대꾸 한다고 많이 맞았던 거 같아요. (참여자 6)

나도 참 그렇지만, 한 번씩 집사람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것만 봐도 화가 치밀 때가 있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이유도 없고, 집사람만 보면 불쑥 화가 올라 오대. (참여자 7)

장남이라고 엄마가 형 챙겨 주는 거 보면 욕했죠. 그렇다고 장남이라고 엄마한테 저보다 더 잘하는 것도 없고. 사업한다고 집에 돈 다 가져가고. 그래도 엄마는 장남이 좋다고 하대요. (참여자 9)

③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Disorders)

인간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서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정한 자신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이를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애정과 관심에 대한 공허함으로 대인관계에 실패하거나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기도 한다.

저는 크게 남편한테 해달라고 한 적 없는 거 같은데, 한 번씩 싸울 때 남편이 하는 말이 ‘너는 쥐도 쥐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참여자 5)

형제간이 많으니, 공부라도 잘 해야 부모님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니,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했죠. 그 당시에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저처럼 공부하는 애들 없었어요. (참여자 8)

어릴 때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아버지는 사업 망해서 도망 다니고 할 때 누나들이 엄마처럼 챙겨주고, 놀아주고 했죠. 그래서 누나 닮은 사람만 보면 그냥 좋았고,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생각은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다 싶어요. (참여자 10)

④ 신뢰의 문제(Trust Issues)

어린 시절 주 양육자가 신뢰할 수 없고, 비밀관된 양육태도를 가진다면, 아동은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진 채 성장한다. 이는 신뢰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관심과 집착, 보호와 통제, 친밀한 것과 맹목적인 것을 혼동하게 된다. 신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고,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곳이면, 자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엄마랑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친척들이 자주 오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깐, 세상에 혼자 버려진 거 같고, 형도 있었지만, 늘 밖으로 돌아다녀 형은 손님이었죠. 엄마 외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죠. (참여자 4)

연애를 3번 정도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비싼 코트 그냥 사고,

여자 키가 저보다 크고, 어쨌든, 한국여자들이 기가 세잖아요. 그래도 다문화 여성들은 그렇게 앓을 거 같았어요. 외국 사람과 결혼한 큰 이유이기도 해요. (참여자 6)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직장에 다닐 때는 돈 벌어서 부모님 생활비 한번 빠진 적 없이 드렸는데도, 내가 하는 거는 ‘응, 그래’ 하면 끝났어요. (참여자 8)

참 어이가 없는 게 와이프랑 싸우면서 왜 바람 뺐냐고 하니깐, 내가 사사건건 간섭해서 그렇다네요. 간섭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못합니다. 와이프가 집안일이나 직장 일이나 좀 어설프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도움 되는 말을 했는데, 그게 바람피운 이유라고 하니, 참 할 말이 없네요. (참여자 10)

⑤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Acting Out/Acting In Behaviors)

표출된 행동의 내면적 행동(Acting Out/Acting In Behaviors)이란 분노, 두려움, 슬픔 등의 감정이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방식대로 자신에게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손등을 계속 뜯었어요. 친구가 손을 치면서 그만 좀 해라 하는데, 왜 자꾸 뜯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1)

집사람이 마당 치우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냥 자전거 타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참여자 2)

가게 문 여는 시간보다 3~4시간은 일찍 와야 되는데, 지 할 거 다하고 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시간이 다 되는데, 울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면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서 미치는 거지. (참여자 3)

집사람이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애들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보이거나 하면, 울화가 치밀지. (참여자 7)

⑥ 마술적인 믿음(Magical Beliefs)

마술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도구나 손재주로 사람의 눈을 속여 신기하고 이상한 일을 하여 보이는 재주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괴이한 일을 나타내 보이는 술법이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는 역기능적인 양육자의 비일관적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면서 이런 마술적인 생각을 더 강하게 한다. 열심히만 하면 다 될 거야 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아이처럼 마술처럼 완벽한 행복을 믿거나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할 만큼 나는 성실하고 완벽한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네. (참여자 2)

내 말만 들으면 우리 아들도 00사장 집 아들처럼 000의원 할 수 있는데. (참여자 3)

여자 친구를 만나면 얼마 생각도 안 나고,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 얼마처럼 잘해 줄 거라 생각했고, 행복해질 줄 알았죠. (참여자 4)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다정하지 않아서 외로웠는데, 남편은 연애할 때 참 자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만 신랑이 다해 주는 줄 알았어요. (참여자 5)

한국문화를 모르면 한국 사람들처럼 행동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아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참여자 6)

엄마는 내가 성적표를 잘 받아오면 웃어주고, 칭찬해 주시길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참여자 8)

주변 친구들과 다르게 나는 우리 가정을 1번으로 생각했고, 누나들을 봐도 그렇지, 나만 잘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참여자 10)

⑦ 친밀감 장애(Intimacy Dysfunctions)

연구참여자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자신이 속한 친밀한 가족, 친구 등의 집단을 스스로의 결정으로 떠나지 못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의식이 없고,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중학교 때 사귀 친구 2~3명이 다예요. 여자 친구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것이 힘들어요. (참여자 1)

우리 집에서 배달하는 직원이 힘들다고 하면 20만원씩, 30만원씩 빌려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는데, 나는 내가 돈이 없으면 단돈 천원이라도 빌려달라고 말을 못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 해. (참여자 3)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한테는 진짜 말하기 싫고, 친구도 없으니 그래요. (참여자 4)

밤새 친구들과 술은 먹고, 떠들고, 잡다한 얘기는 하지만, 진짜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친구가 없는 거 같아요. 내가 현재 남편과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를 못하겠어요. (참여자 5)

직장에서 힘들거나 했을 때 집에 와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와이프는 게임 한다고 방에 들어가고,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면, 짜증내고, 그렇다고 술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든 직장이든 내가 말해봐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여자 6)

죽기 며칠 전에 작은 애를 나무라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이렇게 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집사람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기는 해요. 작은 애가 왜 죽었는지 정말 알고 싶은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집사람이 나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됐다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서 못 물어봤어요. (참여자 9)

⑧ 무질서한 행동(Nondisciplined Behaviors)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델이 되어 주지 못했을 때, 성인아이는 무질서한 행동(Nondisciplined Behaviors)과 지나치게 규율적인 모습 사이에서 방황한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한 번 와 보면 놀라서 자빠질걸. 나는 냉장고에 반찬통이

크기가 안 맞으면 다 버리고, 같은 통 사서 정리하지. 우리 마누라는 이런 거 못한다. (참여자 2)

어릴 때부터 내 방 정리를 못 했어요. 책상이나 침대나 지금 생각하면 바퀴벌레랑 같이 살았을 같아요. 지금은 그나마 애기 키우면서 청소도 하지만, 신랑한테 듣는 소리가 집 좀 치우고 나가자 해요. 정리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고 힘든 거 같아요. (참여자 5)

교직 생활을 하면서 주변 동료 교사나 학생들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운전을 하거나 하면 다른 차가 끼어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욕을 진짜 잘하는 걸 알았어요.. (참여자 9)

⑨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Addictive/compulsive Behaviors)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이다. 중독은 삶에 위협한 결과와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을 위한 감정적 대체물이면서 병리적인 관계이다. 알코올, 마약, 음식 등의 섭식 중독은 가장 극적으로 기분 전환을 가져온다. 그 외 운동중독, 인지중독, 감정중독, 쇼핑중독 등을 들 수 있다.

은퇴하고 회사도 안 가고 하니, 집사람 눈치가 안 보이는 거는 거짓말이고. 일 하러 잠깐씩 나가는 날은 집에 있어도 괜찮은데,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지.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자전거를 4~5시간 타러 나가죠. (참여자 2)

가게 마치고 가게 불 하나만 켜놓고, 소주 한 병 꺼내놓으면 그때부터 내 세상이지. 그렇게 먹으면 한 병이 두 병 되고, 세 병 되고. 그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죠. (참여자 3)

신랑이 퇴근하면서 뭐 사갈까 하고 전화가 오면, 맥주 사오라고 해요. 신랑이랑 같이 먹을 때도 있고, 먹다 보면 모자라서 더 사러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녁에 맥주 피처는 매일 먹는 거 같아요. (참여자 5)

가게 문 닫고 집에 와서 밥은 못 먹겠고. 내한테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해주는 인간도 없는데, 김치에 소주 한잔해서 먹으면, 코에서 기름 냄새도 짝 없어지고. 이거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노.. (참여자 7)

술이 깨면 애들 생각나고.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애들 안 키워줘서 애들 엄마랑 싸웠던 생각나고. 그나마 술이 들어가면 이런 저런 생각이 안 나니깐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고, 술이 없으면 안 되죠. (참여자 9)

⑩ 사고의 왜곡(Thought Distortions)

어린 시절 아이들이 건강한 양육자에게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된 후 자신이 겪은 고통스런 감정을 피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집중하는 강박적인 완벽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바를 하러 가면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이 시키면서 표정이 굳어지거나,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화가 불쑥 올라와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여자 1)

직장 다닐 때 일 못한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어. (참여자 3)

어릴 때 열 경기를 했는데, 그래서 소아마비가 됐지. 동네에서 내처럼 이런 사람은 나 밖에 없고, 동네 애들은 다 놀리고. 같이 뛰지를 못하니, 같이 놀지도 못하고, 맨날 혼자지. 좀 크고 나서 뭐라도 해야 먹고 사니깐, 기술 배우는 데 가서 악착같이 배웠지. 근데, 그 시절에 누가 잘 가르쳐 주나. 맨날 맞고, 욕 들어 먹고 그랬지, 그래도 악착같이 배웠더니, 처음에는 다리병신이라고 다들 무시했는데, 좀 낫대. (참여자 7)

내가 종교가 없었던 사람인데, 한날 문뜩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 내가 교회를 가면 우리 애가 작은 방에서 아빠하고 나올 거 같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 (참여자 8)

⑪ 공허감(무관심, 우울) (Emptiness (Apathy, Depression))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가슴이 텅 빈 것 같다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공허감은 만성우울로 나타난다. 이 우울감

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아닌 역할에 의한 모습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즉, 진정한 자아를 잃은 만큼 마음에 빈공간이 생기고, 이러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바랬던 욕구, 감정 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공허감은 자신을 패배자로 느끼고, 외롭고,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버림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하면 술 먹고 때리는 사람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알바도 못 가고, 집에 누워있게 되요. (참여자 1)

자식이고, 마누라고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 혼자 뻘 뻘하게 일해서 장사 잘 되는 가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면 다 때려치우고 싶고, 세상 왜 사노 하는 생각 들지요. (참여자 3)

와이프에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나는 더 힘들다 하면서 자기 얘기만 신경질적으로 하면, 엄마라도 살아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나는 친구도 없고, 힘들다고 얘기할 사람도 없는게 느껴지면,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맥이 빠져요. (참여자 4)

결혼하면 남편이 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기가 예쁘기는 한데, 똥 땀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5)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들은 나를 찾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애들한테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참 그렇대요. TV보면 가족들 모여 있고 하는 거 보기 싫어서 TV도 잘 안 봐요. 어머니하고는 맨날 싸우고. 나는 가족도 없고, 좀 더 나이 들면 어디 아무도 없는데, 가서 혼자 죽을 거예요. (참여자 9)

4) 관계성(Lived others)_가족의 역동성

관계성(Lived others)은 개인과 개인 간의 형성, 확장, 갈등, 충돌 등을 통해 체험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공정원, 2018). 연구참여자들이 가족 체계 안에서의 각 시기별 유년시절 형성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의미를 말한다.

건강한 가족의 관계도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속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한 역동이 있다. 하물며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가족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이유 없는 폭력, 주 양육자가 장애를 가져 돌봄을 할 수 없는 환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방임에 놓이거나, 사업이 망해 미성년 자녀들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간 아버지, 이로 인해 경제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의 원치 않은 자녀 방임, 배우자의 외도충격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교도소에 갇히게 되어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먹을 때마다 전쟁

연구참여자는 철이 들면서부터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가족생활주기의 역동적 과정모델에서 살펴보면, 학령 전, 학령기, 아동기 시기로 아동이 가족 구성원과 학교 등의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확장 시키고, 아동의 교육적 발달이 이루어야 할 시기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조차 충족이 안 된 채로 유년 시절의 격동기를 거쳤다고 진술하였다.

내가 구첩반상을 차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은 다들 바빠서 안 먹는다 치고, 새빠지게 일하고 와서 저녁밥은 차려 줘야 되는 거 아니고. 클 때는 조실부모해서 밥도 못 얻어먹었지만, 지금은 돈 벌어줘, 공부 시켜줘, 다 해주는데, 밥 한 끼 차려 주는 게 유세인가. (참여자 2)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디 식당이든 집이든 손가락 한 벌 놔주는 꼴을 못 받지. 지 좋아한다고 반찬 가져가서 먹고,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그릇 치우고. 내가 돈 벌어서 왜 다 주고 있나 싶지. 클 때 동생들 밥 얻어 먹이고 나면, 동생들은 내 말도 잘 들었는데, 자식이고, 마누라고 간에 먼저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없으니, 참. (참여자 3)

(2) 전부 가족 탓

연구참여자들이 학령기를 지나 10대 자녀기와 진수기를 지나면서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지나왔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들면서 가족 구성원의 삶을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그 삶의 모습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진 채 사춘기 시절을 지나게 된다. 부모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일상의 평범한 모습인

양 생활하다가 학교 등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각인이 되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생존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전부 내 탓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맨날 술만 먹고, 돈도 안 벌고, 엄마가 식당 알바해서 가지고 오는 돈으로 살았는데, 툭 하면 때리고, 욕하고, 이러니 나도 커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 말하다가 욕해서 아버지를 때렸어요. (참여자 1)

성격이 다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나고 부터는 성관계도 없고, 그냥 무너만 부부로 살았어요. 어쩌다 애교 아닌 애교도 부리고 해봤는데, 반응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아님. 남편이 무관심 한건가 많이 생각했었어요. (참여자 5)

명절에 아버지는 할머니 집에 가면 명절이 끝날 때 까지 집에 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명절 내내 부엌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몸살 나서 누우면 아버지한테 맞고. 명절이 왜 있는지. 나는 이런 문화가 싫었어요. (참여자 6)

마누라는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가. 클 때 아버지 보니까, 엄마한테 그래 하대. 엄마는 도망도 안 가고 맞고 있고. (참여자 7)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우연히 와이프 핸드폰 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용서를 다 해줬는데도 또 만나는 걸 나한테 들켰죠. 나는 성실하게 가정적인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와이프예요. (참여자 10)

(3) 전부 내 탓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내 탓으로 진술하고 있다.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의 위장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 성인이 되기 전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상실감에 빠졌고, 이를 벗어나고자 군대 있을 때 결혼을 선택한 참여자이다. 이 참여자의 경우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해지고 싶었으나, 결국 가정폭력 가해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내가 엄마를 잘 도와줬으면, 병으로 일찍 안 죽었을까 지금도 생각해요. 엄마

가 교대 근무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해서 병이 생겨 돌아가신 거 같아서 지금도 힘들어요. (참여자 4)

(4)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함

연구참여자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 체계 안에서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또는 위기 갈등의 요인들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을 보호해 주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가족의 적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가족 체계 자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가족의 정서적 유대인 응집성과 적응성이 건강하고 균형이 잡혀 있었다면 가족 체계가 지닌 기능적인 신념, 태도, 가치 등이 쉽게 간과되지 않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성장한 가족 체계에서는 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함으로 인한 가정폭력 가해행위가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빠가 때리면 엄마가 나를 데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나한테 아빠 눈에 띄지 않게 방에 숨으라고 했어요. (참여자 1)

딸이 죽기 며칠 전에 아빠가 뭐 해줬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나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까지 다 보내줬는데,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학교도 못 갔었거든요. 애가 이 소리를 하니,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큰소리 치면서 한 대 때렸는데, 며칠 뒤에 애가 뛰어내렸어요. (참여자 8)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 말씀도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데, 형님은 장남이라고 집에 있고, 나는 할머니 보살피라고 할머니 집에 쫓겨 나다시피 갔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가도 어서 가라고 쫓아내기만 했지요. 이혼은 했어도, 애들 대학갈 때 등록금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연락도 안 됐어요. (참여자 9)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면서 어떠한 성격적 기질과 가족의 역동성 안에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가진 채 성장하여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한 10명의 심층인터뷰를 결과를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정폭력 가해자의 어린 시절 폭력피해의 경험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가정폭력 가해행위의 해석학적 현상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폭력 범죄행위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연구의 선정 기준을 충족한 남 9명, 여 1명으로 최종 1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별동의를 구한 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심층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녹음을 하였고, 연구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전사 자료의 코딩, 해석, 분류 등을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 파랑새 2.0을 활용하여 유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가정폭력 가해자의 어린 시절 폭력피해의 경험은 어떠한가를 사군자 성격 기질, 내면아이의 역할, 상처받은 내면아이, 가족의 역동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군자 성격 기질 중 내향 매화 성격 기질을 가진 참여자 1, 2, 7, 8, 9, 10은 보호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돌출행동을 하지 않으며, 절차를 잘 따르고 주어진 규칙이나 규율에 잘 순응하는 기질이다(김종구, 2013).

참여자 1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무차별적 폭력경험이 있었고, 이런 가정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반항아, 공격자, 가족의 희생자, 화풀이 대상, 말 없는 아이의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 2는 어린 시절 조실부모하여 10대 때 친척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직장 선임들에게 맞으면서 일을 배웠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 돈 내주는 사람, 가족의 희생자, 책임감이 강한 아이, 말 없는 아이의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 7은 어린 시절 뇌성마비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되었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와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걱정거리, 눈치 보는 아이, 대신 혼나주는 사람, 화풀이 대상자, 없는 아이의 역할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참여자 8은 배고픔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방임, 돌봄을 받지 못했고, 항상 어머니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받기 위해 학교에서 인정받아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족의 행복, 모범생, 성취도 높은 아이, 착한 아이, 말 없는 아이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였다. 참여자 9는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고,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였고, 명절 등 어머니를 만날 때에 어머니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의 합격통지서를 보여주기 위해 학교에는 1등을 도맡아 하는 학생이었다. 이에 참여자는 모범생, 책임감 강한 아이, 피해자, 화풀이 대상자, 말 없는 아이의 역할을 자처하며 성장하였다. 참여자 10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을 잃고 비닐하우스에 쫓겨나면서 아버지는 다른 지방으로 도망을 가고, 어머니는 4남매를 키우기 위해 밤낮없이 일을 하는 가운데 가족의 행복, 엄마의 기쁨, 예쁜이, 착한 아이, 귀염둥이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였다.

이런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이들은 내향 매화 성격 기질이 가지는 역기능적인 모습인 불평불만과 잔소리가 많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고치려고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이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자기연민에 빠지는 모습을 가졌으며, 이들의 무의식 속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상호 의존증, 타인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공격적 행동,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빠 빠지게 일을 하거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공부만 하거나 교회를 가면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온다든지, 나만 가정에 성실하게 잘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것이라는 마술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Bradshaw, 2006).

사군자 성격 기질 중 외향 국화 성격 기질을 가진 참여자 3, 5, 6은 감성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감사의 표현을 잘하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며, 타인의 말과 행동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질이다(김종구, 2013).

참여자 3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차려 주는 밥 한번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참여자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 돈 내주는 사람, 애어른, 있으나마나한 아이, 책임감이 강한 아이의 역할로 성장하였다. 참여자 5는 무뚝뚝한 아버지의 무관심과 엄격함이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 어디라도 따라다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참여자는 가족의 행복, 공주, 보호받는 사람, 예쁜이, 우는 아이의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 6은 매일 같이 싸우는 부모님과, 이런 싸움 뒤에는 어머니가 자식들이 보든지 말든지 큰소리를 내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였다. 이에 참여자는 눈치 보는 아이, 모범생, 애어른, 엄마의 기쁨, 말 없는 아이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외향 국화 성격 기질이 가지는 역기능적인 모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희생자가 되거나,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은 척을 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가슴에 품게 되었다. 참여자 3은 아들이 참여자의 말대로만 하면 지인의 아들처럼 000구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마술적 믿음을 가졌고, 참여자 5는 평상시 조용히 지나다가도 담임 선생님께 말대꾸를 심하게 하는 공격적 성향을 보이거나, 자신이 배우자에게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보이고, 참여자 6은 부모님의 부부생활을 보고,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면 부모님과 같은 결혼생활을 할 거 같은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진 신뢰의 문제가 생겼다(Bradshaw, 2006).

사군자 성격 기질 중 내향 대나무 성격 기질을 가진 참여자 4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의문점을 잘 찾아내고,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략을 잘 세우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한다(김정구, 2013).

참여자 4는 어린 시절 기억이 있을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사람은 늘 저녁만 먹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학교를 가게 되면서 좀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늘 그래왔고, 어머니가 교대근무를 하면서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고등학생 때에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이런 가정 형편에서 성장하면서 참여자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 없는 아이, 엄마의 기쁨, 엄마의 친구, 말 없는 아이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의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과정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1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그냥 무방비로 맞았는데, 고등학생 정도 되니 신체도 아버지보다 더 크고 힘도 세지다 보니, 아버지가 술을 먹고 때릴 때 아버지의 팔을 잡고 때리지 못하게 막았다. 성인이 된 후 독립을 하였고, 어머니의 생일날 아버지의 폭력이 발생하였다. 이때는 예전과 달리 참여자가 참지 않고, 아버지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아버지를 밀치게 되었고, 아버지는 머리를 다치게 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참여자 2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가부장적인 가장으로 군림하면서 집안의 규율과 규칙은 참여자 위주로 돌아갔다. 정년퇴직을 하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자주 생겼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와 둘만 지내게 되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폭력을 시작으로 목을 조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던지게 되었고, 최근의 폭력은 배우자가 친척이 왔는데, 나와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 파리채로 배우자의 머리를 쳐서 머리가 깨지는 폭력이 발생하였다.

참여자 3은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폭력이 시작되었으며, 가게를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을 응대하는 의견 차이, 일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 등으로 갈등이 시작되어 서로에게 욕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고, 갈등이 고조에 달하면, 가게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칼을 휘둘러 배우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거나 일을 배우는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라면서 칼로 위협하는 폭력을 가했다.

참여자 4는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배우자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서로의 불만을 큰 소리로 싸우면서 이웃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 시작하였다. 퇴근 후 피곤한 상태인데, 밥을 차리지 않는 문제로 계속 싸움이 일어났고, 말로 시작한 싸움이 몸싸움이 되고, 참여자가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참여자 5는 자녀가 3~4살 무렵부터 성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이러던 차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의심을 밝히려는 참여자의 추궁에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참여자가 배우자를 밀치고, 손으로 머리, 뺨 등을 때리면서 배우자가 신고하여 조사받았다.

참여자 6은 결혼 후 아이가 돌쯤인 시기에 배우자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참여자는 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배우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는 아이 옆으로 과일칼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 일로 이혼하여 참여자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자녀의 엄마라는 이유로 다시 사실혼으로 살게 되었고, 이후에는 배우자의 게임중독은 고쳐지지 않아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게임을 못 하게 하려는 참여자와 배우자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와중에 참여자가 주먹으로 배우자의 눈을 때려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어 조사받았다.

참여자 7은 결혼 전에 배우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배우자가 일부종사해야 한다는 의지로 결혼하였다. 참여자는 여자는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종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결혼 초부터 배우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결혼생활 46년 내내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 배우자는 맞고, 지인 집으로 도망가고, 다시 참여자와 함께 살면서 자녀 3명을 키우고, 결혼을 다 시키면서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 배우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오랫동안 경찰 신고만 하고 그때마다 긴급 분리조치 되거나, 쉼터 등에 잠시 기거하면서 지내왔다고 하였다.

참여자 8은 큰딸이 연예인이 되겠다고 한 16살 정도부터 큰딸과 갈등이 생겼고, 참여자가 봤을 때는 공부하기 싫어서 연예인 바람이 든 거 같은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배우자의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였다. 큰딸이 00시로 오디션을 보러 가거나 하면 많은 비용이 들었고, 참여자는 큰딸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반대했지만, 자식이 하고 싶다고 하니, 그냥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큰딸의 행동이 참여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말로 혼을 내다가 손으로 뺨을 때리는 폭력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작은딸은 큰딸만 챙긴다는 불만을 토로했으며, 그러던 차에 작은딸이 자살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큰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큰딸과 의견 다툼이 많이 생겼고, 화가 격해지면서 큰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참여자 9는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10년 정도 하고 난 뒤, 이혼하였다. 그 후 혼자 살았는데, 학원 사업이 망하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거의 매일 저녁 술을 먹었고, 어머니는 술을 먹는 참여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잦은 싸움이 일어났으며, 큰소리로 시작한 것이 욕을 하고, 상을 뒤집게 되고, 주변 물건을 던지게 되면서 폭력은 점점 강해졌다. 그러면서 참여자가 어머니를 밀치고, 어머니가 다치게 되고, 신고 되었다. 참여자의 어머니 가해 횟수와 신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참여자 10은 결혼 8년 차에 자녀가 7살 무렵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의 위기를 겪었으나, 다시 잘 살아보자고 서로 용서하면서 다시 살게 되었다. 그 후 1년 정도 후에 다시 배우자가 전에 외도했던 남자와 다시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되어 싸움이 시작되고, 심하게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셋째, 연구문제 3의 가정폭력 가해행위의 해석학적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Van Manen의 네 가지 실존체를 준거로 하여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한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근본적 본질 4개, 본질적 주제 15개, 하위범주 49개를 도출하였다. 근본적 본질인 신체성에서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됨, 속마음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함,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나와 나의 주변인 무시한다는 본질적 주제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행위라는 근본적 본질이 도출되었다. 근본적 본질인 공간성에서 집은 내가 왕이다, 집이 지옥, 가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본질적 주제를 통해 가정이 가지는 공간성의 근본적 본질이 도출되었다. 근본적 본질인 시간성으로 강하고 싶은 나,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고독한 나,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본질적 주제를 통해 내면아이가 가지는 시간성의 근본적 본질이 도출되었다. 근본적 본질인 관계성으로 먹을 때마다 전쟁, 전부 가족 탓, 전부 내 탓, 부모역할을 하지 못함의 본질적 주제를 통해 가족의 역동성에 대한 근본적 본질이 도출되었다.

2.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의 고통 본질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도구화된 역할수행, 폭력이 일상이 된 참여자의 상처받은 내면아이 자기 분석을 통해 본질적 존재를 밝혀내는 연구과정을 거쳤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어린 시절 폭력피해 경험을 사군자 성격기질과 내면아이, 가족의 역동성, 해석학적 현상을 분석하였다.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가정의 구조적 역동성 안에 가해자가 태어나면서 가진 기질과 성격을 바탕으로 내면아이의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형성된 상처받은 내면아이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을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를 통해 재조명하였다.

사군자 성격 기질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격으로 발달하고, 성격은 한 개인의 대처양식, 태도, 가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념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종구, 2013). 이에 기질은 개인의 성격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Rothbart, 2007).

연구참여자의 사군자 성격 기질은 내향형 7명, 외향형 3명, 매화기질 6명, 국화기질 3명, 대나무 기질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정폭력 가해행위가 특수 폭행으로 가중처벌 대상자는 내향기질 3명, 외향기질 1명으로 나타났다.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평소에 각성수준이 높아 생리적으로 외부자극에 의해 각성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피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 폭력 피해경험에 의해 내향형 연구참여자는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의 역동 안에서 상처받은 내면아이로 인해 폭력이라는 외부자극에 각성되어 가해행위의 비율이 높아졌다(노안영, 강영신, 2003).

매화 기질 참여자 6명, 국화 기질 참여자 3명은 어딜 가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며, 없는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고생하면서 번 돈으로 고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수성가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미래를 위해 끝까지 참고,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연구참여자의 내면아이는 말 없는 아이 6명, 가족의 희생자 3명, 화풀이 대상자 3명, 가족을 돌보는 사람 3명, 책임감이 강한 아이 3명, 엄마의 기쁨 3명, 가족의 행복 3명, 모범생 3명, 돈 내주는 사람 2명, 애어른 2명, 없는 아이 2명, 눈치보는 아이 2명, 예쁜이 2명, 착한 아이 2명으로 나왔다. 어린 시절 경험한 가정폭력 상처는 아동의 무의식인 경험으로 정서적, 심상적인 기억으로 저장되며, 고쳐지지 않는

부정적 경험의 결과로 트라우마가 된다(Allen, 2010).

이에 연구참여자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주 양육자의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 무관심, 방치, 유기, 존재의 부정, 불신, 경직된 가족 통제, 심리정서적 교류 부재 등의 결과로 애착, 정체성, 친밀감 등이 발달할 시기에 긍정적인 발달을 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모두가 현재 자신이 가장 친밀하고 안전한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폭력의 행위를 통해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역기능적인 삶이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통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살고 있다. 이는 유년 시절 이들이 겪은 상처와 고통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연구참여자의 역기능적 가족 체계 안에서 역할은 가족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순응하고, 자신의 감정 따위는 전혀 표현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대우를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생존을 위한 본능적 순응만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자신의 미해결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복되는 도전과 실패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해지고,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회피하는 것에 집중한다(Bradshaw, J., 2002, 2006).

가족 구성원의 역동성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자신이 과거 피해자로서 느끼고 감수했던 삶의 고통을 현재는 본인 스스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어 가족 구성원에게 삶의 고통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은 채 가족 체계 안에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삶의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근본적 본질의 신체성은 인간은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을 가진 신체적 존재이다. 자신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물리적인 신체 즉, 육체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 신체의 존재는 아픔과 아픔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신체적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이유도 없이 매질을 당했고, 힘이 없어 피할 수도 없었으며, 왜 맞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빌었고, 믿었던 양육자는 그 자신조차 가정폭력 피해자였으며, 맞지 않고, 배고프지 않기 위해 가정이라는 친밀한 공간을 도망쳐야 생존을 할 수 있는 고통을 겪었다. 신체적 아픔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으며, 주 양육자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야 했다. 이 결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연구참여자를 무관심하게 대하고, 대화조차 시도하려 하지 않는 등 가족 구성원이 참여자에게 등을 돌린 결과를 보였다.

근본적 본질의 공간성은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친밀한 공간에서 연구참여자

들은 평온한 일상의 공유는 기대하지도 못한 채, 이유도 없이 맞아야 했고, 맞으려 끌려 들어가는 가족 구성원의 울부짖음을 보았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 나가는 장소가 되며,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지금 얘기하면 맞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면서 버텨야 하는 공간이었다. 이로 인해 가정이라는 공간은 강한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는 공간이며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력하며 위축되는 경험을 하는 공간이 되었다. 또한, 이런 불안, 두려움 등으로 인해 가정에 계속 머물다 보면, 미래의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든다. 이런 심리적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를 다시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패턴을 보인다.

근본적 본질의 시간성은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아닌 행위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시간을 포함한다. 어떤 공간에 있던지, 어떤 일을 하든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할 때 실존적인 자아를 만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의 상처받은 경험에 의해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 발목을 묶인 채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경험을 반복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복이다(임진수, 2016). 이는 실존주의적 관점으로 존재의 고통과 불안에 그만큼 깊숙이 접근해 있다는 의미이다.

근본적 본질의 관계성은 가족 구성원의 역동성 안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하고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뀐다(Maslow, 1962). 이는 본 연구참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 경험을 하였고, 주 양육자가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지닌 채 성장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가 가족 구성원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심도 있게 탐색하였다. 발달단계에 따른 주 양육자의 역기능적인 가정의 역할 속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폭력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을 심도 있게 탐색함으로써 아동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폭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즉,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이들의 타고난 능력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가진 채 성장하여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갈등 해소 방법으로 폭력적인 가해행위를 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3.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폭력 과정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격 기질, 내면아이, 가족의 역동성, 가해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유발하는 현상의 개인별 특성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띄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처분을 결정하기 이전에 개별적인 가정폭력의 원인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기 위해 폭력의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으로 상담현장에 오는 내담자들의 가해행위에 대한 물리적인 법적 처벌에 앞서 이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심리정서를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이라는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은 대물림되고, 이러한 폭력의 대물림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회복의 경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Joseph & Linley, 2006). 이에 대한 노력으로는 트라우마 치료와 상담 등 특화된 전문영역에 대한 치료시스템 구축을 제언한다.

셋째, 가족의 기능이 무너진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현재 사회는 결손가정의 증가, 가정교육의 부재, 이혼율 증가, 노인 부양 문제, 가족의 결속력 약화, 가족의 병리적 현상,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증가로 인한 비인간화와 가족 서로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생존을 위한 장소로 가정해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정혜숙, 2000). 하지만, 가정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인 성과 생식의 기능, 양육과 교육의 기능, 보호의 기능, 휴식의 기능, 생산과 소비의 기능, 오락과 종교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지원(송성자, 2004)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가정폭력 가해자 일방의 진술로 연구가 진행된 점에서 전체 가정폭력의 가해행위를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친밀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가정폭력 가해행위를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인식 과정을 분석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가정폭력의 당사자 모두를 연구하고, 가정폭력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 박경, 김혜련. (2012).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 강미정. (2002).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강양희. (2015). 중년 남성의 가족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DOI : 10.5392/JKCA.2016.16.02.344
- 강학순. (1992).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후기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고찰. 서광사.
- 경찰청. (2017-2020). 경찰백서.
- 경찰청 (2020). 가정폭력통계자료.
- 고기숙, 이금옥. (2010).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被害者學研究**, 18(2), 129-157. <http://www.riss.kr/link?id=A99696473>
- 공정원. (2018). 조선족 들봄종사자의 노인들봄체험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구미래. (2000).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 권미경. (2020). 자녀에 의한 노부모의 학대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권석만. (2015). 현대 성격심리학. 학지사
- 권중돈. (2012). 노인복지론. 학지사.
- 권중돈. (2017). 2018년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매뉴얼. 독거노인 종합지원 센터.
- 권진희. (2011). 정서 인식의 명확성과 정서 표현성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상담 평가연구**, 37-49. <http://www.riss.kr/link?id=A105789057>
- 기쁘다, 성미애. (2022). 가족역동과 상담(제2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경숙. (2018). 탈북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3), 53-94. DOI : 10.23909/KJCC.2018.08.29.3.53
- 김경신. (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UCI I410-ECN-0102-2008-590-001190824

- 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81-103.
UCI I410-ECN-0102-2009-590-009419826
- 김경화. (1985). **아내 학대 영향 변인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규보. (2020). 트라우마 가족 역동에 대한 그리스도 닮음의 실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8(2), 33-76.
UCI I410-ECN-0102-2021-200-001237301
- 김광일. (1987).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조사. **정신건강연구**, 3, 5-8.
<http://www.riss.kr/link?id=A18659260>
- 김광일. (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2, 113-138.
- 김득성, 김수연. (2001).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의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19(1)
<http://www.riss.kr/link?id=A100455409>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가정과 삶의 질연구**, 18(1), 1-16. <http://www.riss.kr/link?id=A100455166>
- 김문정. (2016).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치료방법 연구 : 페어베언의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 김문희. (2017).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김명희. (2000). **아내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와 일반인의 비교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김미애. (2006).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개입 프로그램 효과: 집단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19-546.
UCI : G704-000523.2006.18.3.005
- 김미애. (2008). **가정폭력 유발요인과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서영. (2023).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과 가족역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선주, 김한홍. (2013). 일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대인 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과학회**, 3, 304-313.
UCI : G704-002151.2013.13.3.001

- 김영미. (2007). **John Bradshaw의 상처 받은 내면 아이 치유에 근거한 한국 목회 상담적 적용**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김영애, 이영란. (2008). 가정폭력 행위자의 심리 내적 체계 성장을 위한 Satir 변화모델 집단상담 개발. **상담학연구**, 9(1), 257-276.
DOI : 10.15703/kjc.9.1.200803.257
- 김영일. (2016). **가정폭력의 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예원. (2014).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미술치료 단일사례**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김예정. (2001). **남편의 성장기 폭력 경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 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용중. (202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유경. (2023).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 에 의해 조절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 김인아. (202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가정폭력 가해 과정 경험**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김정숙. (2023). **노인학대 실태 및 위험요인의 변화 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정옥. (1985). 도시부부의 갈등해결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2), 91-110. UCI I410-ECN-0102-2009-590-007001411
- 김정옥, 전형미, 이현혜. (1992).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 및 결합력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 20, 21-44.
- 김정옥, 전형미, 정복희. (1993). 아내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성문제연구**, 21.
UCI I410-ECN-0102-2009-300-007676010
- 김정옥. (1987). 도시부부의 갈등 해결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2), 91-110. UCI I410-ECN-0102-2009-590-007001411
- 김재엽. (1996).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개입 방안 연구: 임상치료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동광**, 93, 19-35.
UCI I410-ECN-0102-2009-330-004320564
- 김재엽, 이서원. (1997). 열등의식과 성 역할 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과 치

- 료 모형에 관한 연구:영세 빈곤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3, 71-93. <http://www.kasw.org>
- 김재엽. (1998).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2), 15-139.
- 김재엽. (2007).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 김재엽, 최권호, 장용언. (2011).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후 가해 남편의 재폭력과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 실태. **피해자학연구**, 19(2), 5-31.
UCI : G704-001605.2011.19.2.009
- 김종구. (2013). **Keirsey 이론과 외향-내향을 활용한 사군자 기질검사개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김준기. (2009). **치유의 심리학: 상처에서 치유까지, 트라우마에 관한 24가지 이야기**. 시그마북스
- 김지연. (2007). 경남지역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기초연구. **경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 1, 15. <http://www.riss.kr/link?id=A101698174>
- 김지영. (2003).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통합모형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진혁. (2013). 패륜범죄의 원인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9(2), 49-69.
UCI : G704-SER000010388.2013.9.2.004
- 김현미. (2023).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김현희. (2007). 가정폭력 수감명령 대상자의 보호 처분경험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S보호관찰소 가정폭력 수감명령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0, 71-105. DOI : 10.16975/kjfs.2007..20.003
- 김형태. (2001).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 김형태. (2003). **상담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 김형태. (2003). **21세기를 위한 상담심리학**. 동문사.
- 김형태. (2004). **결혼, 가족 그리고 인간관계**. 한남대학교출판부.
- 김혜숙. (2020). **가족치료-이론과 기법[3판]**. 학지사
- 김효정. (2021). **뉴스레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희봉. (2006). 사르트르의 폭력론. **폭력에 대한 철학적 성찰** (267-268). 철학과 현실사.
- 남순현. (2000). **가족의 정서 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노순규. (2012).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방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노안영, 강영신. (2003). **성격심리학**. 학지사.
- 대법원. (2016). **2016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마거릿 폴. (2013). **내면아이의 상처 치유하기** (정은아 역). 서울메이트.
- 마틴 하이데거. (1979). **예술의 철학적 해명**. 경문사.
- 문순정. (2009).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문순희. (2008).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치료와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문지은. (2015). **도보여행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 문혜린, 박태영, 서민순, 현일송, 김형범, 김경옥. (2023). 재혼을 앞둔 중년 남성의 섹스리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역동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0(2), 211-247. DOI : 10.16975/kjfs.w.2023.70.2.211
- 박경규. (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인과관계** [박사학위청구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권수. (2003). **가정폭력 가해자 중심 인지행동치료 집단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 박동혁. (2006).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성숙, 박성옥, 손의성. (201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발달자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1), 217. DOI : 10.15703/kjc.16.1.201502.217
- 박세경. (2004). 이혼율 증가와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복지포럼**, 93, 47-64. UCI I410-ECN-0102-2018-300-000098248
- 박수진. (2015). **부부의 원가족 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 박유숙. (2001).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를 중재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은샘. (2023). **부부 갈등의 역기능적 세대 전수에 관한 인형치료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은정. (2014). **성인아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부모역할(AP) 활용 집단상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진수. (2021). **상처입은 내면아이 인형치료를 통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진아. (2016). 청소년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가족치료연구**, 14, 65-80. UCI I410-ECN-0102-2017-330-000382563
- 박창용. (2015). **상처받은 내면아이에 대한 가족관계 이론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창용. (2023). **상처받은 내면아이와 실존주의 상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태영. (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 박태영, 김현경. (2021). **친밀한 가족관계의 회복**. 학지사.
- 박태영, 박소영. (2019). 여성 가정폭력 행위자 가족상담 사례 연구: Bowen 가족치료 모델의 관점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8(1), 183-209.
<http://www.riss.kr/link?id=A106172655>
- 박현숙. (2019). 가정폭력 발생원인과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8), 611-620. DOI : 10.35873/ajmahs.2019.9.8.054
- 박희수. (2018). **가정폭력 범주의 처리절차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배화옥. (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 **아동과 권리**, 14(2), 193-217
- 배영운, 문혜린, 최춘화, 박태영. (2022). 도박중독 발생에 영향을 미친 가족 역동에 관한 연구 -가족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9(1), 67-101. DOI : 10.16975/kjfs.69.1.3
- 법무부. (2018). **2017년도 법무연감**.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 법무부. (2023).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 석미진, 정민자. (2023).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집 탈출 과정에 대한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분석: 보호시설 및 단기 쉼터 이용자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9(8), 211-231.
DOI : 10.47116/apjcri.2023.08.17
- 손현주. (1997).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심리적 특성 연구: Satir가족치료 모델의 의사 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송미경. (2004). **알코올 의존환자의 분노유발요인과 분노처리과정에 대한 체험분석**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성자. (2002).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 송아영. (2007). **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 참여 가해자의 변화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송영자. (1986). **부부간의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슬라보예 지젝. (2011). **폭력이란 무엇인가_폭력에 대한 6가지 뼈뚫한 성찰** (이현우, 김희진, 정일권 역). 난장이.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안재진, 강상경, 김혜란, 신혜령, 유조안, 이봉주, 이은주, 황옥경.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양은숙, 이동훈. (2020). 말기 암 환자 가족 보호자의 호스피스 돌봄 경험에 대한 연구: Van-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1-32. DOI : 10.23844/kjcp.2020.02.32.1.1
- 양혜원, 김희수. (2009).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쉼터 입소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6, 123-158.
DOI : 10.16975/kjfs.2009..26.005
- 여인동. (2023). **복합외상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여성가족부. (2022). **여성폭력통계**.
- 여성가족부. (2023). **여성·아동권익진사업 운영지침**.
- 오영범, 이현철, 정상원. (2016). **질적자료분석: 파랑새 2.0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프레스.
- 오제은. (2009). **자기사랑노트**. 수이북스
- 오제은. (2009). 내면아이 치료와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재구성 경험의 해석학적 연구: 실존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 **상담학연구**, 10(3), 1305-1325.
DOI : 10.15703/kjc.10.3.200909.1305
- 오제은. (2011). 첫 아이 출산 후 남편이 경험한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8), 73-83. UCI : G704-000012.2011.49.8.006
- 유덕순. (2001). 아내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유명화. (2020).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김영사.
- 유순희. (2012).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유옥. (2017). **위기상담**. 정민사.
- 윤경자, 최규련. (2005). 부부폭력 가해자의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 5(1), 187-208. (원문 출판년도: 1999).
- 윤상영. (2013). **아동기 학대 경험 및 부부폭력 노출 경험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 회복 탄력성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석민. (2010).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상담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 이경자. (2016).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이금옥. (2009).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행동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 이남인. (2021). **현상학과 질적 연구**(초판 6쇄). 한길사.
- 이남인. (2022). **현상학과 해석학**(초판 15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동임. (2011). 가정폭력과 효. **효학연구**, 0(14), 47-71.
UCI : G704-SER000010223.2011..14.002
- 이무석. (2003).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12). 이유.
-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 이상호. (201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의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 이선옥. (2016). 매란국죽 사군자(四君子) 이야기 -사군자란 무엇인가. **오늘의 가사문학**, 10, 189-199. <http://www.riss.kr/link?id=A102652892>
- 이선옥. (2005). **선비의 벗 사군자**. 보림.
- 이선옥. (2011). **사군자, 매란국죽으로 피어난 선비의 마음**. 돌베개.
- 이서원, 조성상. (2005). 폭력목격경험 및 폭력 허용도가 아내 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제주도 노인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3, 111-131. <http://www.riss.kr/link?id=A103540429>
- 이수진. (2014). 가정폭력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제언. **법학논총**, 21(2), 45.
UCI : G704-SER000000827.2014.21.2.009
- 이영하. (2016). **인형치료의 동물상징체계 해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세

대학교 대학원]

- 이주연. (1996).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또래 수용과 인성특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준용. (2007). 수상: 사군자.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전기전자재료**, 20(1), 64-65.
- 이지민. (2013). 기혼여성의 원가족 경험의 유형화와 가족 건강성과의 관계- 가족분화와 가족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1(2).
UCI : G704-001335.2012.21.2.004
- 이현미. (2021). **가정폭력 가해자의 아동 청소년기 가정 내 학대경험에 관한 상담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진수. (2016). **전이와 반복**. 파워북.
- 장상. (2013).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사군자의 상징 의미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장성화, 구승신, 이주연. (2013). 대학생의 부모양육 태도 정신건강이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DOI : 10.5392/JKCA.2013.13.12.797
- 장수미, 김주현. (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신고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 127-160. UCI : G704-000964.2005..16.001
- 장욱, 김규선, 김영선, 김용환, 김희봉, 이경재, 이정일, 정의채, 최양석 & 황순우. (2006). **폭력에 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 현실사.
- 장정문. (2018). **위기가족 유형들의 생태체계 분석-위기상답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19). **가족치료의 이해**(제3판). 학지사.
- 정미영. (2017).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385-395.
DOI : 10.5392/JKCA.2017.17.09.385
- 정숙영. (1996).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은희. (2014). **중년부부의 주관적 건강상태, 결혼만족도, 자기효능감이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지혜. (2011).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방어기제와 휴대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정희진. (1999). **아내폭력 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숙이. (2018). **가정폭력행위자의 수감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연구** [박사학위 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조두영. (1985). **임상행동과학**. 일조각.
- 조상호. (2017).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내면아이의 치료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조성민. (2008). **음주문제와 가정폭력 공존 문제자의 특성 및 재발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조현미, 임선옥, 엄재정. (2012). 남성의 가정폭력 행위 경험. *Health & Nursing*, 24(2). UCI I410-ECN-0102-2013-510-002317366
- 최경희. (2000).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한 대인관계와 정신역동(제7판)**. 이문출판사.
- 최광현. (2019).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키.
- 최광현. (2012). **가족의 두 얼굴**. 부키.
- 최광현. (2012). **가족세우기 치료**. 학지사
- 최광현. (2013). **인형치료 : 트라우마 가족치료에 대한 적용**. 학지사.
- 최선희, 김희수. (2007). 아내폭력요인의 다차원 상호작용 구조. *한국가족복지학회*, 19(4), 77-96. DOI : 10.16975/kjfsw.2007..19.004
- 최연화. (2022).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기분화가 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영진. (2016). **노인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 최용, 황희숙. (2005).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10, 255-273.
- 최인섭, 이성식. (1995).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73289>
- 최장원, 김희진. (2011).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73-103.
UCI : G704-000387.2011.18.1.006
- 최현주. (2003). **위장된 분노의 치유 (3)**. 규장.
- 하숙정. (2021).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규진. (2016). **가정폭력의 현실에 대한 사목적 역할** [석사학위논문,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한인섭. (2019).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 범죄학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한혜순. (2005). **아내폭력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탐색** [박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태희. (2022, 2. 11.). 코로나 장기화에 가정폭력 증가...접근금지 65% 급증.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11000410>.
- 허경호. (2003).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7. <http://www.riss.kr/link?id=A76210199>
- 현혜순. (2004). 아내폭력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탐색. 여성주의 인지행동 접근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19. 79-116. <http://www.riss.kr/link?id=S29828>
- 현혜순. (2005). **아내폭력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탐색** [박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지윤. (2003). **보웬의 가계도를 활용한 부부의 자아분화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 Adams, D. (1988). Treatment models of men who batter: A profeminist analysis. In K. Yllö & M. Bograd (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176-199). Sage Publications, Inc.
- Allen, J. G. (2010). **트라우마의 치유** (권정혜, 김정범, 조용래, 최혜경, 최윤경, 권호인 역). (원저 출판년도: 2005). 학지사.
- Allen, J. G. (2020). **애착외상의 발달과 치료** (이문희, 김수임, 이수림 역). (원저 출판년도: 2013). 박영스토리.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 77-89. <https://doi.org/10.1080/01926189208250878>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2016). **다세대 발달관점의 가족관계**. (정문자, 정현숙, 정혜정, 전영주, 정유진 역). 학지사.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https://doi.org/10.2307/1227918>
- Barlow, M., Thomson, E., Johnson, D., & Minns, A. (2005). Late neurologic and cognitive sequelae of inflicted traumatic brain injury in infancy. *Pediatrics*, 116(2), e174-e185. <https://doi.org/10.1542/peds.2004-2739>
- Bauer, M. (1997). Advocates for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The Wood River Journal*, 3(2), 121-232.

- Becvar, D. S., & Becvar, R. J. (2016). **가족치료:체계론적 통합**(제8판) (정혜정, 이형실, 윤경자, 이동훈 역). (원저 출판년도: 2013). 시그마프레스.
- Bellinger, C. K. (2022). **폭력계보학 [The Genealogy of Violence]** (이상보 역). 카리스 아카데미.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https://doi.org/10.2307/353347>
- Bettelheim, B. (1980). **Surviving and other Essays**. New York: Vintage.
- Bleicher, J. (1980). **Contemporary Hermeneutics: Hermeneutics as Method**. Routledge & Kegan Paul.
- Boss, M. (1957). **The analysis of dreams**. London: Rider & Co.
- Bowen, M. (1978).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orthvale, NY: Aronson, Inc.
- Bowen, M., & Kerr, M. E. (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남순현, 전영주 & 황영훈 역). 학지사.
- Bradshaw, J. (1990).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오제은 역). 학지사.
- Bradshaw, J. (2002). **수치심의 치유** (김홍찬 & 고영주 역). 한국상담심리연구.
- Bradshaw, J. (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오제은 역). 학지사.
- Bradshaw, J. (2006). **가족** (오제은 역). (원저: 1988, 1996). 학지사.
- Bradshaw, J. (2016). **사랑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동섭 역). (원저: 2014). 글샘.
- Browne, A., & Finkelhor, D. (1986). Initial and long-term effects: A review of the research. In *A source book on child sexual abuse* (143-179).
- Brown, R.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 [Imago relationship therapy: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practice]** (오제은 역). (원저 출판년도: 1999). 학지사.
- Burkem, J. G. (2003).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low-income women: Associated individual and contextual risk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 Cappell, C., & Heiner, R. B. (199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135-152.
<https://doi.org/10.1007/BF00978516>
- Carnes, P. (1985). **Out of the shadows**. Irvine, CA: CompCare Publishers.

- Carr, A. (2013). **The handbook of adolescent and clinical psychology: A contextual approach** (2nd ed.). London, UK: Routledge.
- Carter, E., & McGoldrick, M. (1980).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Gardener Press.
- Carter, E., & McGoldrick, M. (1996).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정문자 역). (원저 출판년도: 1989, 제2판). 중앙적성출판사.
- Carter, E., & McGoldrick, M. (2000).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정문자 역). (원저 출판년도: 1989, 제3판). 중앙적성출판사.
- Cermak, T. L., & Brown, S. (1982). Interactional group therapy with the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32*, 375-389.
<https://doi.org/10.1080/00207284.1982.11492060>
- Claiborn, C. D., & Lichtenberg, J. W. (1989). Interactional counsel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3), 355-453.
<https://doi.org/10.1177/0011000089173001>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75-990.
<https://doi.org/10.1001/archpsyc.1993.01820240059008>
- Colaizzi, F. (1973). **Reflection and research in psychology: A phenomenological study of learning**. IA: Kendall Hunt Publishing.
- Colaizzi, P. (1973). **Reflection and research in psychology**. Dubuque: Kendall Hunt.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a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K. H. (1980). Conjugal violence: What 33 men re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6*, 207-212.
<https://doi.org/10.1111/j.1752-0606.1980.tb01307.x>
- Creswell, J. W. (2019).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학지사.
- Dadoun, R. (2006). **폭력, 폭력적 인간에 대하여** (최윤주 역). 동문선 현대 서신.
- Dalton, B. (2001). Batterer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completion. *Journal*

-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2), 1223-1238.
<https://doi.org/10.1177/088626001016012001>
- Deschner, J. P. (1984). The Hitting Habit: Anger Control for Battering Couples. In D. W. Keirse & M. Bate (Eds.), **Please Understand Me II: Character and Temperament Types**. Prometheus Nemesis Book Company.
- Dutton, D. G. (1994). Interventions into the problem of wife assault: Therapeutic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6(4), 281-297.
- Eisner, E. (2001). **The Educational Imagination**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Ellul, J. (2012). **폭력에 맞서** (이창현 역). 대장간.
- Erikson, E. H. (1964).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
- Freud, S. (1997). **정신분석 강의 상, 하** (임홍빈, 홍혜경 역). (원저: 1940). 열린책들.
- Freud, S. (1997a).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박찬부 역). (원저: 1955). 열린책들.
- Freud, S. (1997b). **히스테리 연구** (김미리혜 역). (원저: 1955). 열린책들.
- Freud, S. (2004). **정신분석학 개요** (한승완 역). (원저: 1942). 열린책들.
- Friedman, H., Rohrbaugh, M., & Krakauer, S. (1988). The time-line genogram; highlighting temporal aspects of family relationships. *Family Process*, 27, 293-304.
<https://doi.org/10.1111/j.1545-5300.1988.00293.x>
- Gardner, H., Kornhaber, M., & Wake, W. K. (1995). **Intelligence: Multiple perspectives**. Wadsworth.
- Gavazzi, S. 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ies with adolescents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s*, 42, 463-468. <https://doi.org/10.2307/585349>
- Gelles, R. J. (1987).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 Gelles, R. J. (1972). **The Violent Home: A Stud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Husband and Wives**. Newbury Park, NJ: Sage.
- Gelles, R. J. (1974). **The violent home: A study of physical aggression**

- between husbands and wiv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Gelles, R. J. (1976). Abused wives: Why do they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4), 659-668. <https://doi.org/10.2307/350685>
- Gelles, R. J. (1991). Physical violence, child abuse, and child homicide: A continuum of violence, or distinct behaviors?. *Human Nature*, *2*(1), 59-72. <https://doi.org/10.1007/BF02692181>
- Gelles, R. J. (1993). Alcohol and other drugs are associated with violence – they are not its cause. In Gelles, R. J., & Loseke, D. R.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182-196). Newbury Park, CA: Sage.
- Gelles, R. J. (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3r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 Gelles, R. J., & Edfeldt, A. (1986). Violence towards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10*, 501-510. [https://doi.org/10.1016/0145-2134\(86\)90055-4](https://doi.org/10.1016/0145-2134(86)90055-4)
- Gelles, R. J., Lackner, R., & Wolfner, G. D. (1994). Men who batter: The risk markers. *Violence Update*, *4*(12), 1-2, 4, 10.
- Gelles, R. J., & Straus, M. A.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theoretical integration. In Burr, W., Hill, R., Nye F. I., & Gelles, R. J., & Straus, M. A. (1988). **Intimate violence**. New York: Simon & Schuster.
- Gil, D. C. (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3*, 637-648. <https://doi.org/10.2307/349436>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역).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원저: 1985). 현문사.
- Gadamer, H.-G. (1976). **Hegel's dialectic: Five hermeneutical studies**. (P. C. Smith, Tra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deed, L. F. (2003). **Domestic violence in Trinidad and Tobago: Why women stay in abusive relationships**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Haley, J. (1986). **Uncommon therapy: The psychiatric techniques of Milton H. Erickson, M.D.** New York: W. W. Norton.
- Harville Hendrix, Ph. D., & Helen Lakelly Hunt, Ph. D. (2022). **Getting the**

- Love You Want: A Guide for Couples** (오제은 & 김혜진 역). 학지사.
- Hendrix, H. (2004). **Getting the love you want: 연애할 땐 yes 결혼하면 No가 되는 이유** (서민아 역). (원저: 1990). 프리미엄 북스.
- Herzberger, S. D. (1996). **Violence within the family: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Brown & Benchmark Publishers.
- Heidegger, M. (2008). **Being and Time** (Harper Perennial Modern Thought).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Reprint edition.
- Hotaling, G. T., &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s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https://doi.org/10.1891/0886-6708.1.2.101>
- Jacobson, N. S., & Gottman, J. M. (1998). **When men batter women**. Simon & Schuster.
- Johnson, M. P. (1995). Patriarchal terrorism and common couple violence: Two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283-294. <https://doi.org/10.2307/353683>
- Jung, C. G. (197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shani, J. H., & Allan, W. D. (2005).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제3판)** (조미숙 역). 21세기사.
- Keirse, D. W. (1999). **Please Understand Me II: Temperament, Character, Intelligence**. Del Mar, California: Prometheus Nemesis Book Company.
-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8th ed.). (Boston: The Free Press), 464.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London: W. W. Norton & Company.
- Kuehl, B. P. (1995). The solution-oriented genogram: a collaborative approa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3), 239-250. <https://doi.org/10.1111/j.1752-0606.1995.tb00159.x>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 Livingston, D. (2002). **가정폭력 남성 치유모델 [Healing Model for Male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최종수 역). 한국기독교.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371-410.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48.1.371>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2), 242-259.
<https://doi.org/10.1037/0003-066X.53.2.242>
- Martin, B. Y. (1986). The historic roots of domestic violence. In Sonkin D.J. (Ed.).
- Maslow, A. (1962).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Princeton, N.J.: D. Van Nostrand.
- Mason, J. (2004).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역). 나남. (원서: 1996).
- McGoldrick, M., & Gerson, R. (1992). **가족치료를 위한 가족분석가계도** (이영분, 김유숙 역). 홍익재.
- Mercy, J. A., Rosenberg, M. L., Powell, K. E., Broome, C. V., & Roper, W. L. (1993). Public health policy for preventing violence. *Health Affairs*, *12*(1), 7-29. <https://doi.org/10.1377/hlthaff.12.4.7>
- Merleau-Ponty, M., & Smith, C. (1962).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lated by Colin Smith. London; Humanities Press: New York
- Munhall, P. (1989). Philosophical ponderings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2*(1), 20-28.
<https://doi.org/10.1177/089431848900200109>
- Myers, I. B., & Myers, P. B. (1995). **Gifts Differing: Understanding Personality Type**. Palo Alto, Calif.: Davies-Black Pub.
- Nance, N. (2015). Inner child therapy. In E. S. Neukrug (Ed.), **The SAGE Encyclopedia of Theory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537-539). SAGE Publications.
- Nasio, J. D. (2015). **무의식은 반복이다** (김주열 역). 눈.
- Olson, D. H., Olson-Sigg, A. L., & Peter, J. (2008). **커플 체크업 [The Couple Checkup]** (김덕일, 나희수 역). 학지사.
- Orden, P., Minton, K., & Pain, C. (2019). **트라우마와 몸 감각 운동의 이론과 실제** (김명권, 주혜명, 신차선, 유나래, 이승화 역). 학지사.

- Park, S.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a Group Coaching Program to Improve Undergraduates' Interpersonal Skill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Kwangwoon.
- Paul, M. (2013). **내면아이의 상처 치유하기 [Inner Bonding]** (정은아 역). 서울메이트 (원전: 1992)
- Patton, M. (2001).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Piaget, J. (1958).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Basic Books.
- Pinar, W. (1994). **Autobiography, politics, and sexuality: 1972- 1992.** New York: Peter Lang.
- Prasad, R., Kramer, A., & Ewing-Cobbs, L. (2005). Cognitive and neuroimaging findings in physically abused preschoolers.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90*(1), 82-85.
<http://dx.doi.org/10.1136/adc.2003.045583>
- Prince, J., & Arias, I. (1994).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and the desirability of control among abusive and nonabusive husband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26-134.
- Reiss, I. 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New York: Free Press.
- Rothbart, M. K. (2007). **Becoming Who We Are: Temperament and Personality in Development.**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 Rounsaville, B. J. (1978). Theories in marital violence: Evidence from a study of battered women. *Victimology, 3*(1-2), 11-31.
- Sabatelli, R. M., & Anderson, S. A.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https://doi.org/10.2307/584891>
- Salend, E., Kane, R., Satz, M., & Pynoos, J. (1984). Reporting elder abuse: Limitations of Statutes. *The Gerontologist, 24*(1), 61-69.
[https://doi.org/10.1016/S0196-0644\(89\)80063-0](https://doi.org/10.1016/S0196-0644(89)80063-0)
-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atir, V. (1975). **Selbstwert and Kommunikation.** Muechen. Pfeiffer.
- Satir, V. (1979). **Familienbehandlung.** Freiburg. Lambertus.

- Satir, V., Benne, J., Gerber, J., & Gomori, M. (1991).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Palo Alto, CA: Science & Behavior Books, Inc.
- Schmallegger, F. (2006). **Criminology Today** (324–325).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Smith, J. (1993). **After the Demise of Empiricism: The Problem of Fudging Social and Educational Inquiry**. New York: Ablex.
- Smith, S. R., & Hamon, R. R. (2017). **Exploring Family Theories** (4th ed.). Oxford University.
- Steinmetz, S. K. (1987).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5–765). New York: Plenum.
- Stevens, M., & Champion, M. (1994). The knowledge, skilled ability requirements for teamwork: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20*, 503–530.
[https://doi.org/10.1016/0149-2063\(94\)90025-6](https://doi.org/10.1016/0149-2063(94)90025-6)
- Strauss, A.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https://doi.org/10.2307/351733>
- Straus, M. A., & Gelles, R. J.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Tatara, T. (1990). **Elder Abuse in the United States: An Issue Paper**. Washington, DC: National Aging Resource Center on Elder Abuse.
- Tolman, R. M., & Bennett, L. W. (1990).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87–118.
<https://doi.org/10.1177/088626090005001007>
- van der Kolk, B. (2016). **몸은 기억한다 [The Body Keeps the Score: Brain, Mind, and Body in the Healing of Trauma]** (제효영 역). 을유문화사.
- Van Manen, M. (1991). **The Tact of Teaching: The Meaning of Pedagogical Thoughtfulness**. London, ON: Althouse Press.

- Van Manen, M. (2007). Phenomenology of Practice. *Phenomenology & Practice*, 1(1), 11-30. <https://doi.org/10.29173/pandpr19803>
- Wachtel, E. F. (1982). The family psycho over three generations: the genogram revisited.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8, 293-303. <https://doi.org/10.1111/j.1752-0606.1982.tb01456.x>
- Warner, J. (2007). **Network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profile**. HRD Press.
- Wexler, D. B. (2005). 가정폭력 2005_가정폭력 남성을 공감적으로 변화시키기 [Domestic Violence 2005_Changing Men Sympathetically] (김현수, 배민진, 윤웅장 역). 나눔의집.
- Whitfield, J. (2007).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Healing the Child Within] (김용교, 이인출 역). (원저: 1987). 글샘.
- Widom, C. S. (1989).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44(4901), 160-166. <https://doi.org/10.1126/science.2704995>
- Woititz, G. (1983).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ompano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 Inc.
- Zizek, S. (2012).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국회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

법제처: <http://www.law.go.kr>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http://1366ulsan.or.kr/default/>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http://www.holine.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top.or.kr/>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145
<부록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심층인터뷰 동의서	146
<부록 3> 연구 설문지	147
<부록 4> 심층 인터뷰 질문지	149

<부록 3> 연구 설문지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sqrt{\quad}$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과 연령은 어떻게 되세요? (남 / 여, _____세)

2. 결혼형태는 어떤가요?

- ① 초혼 ② 재혼 ③ 동거 ④ 이혼 후 재결합
⑤ 사실혼 ⑥ 기타()

3.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4. 결혼방법은 어떤가요?

- ① 연애 ② 중매 ③ 기타()

5. 현재 배우자와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동거 ② 별거 ③ 이혼 ④ 이혼소송 중 ⑤ 기타()

6. 현재 귀하를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7. 귀하의 자녀수는 어떻게 되나요? (명)

7-1. 자녀의 성별은? (남 / 여)

7-2. 자녀의 나이는 ? ()

<부록 4> 심층 인터뷰 질문지

II. 인터뷰 질문지

1. 내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가요.
2.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요.
3. 배우자와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생활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4. 내가 처음 폭력을 사용한 시기, 장소, 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5. 폭력을 행사한 후 감정이나 느낌은 어떠했나요.
6. 현재 자기 삶의 만족도나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Abstract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Violence Process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Seok, Mi-Jin

Major in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ed by Prof. Jung, Min-J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sychologically meaningful interventions for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who have be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y an in-depth analysis of their experiences of what psychological change processes and family structural dynamics lead them to become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Thu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What was the experience of childhood violence victimization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violence process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and “What is the hermeneutic phenomenon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ion?”

The participants and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0 men and women who were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and agreed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 method w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nd the data from the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program Bluebird 2.0 (2016).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the fundamental nature of physicality is domestic violence perpetration, and there are four main themes: ‘Child abuse victims becoming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Inability to express thoughts and feelings in words,’ ‘Refusal to have sex with the spouse,’ and ‘Thinking to be neglected along with people around me.’ 14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When I

grow up, I can hit too,' 'I was hit and learned, You should be hit too,' 'No reason to be hit,' 'Breaking things whenever I can get my hands on them,' 'Good person outside, Tyrant at home,' 'Alcohol gives me courage,' 'Sexual addiction,' 'Confirming my spouse's affair,' 'Spouse not obeying me,' 'Ignoring my acquaintances,' 'Treating me as invisible,' 'Not taking care of me with food,' 'Looking for me only when the spouse needs money,' 'Not looking for me.'

Second, the fundamental essence of spatiality is home, and there were three essential themes: 'Home is where I am king,' 'Home is hell,' and 'I don't know what home is.' There were 11 subcategories: 'Why do you care about what I do in my house,' 'Leave if you don't listen to what I say in my house,' 'I will leave if you don't feed me,' 'My child died. What would I do in my house,' 'I am always lonely and alone. I have no spouse or children in my house,' 'My child died in this house,' 'I have never heard a warm word,' 'I only sleep in my house, avoiding dew,' 'They always ask me for money and sacrifices,' 'I don't know what my parents are doing,' 'My parents wouldn't know if I died in the corner of my house.'

Third, the fundamental nature of temporality is the inner child, and there were four essential themes: 'I want to be strong,' 'I am responsible for my family,' 'I am lonely,' and 'I was hurt as an inner child.' There were 17 subcategories: 'I want to be the strongest person in the house,' 'I have to make sure my family doesn't suffer,' 'I'll never be like someone in my family,' 'I'm always alone,' 'I miss my mom. I just have to put up with it. We are in a codependent relationship,' 'Aggressive behavior,'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roblems with trust,' 'Internal behavior of an external behavior,' 'Magical beliefs,' 'Intimacy disorders,' 'Disorganized behavior,' 'Addictive and compulsive behavior,' 'Distorted thinking,' 'Feelings of emptiness,' 'Apathy,' and 'Depression.'

Fourth, the underlying nature of relationships is family dynamics, with four fundamental themes: 'Quarrel for every meal,' 'All my family's fault,' 'All my fault,' and 'Failure to be a parent.' Seven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including 'Not caring about myself,' 'Drinking and not taking care of the family,' 'Not capable and not caring,' 'Sending my children to live with

relatives because of difficulties,' 'Wishing my mother had taken me and run away,' 'My child who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me,' and 'Not being able to support my family financially.'

The significance and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ir upbringing environment and growth proc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that this experience severely traumatized their innate and inherent potential, causing them to grow up with a wounded inner child and that they would use violent coping mechanisms to resolve the conflict when confronted with a conflict with a close family member.

Second, since the phenomen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becoming current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is quite complex and diverse in term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a national counseling system that can identify and support violence sensitivity and various psychological emotions that look at the causes of domestic violence on an individual basis before determining the punishment and disposition of domestic violence criminal acts.

Lastly,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entire domestic violence perpetration in our society a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tatements of the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Therefore,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and to conduct in-depth research and counseling on the causes and processes that affect the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Keywords: Domestic violence, Personality temperaments by the Four Gracious Plants, Inner child, Wounded inner child, Family dynamics